

신사 참배	27	2,262	11	40	35	561	27	2,863	83	663	69	1,481	38	362	290	8,232
근로 봉사	3	352	-	-	7	96	2	60	11	126	11	126	7	73	41	833
군사 위문	7	6,353	3	15	6	767	18	619	23	156	9	34	6	50	78	7,993
	7	51,310	1	70	1	2,750	11	5,600	8	5,521	4	130	10	223	42	64,604
기타 총계	140	66,559	34	1,612	95	8,034	102	11,324	196	9,137	233	24,080	121	1,921	979	121,567

연맹원 현금표(1939년 9월 1일 현재)

지부명	금액	연인원	비고
경성	710.64	387	
함흥	323.44	475	
청진	504.04	335	
평양	409.95	490	
신의주	2,683.97	409	이 가운데 1,293원 50전(12명)은 비행기헌납기금으로 각출한 것
대구	566.41	360	
광주	364.86	285	
계	5,599.31	2,741	이 가운데 815원은 16밀리 영사기 및 촬영기 헌납대금

애국헌금·헌품 세목표(1939년 7월 1일 현재)

	사상전 무기 헌납액		위문보따리		기타 애국헌금	
	인원	금액	인원	개수	인원	금액
경성	106	215.00	25	71	134	305.41
신의주	55	100.00	10	10	130	249.75
대구	73	100.00	17	23	159	149.32
청진	-	100.00	-	-	8	4.00
평양	211	100.00	13	13	167	162.65
광주	200	100.00	5	5	40	119.01
함흥	367	100.00	(지부)	342	70	106.32
합계	1,012	815.00	70(1지부)	464	707	996.46

연맹 현세표(1939년 12월 말일 현재)

지부명	가맹원 수	소속분회 수	소속분회명
경성	596	11	인천, 수원, 청주, 대전, 춘천, 경성부내 제1, 제2, 제3, 제4, 양평, 개성
함흥	541	7	양양, 강릉, 삼척, 통천, 단천, 함흥, 원산
청진	343	5	청진, 종성, 나진, 회령, 종성

평양	237	2	해주, 진남포
신의주	240	10	선천, 정주, 영변, 강계, 초산, 삭주, 의주, 용암포, 철산, 구성
대구	214	12	진주, 하동, 예천, 영덕, 부산, 봉화, 김해, 영주, 김천, 경주, 안동, 울진
광주	584	16	장성, 순천, 여수, 해남, 목포, 영광, 진도, 완도, 장흥, 영암, 강진, 광양, 전주, 군산, 김제, 나주
계	2,765	63	

연맹 자산상태(1939년 8월 1일 현재)

	수입총액	지출총액	잔고
본부	10,142.52	8,431.56	1,710.96
경성지부	5,705.60	4,269.69	1,435.91
신의주지부	28,787.21	28,557.29	229.92
평양지부	4,602.01	2,084.24	2,517.77
청진지부	20,476.97	1,748.36	18,727.73
함흥지부	13,567.97	2,508.20	11,059.77
대구지부	4,991.21	2,456.51	2,534.70
광주지부	8,330.59	4,320.36	4,010.23
총계	96,603.20	54,376.21	42,226.99

『사상보국』지 배포상태(1939년 10월 말일 현재)

지부	부수	지부	부수
경성지부	1,700	신의주지부	300
청진지부	400	대구지부	500
함흥지부	450	광주지부	900
평양지부	500	기타	1,750

비고)

발행부수 : 6,500

배포지역 : 조선, 내지, 만주, 지나

배포망 : 연맹원, 연맹고문 및 찬조원, 주요 관청, 민간유력자, 우의단체, 제일선 장병 등

■ 연맹본부 임원

총무 : 이승우(李升雨)

총무차장 : 야마시타 히데키(山下秀樹)

상임간사 : 구리타 세이조(栗田清造), 요코타 고이치(横田伍一), 미야모토 구니타다(宮本國忠), 혼다 분에이(本多文映), 김두정(金斗禎), 유억겸(俞億兼), 김한경(金漢卿), 장덕수(張德秀), 박영희(朴英熙)

간사 : (경성부내) 박득현(朴得鉉), 권충일(權忠一), 한상건(韓相建), 이관구(李寬求), 최두선(崔斗善), 인정식(印貞植), 김계림(金桂林), 심호섭(沈浩燮), 주인규(朱仁奎), 갈홍기(葛弘基), 윤치영(尹致映), 윤동명(尹東鳴), 최익한(崔益翰), 나준영(羅俊英), 민병중(閔丙曾), 최현배(崔鉉培), 구자옥(具滋玉), 조기간(趙基棐), 염인걸(廉仁傑), 박자갑(朴自甲), 고명자(高明子), 김준연(金俊淵)

- (경성지부 관내) 이봉수(李鳳洙), 정진복(鄭鎭福)
- (청진지부 관내) 방동칠(方東七), 강신호(姜信鎬)
- (함흥지부 관내) 주영심(朱英深), 남상효(南相孝)
- (신의주지부 관내) 박광원(朴光遠), 김응방(金應芳)
- (평양지부 관내) 이홍근(李弘根), 정순명(鄭順明)
- (대구지부 관내) 이효중(李孝鍾), 윤장혁(尹章赫)
- (광주지부 관내) 신갑범(慎甲範), 이평권(李平權)

연맹본부 부서

무임소 상임간사	구리타 세이조, 요코타 고이치, 미야모토 구니타다, 혼다 분에이	
부서	부장	부원
서무부	김두정	염인걸
수양부	유억겸	최두선, 윤치영, 윤동명, 권충일, 갈홍기
문화부	김한경	최익한, 주인규, 나준영, 인정식, 한상건
시국부	장덕수	김준연, 박득현, 민병중, 박자갑, 이관구, 최현배
후생부	박영희	구자옥, 김계림, 조기간, 심호섭, 고명자

■ 각 지부 임원

〈경성지부〉

지부장 : 장우식(張友植)

부지부장 : 야마시타 히데키(山下秀樹)

상임간사 : 구리타 세이조(栗田清造), 요코타 고이치(横田伍一), 미야모토 구니타다(宮本國忠), 혼다 분에이(本多文映), 김두정, 갈홍기, 한상건, 최현배, 박영희

간사 : (경성) 이와쿠마(岩熊正義), 한국동(韓國東), 이종오(李種澳), 김봉희(金鳳喜), 김용제(金龍濟), 최순주(崔淳周), 김흥제(金興濟), 안기석(安基錫), 박상근(朴尙根), 이강명(李康明), 황순봉(黃舜鳳), 이오남(李五男), 이평산(李平山), 김세환(金世煥), 최봉칙(崔鳳則), 김현제(金顯濟), 정기환(鄭箕桓), 서중석(徐重錫), 염용섭(廉龍燮), 홍승유(洪承裕)

(인천) 조봉암(曹奉岩), 신수복(慎壽福), 고희선(高羲璇)

(수원) 차도순(車道舜), 박승극(朴勝極)

(청주) 박인섭(朴仁燮), 안철수(安喆洙)

(대전) 이봉수(李鳳洙), 권경득(權庚得), 오바 산구로(大庭三九郎)

(춘천) 박순택(朴順澤), 지태선(池泰善)

무임소 상임간사		구리타 세이조, 요코타 고이치, 미야모토 구니타다, 혼다 분에이
부서	주임	부원
서무부	김두정	이와쿠마, 한국동, 이종오
수양부	갈홍기	김봉희, 김용제, 최순주, 김홍제
문화부	한상건	안기석, 박상근, 황순봉, 이강명
시국부	최현배	이오남, 김세환, 최봉칙, 김현제, 이평산
후생부	박영희	정기환, 서중석, 염용섭, 홍승유

〈함흥지부〉

지부장 : 유태설(劉泰尙)

부지부장 : 가가와 겐(香川願)

간사(◎은 상임간사) :

(간사) ◎다나카 마코토(田中眞), ◎사이토 부사쿠(齋藤文作)

(함흥) ◎진형국(陳炯國), ◎김예용(金禮鏞), ◎주영심(朱英深), ◎김상훈(金相勳), ◎주덕흠(朱德欽)

(합주) 김태문(金泰文), 장창진(張昌鎭)

(정주) ◎진병로(秦炳魯), 주두기(朱斗基)

(신흥) 유겸희(劉謙喜)

(영흥) 서경석(徐慶錫)

(고원) 장희동(張羲東)

(문천) 김대윤(金大允)

(안변) 김칠성(金七星)

(원산) 서상호(徐尙虎), 양보회(陽報會), 가미조(上條) 주사

(흥원) 정염구(鄭濂九), 조양환(曹陽煥)

(북청) 전덕용(全德滄), 이필하(李弼夏)

(이원) 전정관(全政瑄)

(단천) 이학모(李學模)

(갑산) 이영호(李永浩)

(통천) 오계윤(吳桂允)

(고성) 정평국(鄭平國)

(양양) 김병환(金炳煥)

(강릉) 강덕선(姜德善)

(삼척) 황운대(黃雲大)

부서

부서	부원
시국대책부	진병로, 김상훈
생활대책부	진형국, 주영심
서부회계부	김예용, 주덕흠

〈청진지부〉

지부장 : 장헌근(張憲根)

부지부장 : 사가라 하루오(相良春雄)

간사 : (청진) 이마세키 신(今關信), 시라이시 마사조(白石正三), 오쾌일(吳快一), 주진경(朱鎭璟), 남윤구(南潤九), 장봉(張峰), 윤덕용(尹德龍), 전태균(全泰均), 양세관(楊世寬), 방동칠(方東七), 안종길(安鍾吉), 이진순(李眞淳)

(종성) 김창일(金昌一), 정일인(鄭日仁), 맹종호(孟鍾鎬)

(명천) 박은삼(朴銀三), 최호을(崔豪乙)

(길주) 허을성(許乙星)

(회령) 이재하(李載夏), 함춘성(咸春星)

(은성) 전우일(全宇一), 이용희(李容熙), 오상혁(吳尙赫)

(나진) 강신호(姜信鎬), 김□근(金冷眞根)

(성진) 김재수(金在水)

부서

부서	주임	부원
서무부	방동칠	이진순, 맹종호, 전우일, 오상혁
수양부	오쾌일	주진경, 정일인, 허을성, 최호을
시국부	안종길	양세관, 김창일, 김재수, 박은삼
문화부	남윤구	장봉, 함춘성, 강신호, 이용희
후생부	윤덕용	김태균, 이재하, 이회근

〈대구지부〉

지부장 : 서병조(徐丙朝)

부지부장 : 사사키 요시히사(佐々木義久)

간사 : (대구) 후지이(藤井人晃), 미우라 슈이치(三浦秀一), 최(崔) 서기, 구도(宮藤) 서기, 허경인(許景仁), 김수암(金水岩), 이삼문(李三文), 방한상(方漢相), 최성면(崔性冕), 윤장혁(尹章赫), 김판권(金判權), 이상길(李相吉), 김동환(金東煥), 전명석(全明石)

(김천) 임종업(林鍾業), 박장백(朴長伯)

(상주·선산) 하야시다 시게오(林田茂雄)

(안동) 이회승(李會昇)

(예천) 이홍기(李洪起)
 (사천) 최명석(崔命錫)
 (영주) 이효중(李孝鍾)
 (봉화) 권우섭(權宇燮)
 (영덕) 이경석(李璟錫)
 (경주) 이칠성(李七星)
 (울진) 전영경(田永璟)
 (부산) 김기찬(金奇贊), 장영수(蔣英洙), 이태술(李泰述)
 (김해) 신말찬(申末贊), 최여봉(崔汝鳳)
 (마산) 김차용(金且龍)
 (하동) 전석순(全錫舜), 권대형(權大衡)
 (울산) 박상선(朴相善)
 (진주) 송기호(宋畿鎬)
 부서

부서	주임	부원
군사후원부	미우라(三浦) 보호사	7명
사상대책연구부	후지이(藤井) 보호사	6명
대륙진출대책연구부	오누키(小貫) 촉탁보호사	6명
생활쇄신부	우에다(上田) 촉탁보호사	6명
서무회계부	구도(宮藤) 서기	4명

〈광주지부〉

지부장 : 현준호(玄俊鎬)

부지부장 : 마츠모토 다카요시(松本孝義)

간사 : (광주) 후지하라 가게키(富士原景樹), 미무라 마사조(御村正藏), 김상연(金尙演), 송화식(宋和植), 임영춘(林永春), 최규창(崔圭昌), 김부득(金富得), 신갑범(愼甲範), 박무길(朴武吉), 김종선(金鍾善), 신석효(辛錫孝), 권준상(權俊相)

(목포) 강영수(姜榮秀), 조점환(趙占煥), 무숙섭(武濤涉)

(광산) 장현진(張鉉進)

(영암) 최규문(崔圭文)

(장성) 김기주(金基柱)

(여수) 여도현(呂道鉉)

(장흥) 김두환(金斗煥)

(강진) 윤주응(尹柱應)

(완도) 조병호(趙炳浩)

(화순) 조계현(曹繼鉉)
 (해남) 김정수(金正洙)
 (순천) 정홍모(鄭洪模)
 (광양) 정순화(鄭順和)
 (보성) 박기원(朴基源)
 (진도) 곽병관(郭丙寬)
 (담양) 박대규(朴大圭)
 (영광) 조용남(趙龍楠)
 (제주도) 한상호(韓相鎬), 니노미야 요스케(二宮良助)
 (나주) 김진섭(金晉燮)
 (완주) 권용훈(權容勳)
 (전주) 야마모토 쇼이치(山本正一), 아다치 다다노부(安達唯信), 이평권(李平權), 하준기(河駿騏)
 (군산) 시오타니(監谷敬一), 김영률(金榮律)
 (옥구) 김성철(金星哲)
 (부안) 김태중(金泰鍾)
 (남원) 이두용(李斗用)
 (임실) 노병춘(魯炳椿)
 (김제) 김병숙(金炳壽)
 (금산) 길경섭(吉慶燮)
 (익산) 송병채(宋炳采)
 (정읍) 신수암(申守岩)
 부서

부서	주임	부원
시국대응부	최규창	임영춘, 박대규, 이기홍, 장현진, 김몽길
사상연구부	김종선	김진섭, 신석효, 최은환
생활보도부	김부득	박무길, 김기주

〈평양지부〉

지부장 : 이기찬(李基燦)

부지부장 : 이다 가즈미(衣田克己)

간사 : 가미자키 가넨(神崎禾念), 야나기사와 이세오(柳澤伊勢雄), 사카다 스구루(坂田勝), 노정일(盧鼎一), 이현석(李賢奭), 노진설(盧鎭高), 박병찬(朴丙贊), 송창렴(宋昌濂), 한국형(韓國亨), 우찬규(禹贊奎), 허의순(許義淳), 김광업(金廣業), 박병곤(朴炳坤), 한육홍(韓六洪), 맹관호(孟觀浩), 김상용(金相龍), 고일환(高日煥), 황희찬(黃熙贊), 이홍근(李弘根), 한재덕(韓載德), 변효식(邊孝植), 니카이도 료케이(二階堂了惠), 박선제(朴旋齊), 엄호숙(嚴鎬淑), 김근영(金根永), 다치마나 류엔(立花龍圓), 정순명(鄭順命),

최덕석(崔德錫), 최병한(崔丙漢)

〈신의주지부〉

지부장 : 고일청(高一淸)

부지부장 : 나가사키 유조(長崎祐三)

상임간사 : 다케무라 이사무(竹村勇), 요네하마 반지(米濱滿治), 박광원(朴光遠), 송이관(宋利官), 백명규(白命奎)

간사 : (신의주) 손학현(孫學玄), 이규열(李奎烈), 구익균(具益均)

(선천) 김석룡(金碩龍), 김치제(金致濟)

(정주) 이석세(李錫洗)

(영변) 장성복(張星福)

(강계) 오윤진(吳允珍)

(초산) 정도준(鄭道俊)

(삭주) 김중현(金仲賢)

(용천) 정서죽(鄭瑞竹)

(의주) 박완식(朴完植), 백세명(白世明)

(철산) 정윤석(鄭允錫)

(구성) 김응방(金應芳)

(북진) 장창순(張昌順)

부서

서무부장	요네하마 반지	
목공부장	다케무라 이사무	동 주임 박광원
야학부장	이방우	동 주임 길일철

각 지부 관내 분회표

경성지부 관내(1939년 11월 말일 현재)

분회명	결성연월일	분회장	부분회장	분회원수
인천분회	1938.12.4	김세완(金世玩)	고타니 마사지로(小谷益次郎)	33
수원분회	1939.4.8	구로이와(黑岩寬一)	차준담(車濬潭)	32
경성제1분회	1939.7.15	박영희(朴英熙)	최현배(崔鉉培)	64
경성제2분회	1939.7.15	박득현(朴得鉉)	김봉희(金鳳喜)	41
경성제3분회	1939.7.15	유억겸(俞億兼)	윤동오(尹東鳴)	105
경성제4분회	1939.7.15	장덕수(張德秀)	민병회(閔丙會)	61
청주분회	1939.7.21	이명구(李明求)	미우라(三浦又一)	30

대전분회	1939.7.24	강변(姜藩)	기타무라(北村直甫), 임창수(林昌洙)	14
춘천분회	1939.7.26	정은섭(丁殷燮)	지규설(池奎高)	20
양평분회	1939.11.30	조호기(趙湖基)	홍남표(洪南杓)	18

대구지부 관내(1939년 11월 말일 현재)

분회명	결성연월일	분회장	부분회장	분회원수
진주분회	1938.12.10	최지환(崔志煥)		13
하동분회	1938.12.11	여경엽(余璟燁)		14
예천분회	1938.12.17	오오다케(大竹作次郎)		7
영주분회	1939.3.4	스즈키(鈴木實衛)		13
봉화분회	1939.3.5	구사노(草野計人)		12
김해분회	1939.3.11	백남일(白南日)		13
부산분회	1939.3.18	사이조(西條利八)	목순구(睦順九)	12
김천분회	1939.4.26	하야비(早馬十一)	고덕환(高德煥)	21
울진분회	1939.7.6	미즈타니(水谷康次郎)		16
경주분회	1939.7.7	掛嘉久郎		8
안동지방분회	1939.7.8	권태성(權泰星)		11

신의주지회 관내(1939년 11월 말일 현재)

분회명	결성연월일	분회장	분회원수
선천분회	1939.4.22	이영찬(李泳贊)	15
정주분회	1939.4.23	김태호(金泰浩)	15
영변분회	1939.4.25	이희정(李熙禎)	36
강계분회	1939.6.13	유상우(劉相禹)	10
초산분회	1939.6.15	김문걸(金文杰)	20
삭주분회	1939.6.17	박윤진(朴允珍)	9
의주분회	1939.6.19	이원규(李源圭)	13
용암포분회	1939.11.27		
철산분회	1939.11.28		
구성분회	1939.11.30		

광주지부 관내(1939년 11월 말일 현재)

분회명	결성연월일	분회장	분회원수
장성분회	1938.11.27	이하라(井原義人)	30
순천분회	1938.11.27	가와하라(河原榮作)	15
여수분회	1938.12.4	마츠키(松木久磨)	24

해남분회	1938.12.16	시라이(白井津賀次)	41
목포분회	1938.12.24	이나다(稻田壽生)	23
영광분회	1939.1.20	이와무라(今村勉)	14
진도분회	1939.1.25	나카사토(永里常樹)	17
완도분회	1939.1.29	미야우치(宮內寬三)	16
광양분회	1939.2.12	우메다(梅田福松)	19
영암분회	1939.2.26	후쿠모토(福本武能)	32
장흥분회	1939.3.11	데쿠치(出口利家)	54
강진분회	1939.2.27	나카니시(中西靜馬)	17
전북연합분회	1939.6.13	히사나가(久永麟一)	
전주분회	1939.6.13	원병희(元炳喜)	30
군산분회	1939.6.14	이즈미가와(泉川秀雄)	39
김제분회	1939.7.5	인자이(安西謙次)	24
나주분회	1939.7.31	최영철(崔榮哲)	30

청진지부 관내(1939년 11월 말일 현재)

분회명	결성연월일	분회장	부분회장	분회원수
청진분회	1938.10.15	황종국(黃鍾國)	장채극(張彩極), 윤덕룡(尹德龍)	47
중성분회	1939.3.5	김병규(金炳奎)	정일인(鄭日仁), 강학병(姜鶴秉)	71
회령분회	1939.7.28	최영욱(崔永郁)	이재하(李載夏)	16
은성분회	1939.7.29	이흥재(李興載)	최문호(崔文鎬), 오상혁(吳尙赫)	18
나진분회	1939.7.30	김기택(金琪宅)	강신희(姜信鎬), 김□근(金洵根)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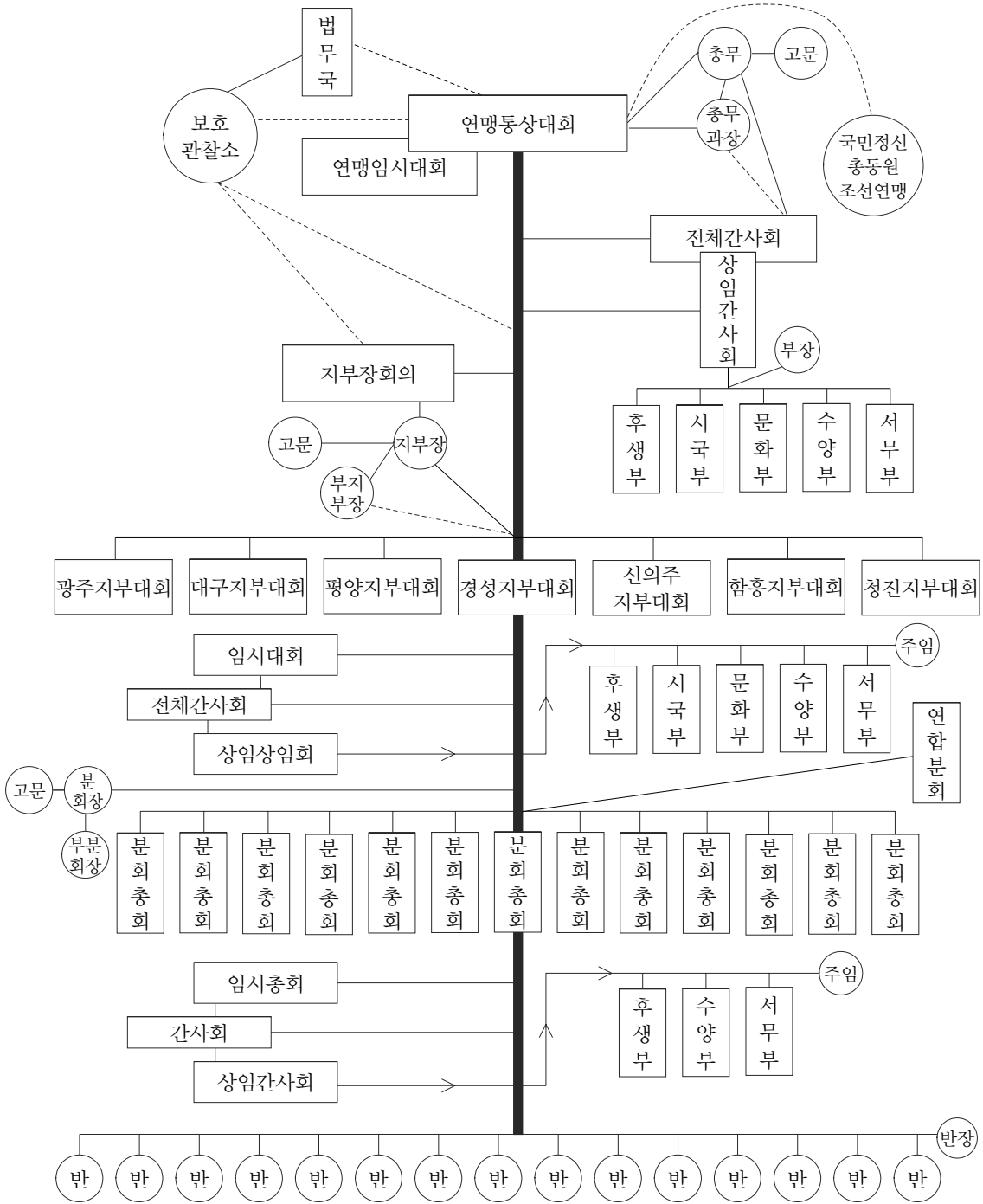
평양지부 관내(1939년 11월 말일 현재)

분회명	결성연월일	분회장	부분회장	분회원수
해주분회	1938.12.18	지관일(池貫一)	손진언(孫鎭彦)	32
진남포분회	1939.1.25	황운(黃潤)		20

함흥지부 관내(1939년 11월 말일 현재)

분회명	결성연월일	분회장	분회원수
양양분회	1938.12.8	도미타(富田乙松)	17
강릉분회	1938.12.9	카이(甲斐儀士南)	18
삼척분회	1938.12.11	加孫藤市	19
동천분회	1938.12.17	와타나베(渡邊清)	19
단천분회	1939.10.28	니시하라(西原敏雄)	87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조직도



〈출전: 『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一覽』, 1940년 1월〉

3.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경성지부원의 근로봉사에 관한 건

경고특비 제1831호의 1

1938년 8월 10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귀하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경성지부원의 근로봉사에 관한 건

(8월 3일자 경고특비 제1831호에 대해)

7월 27일 발회식을 거행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경성지부에서는 현하 시국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론보다 먼저 실행을 '모토'로 탄생하였다. 제1회 사업으로서 땀을 흘리는 근로 작업에 의한 지부원의 심신양면을 연마하고자 지난 8월 6일 지부원 55명을 동원하여 군부의 양해 아래 용사육군묘지의 청소와 기타 봉사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상황 및 참가자 씨명은 다음과 같다. 당일 작업에 종사한 전(前) 동우회원의 감상을 종합하건데 "우리는 사상운동 특히 민족운동의 오류와 결함을 자각하고 이를 청산한 다음 미력하나마 황국신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운동에 매진하고 있는바, 최근 조직된 사상보국연맹에도 혼연히 참가하였다. 우리는 이번 실천적 근로의 일단으로서 지부원 일동과 함께 육군묘지의 청소 등에 종사하였다. 지금과 같이 황국이 혹서(酷暑) 아래 얼마나 악전고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니 그 저 감개무량할 뿐이다. 앞으로 더욱 충후보국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행사는 아주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기(記)

전선사상보국연맹 총무차장 및 경성지부장의 인솔 아래 사상전향자 55명과 관찰소원 기타 10명 합계 67명(별지)은 8월 6일 오전 8시부터 용산 육군묘지의 청소작업에 착수하여 동 11시에 종료한 다음, 사단 병기부에서 나가무라(中村) 조선군사령관으로부터 사상보국에 대한 격려를 받았다. 이에 대해 동 지부 대표로서 권충일(權忠一)은 "우리는 일본국민으로서의 행복에 감격하고 있다. 시대의 추세를 감안하여 과거의 비국민적 사상을 청산하고, 충후의 국민으로서 멸사봉공의 각오이다"고 화답하였다. 이어서 동 병기부원 간(管) 소좌는 군인정신의 개요를 설명하고, 현하 비상시국에 대한 충후국민의 각오에 대한 강담이 있었다. 그리고 동 소좌의 지도 아래 12시부터 38식 보병용 탄약창 360개의 수선작업을 한 다음 오후 3시 30분에 종료 해산하였다. 그동안 특이한 점은 없었다.

〈별지〉

전선사상보국연맹 총무차장 츠쓰미 요시아키(堤良明)
전선사상보국연맹 간부 김한경(金漢卿)
전선사상보국연맹 간부 박득현(朴得鉉)
경성지부장 이승우(李升雨)
경성보호관찰소 보호사 구리타 세이조(栗田清造) 외 직원 기타 8명

〈근로봉사반〉

(1) 제1반

반장 : 이기영(李箕永)

반원 : 김금남(金琴南), 최봉칙(崔鳳則), 심정섭(沈庭燮), 조영식(趙英植), 권오명(權五明), 윤기승(尹基昇), 현제명(玄濟明), 백중빈(白重彬), 곽양훈(郭良勳), 김길영(金吉泳), 김덕현(金德鉉), 나준영(羅俊英), 이□섭(李□燮)

(2) 제2반

반장 : 박영희(朴英熙)

반원 : 김조이(金祚伊), 김영완(金英腕), 정용봉(鄭龍鳳), 오성천(吳成天), 장준(張竣), 한상건(韓相健), 박성□(朴成□), 한무□(韓武□), 이순기(李順基), 길윤기(吉允箕), 최활웅(崔活熊), 박대술(朴大述)

(3) 제3반

반장 : 박득현(朴得鉉)

반원 : 박격근(朴激根), 김흥제(金興濟), 안기석(安基錫), 송무현(宋武鉉), 이하□(李下□), 김지담(金志淡), 김상복(金相福), 안병규(安秉奎), 조기간(趙基堧), 하경덕(河敬德), 이진일(李鎭一), 김태길(金泰吉)

(4) 제4반

반장 : 권충일(權忠一)

반원 : 김진성(金晉成), 박명렬(朴命烈), 김세환(金世煥), 민태복(閔泰福), 이묘묵(李卯默), 최학소(崔學昭), 천덕운(千德云), 조맹규(曹孟奎), 갈홍기(葛弘基), 오성노(吳成老), 양성호(梁成灝), 박시병(朴是秉), 이오남(李五男), 윤용진(尹龍辰)

〈출전: 「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 京城支部員ノ勤勞奉仕ニ 關スル件(京高特秘 第1831號ノ1)」, 1938년 8월 10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11)〉

4. 정삼봉(鄭三峯), 전선전향자대회 방청기 - 전조선 사상보국연맹 결성

‘전향(轉向)’이란 말의 의미!

전향이란 말이 언제 생겼는지 고사는 모르거니와 한 동안 유행하던 방향전환(方向轉換)이란 말과는 어의(語義)는 비슷할지언정 어감(語感)은 아주 다르다.

방향전환이란 말은 그 전에 소위 비사상인이 사상으로 된다는데 흔히 써온 말이나 전향은 그와 정반대의 경우에 사용된다.

즉 적색 공산사상에서 국민으로서의 잘못을 대각(大覺)하고 홀연히 애국정신으로 일전(一轉)함을 이룸함이다. 이것은 시국의 커다란 ‘인스피레-션’⁴⁾이 이들한테 반국가적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투영된 결과로서 시국하의 공산 사상인을 상징하는 훌륭한 새 술어(術語)의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방향전환과는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현하 시국과 전시하의 국책이란 일점을 향하여 전환되는 방향이 전향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전 사상인의 훌륭한 국민으로서의 갱생을 의미하는 고유한 말이다.

전향자연맹이냐? 사상보국연맹이냐?

그런데 왜 이렇게 전향의 어의(語義)에 관하여 요설(饒舌)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7월 22일 대회가 부민관에서 열리기 바로 전날 지방 대표도 이미 상경(上京)하고 재경(在京) 준비회원들과 합하여 최종 준비위원회가 열렸던 날 실상은 이 ‘전향’의 문제에 관하여 일대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논쟁이라고 해야 전향할 것이냐, 전향하지 말 것이냐 하는 류의 논쟁이 아니라 새로 조직될 연맹의 명칭을 전향자연맹이라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논쟁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독자는 대번 전향자들이 대회를 해서 연맹을 만드는데 의례히 전향자연맹이 될 건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무슨 ‘넌센스’냐? 반문할지 모르나 그것은 좀 사정을 모르는 친구의 말이다.

전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산, 혹은 민족 참 그야말로 일체의 서구적 악사상, 예를 들면 합리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연애지상주의 등등으로부터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우리 애국정신으로 방향이 전환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적실(適實)한 전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향은 한 개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과정으로 발전에서 보는 것을 배운 전향자들로서 이 대회는 벌써 전향해버린 사람들의 연맹이 될 것이며 즉 전향은 그들이 가졌던 반국가적 사상과 함께 벌써 한 개의 과거의 일에 속하는 것이고 오늘 날엔 훌륭한 일개 국민으로서 시국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꼭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성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전 조선전향자연맹이라고 이름도 확정하여 선언, 강령 또 기타 인쇄물도 다 만들어 놓고 당국의 양해까지 얻어 놓은 뒤라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인데 돌연 평양관찰소 대표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사상보국연맹으로 하자는 긴급제의를 하였다.

4) inspiration, 영감(靈感).

이유는 전향이란 신문기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야유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고 또한 전향자라고 하면 사회에서(형무소 있는 사람들이 보통 바깥세상을 사회라고 하는데) 전과자를 연상하게 되어 나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벌써 전향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기실 우리가 원체 모두 사상인이었으므로 이젠 사상으로 보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상보국연맹으로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의논은 백출(百出) 다사재재(多士齋齋) 왕년의 투사로 영명(英名)을 날리는 경성대표 제공들도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지 고집이 대단하였다 한다. 그러나 평양대표의 주장이 맹렬을 극하여 나중엔 경성 측 방어책에 공했는지 나중엔 '전향자연맹'이란 것이 당국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라 어찌할 수 없다 일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미야모토(宮本) 법무국장이 임석했었는지라 평양대표들은 '그럼 직접 법무국장에게 물어보자!'하고 법무국장에게 '당국에선 이 연맹을 전향자! 전향으로 하라고 명령하였느냐?'하였더니 법무부장 답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명의가 적당하면 그래도 좋을 것'이라고 일언하여 버림에 평양대표 일동이 작약(雀躍)⁵⁾하여 그럼 경성대표들의 말은 이(理)의 맞지 않으니 '사상보국연맹'으로 하자고 하여 드디어 대세는 기울어 졌다.

그리하여 전향자 연맹은 일전하여 사상보국연맹이 되어 7월 23일 아침에 부민관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신궁참배 후 대회장에!

아침 8시에 각 지방 대표 경성대표, 동경에서 온 일본 전향자 대표 9명 그 외 경성 관찰소 관내의 피관찰자 일동이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참배하고 9시에 개회를 하였는데 회장에는 내빈으로 법무부장, 경무국장, 경기도지사, 경성부윤, 경성상공회의소수, 고등법원검사장, 정(鄭) 소좌(少佐) 학무국장 대리로 온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이동치호(伊東致昊) 씨 등 실로 일찍이 자신을 피해 다니거나 경찰의 눈을 속이고 비밀공작에 종사하며 유치장 형무소로나 돌아다녀 이런 이들과 동등으로 앉아보지 못하던 전향자들 흉중(胸中)은 일종 기이한 감이 제각기 스치고 지나가지 아니하였는가 한다.

대회 간부석에는 관찰소 직원들과 더불어 대회기관의 수석간부인 박영희(朴英熙)(전조선 프로 예술동맹창립자요 지도자요, 조선 맑스주의 예술이론의 중진), 권충일(權忠一)(전 수원(水原) 청년동맹간부로, 예직(藝職)에 들어갔다 인천(仁川), 원산(元山) 각 지에서 적색노동조합운동에 활약하였던 이), 김한경(金漢卿)(조선공산당 일본총국 간사), 박득현(朴得鉉)(투사명은 박균(朴均) 조선공산당 일본총국간부)등 제씨를 위시(爲始)로 대회위원으로 가슴에 꽃을 붙인 그 전 공산주의자들의 왕래하는게 왕년의 사상단체회합을 연상시키나 단상에는 국기가 엄숙히 걸려있고 양 옆으로는 '국체명징(國體明徵)', '사상보국(思想報國)', '동양평화(東洋平和)',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문자가 뚜렷하다.

회장에 우선 눈에 띄는 게 피보호자 측으로 음악가 현제명(玄濟明) 씨(이분도 동우회사(同友會事)건으로 관찰이 부터 애국데-마다 와서 국가와 진행가를 가르친다) 갈홍기(葛弘基)(연희교원으로 기독교인) 김흥제(金興濟) 조기간(趙基堧)(천도교 청년당 간부) 이기영(李箕永), 송영(宋影), 김용제(金龍濟),

5) 너무 좋아서 날뛰며 기뻐함.

임화(林和) 등등의 좌익작가의 일상이 한 자리를 잡고 있고 그중엔 중학생들도 볼 수 있어 어느 분은 청년 전향자도 있군 하고 농담하는 소리도 들었다.

회의는 처음 우선 황거요배(皇居遙拜)를 하고 ‘기미가요(君가代)’를 부른 다음, 전몰장사(戰歿將士)의 영령에 대하여 묵도를 한 다음 사계(提) 경성소장이 개회를 하고 박균(朴均) 씨가 조직위원회의 경과를 보고하고, 대회장 박영철(朴榮喆)(상은두취(商銀頭取), 중추원참의)이하 역원이 선거된 다음 김한경 씨 예전 동경(東京)사상운동 화려하던 시절의 열에 넘치는 구조(口調)와 열변으로 선언과 결의를 낭독 뒤 이어 규약도 강령도 그야말로 일사천리의 세로 만장일치 통과했다.

그 다음 경성지부까지 아주 성립하고 다음에 법무국장, 경무국장, 학무국장 대리로 윤치호 씨가 평일에 조선 옷만 입던 이가 국방색 금색 단추 스메에리⁶⁾ 양복에 흰 수염을 날리며 등단하여 서투른 국어로 그러나 열성을 다하여 축사를 낭독하고 경기도 지사 부윤, 상공회의소도, 고등법원검사사장 등 제씨의 축사가 끝난 뒤 전향자 측으로부터 권충일(權忠一), 이홍근(李弘根) 양 씨가 등단 감격 감읍 애국의 지성에서 우리나라는 눈물의 답변을 하여 만장이 숙연하였다.

각지방의 대표 출신 경력

평양(平壤) : 노진설, 김기진, 한재덕(韓載德), 허의순(許義淳), 이홍근(李弘根)

대구(大邱) : 윤신혁(尹辛赫), 김명석(金明石), 이상길(李相吉), 김일룡(金日龍), 김판권(金判權), 이효중(李孝鍾), 전석순(全錫順),

청진(淸津) : 주진경, 최학룡(崔鶴龍), 허양복(許良福)

광주(光州) : 최창규(崔昌圭), 이평권(李平權)

신의주(新義州) : 장용호(張龍浩), 김봉식(金鳳植), 정서죽(鄭瑞竹), 김병권(金秉權)

함흥(咸興) : 진형국, 진병로(秦炳魯), 김예용

경성(京城) : 양성호, 권충일(權忠一), 박균(朴均), 박영희(朴英熙), 오성천(吳成天), 김한경(金漢卿), 진해룡(陳海龍), 박봉연(朴鳳然), 현제명(玄濟明)

대전자강회 : 이봉수(李鳳洙), 김윤개(金潤介)

춘천동포회 : 장보라(張保羅)

충북청주유의회 : 정유복(鄭裕福), 송화석(宋和石)

개성대성회 : 양준산, 김명손(金明孫)

일본대표 : 고바야시(小林杜人), 탄파영부(灘派英夫)

지방대표와 전향자의 동향

그런데 여기 적혀 있던 대전자강회니 공주관락원이니 개성대성회니 춘천동포회니 하는 것은 각지 전향자들과 그 지방 전향자들이 지방 당국과 손을 잡고 만든 자치적 단체라 한다.

선언과 강령은 모두 신문에 당시 대대적으로 발표되었으니 재록(再錄)할 필요가 없고 그저 전향으로

6) 쓰메에리(tsumeeri)詰襟: 일본어. 깃의 높이가 4cm쯤 되게 하여, 목을 둘러 바깥 여미게 지은 양복.

부터 적극적으로 모든 이른바 반국가적 사상을 때려 부수기 위하여 썼다는 것이 눈에 띄고 또 그 예리한 맛 역시 금고와 비슷한 것이 흥미 있다 할 수 있다. 그 뒤 긴급동의로 전선장병에게 격려전보를 칠 것과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가입할 것을 결의 하였다.

그런데 이 대회와 선언은 누가 기초했느냐 하면 전문하건대 선언은 김한경(金漢卿), 박영희(朴英熙), 박균(朴均)등이요, 결의도 이분들과 보호사 제씨하며 규약도 이분들과 지방대표 몇 분이 가세하여 만든 것인데 그것을 최후로 읽은 법무국장이 제3조인가 4조를 성문화하기에 무려 3일 3야(夜)가 걸렸다고 한다. 동경(東京)에서 온 대표는 9명이라 하는데 그날 오전 중 대회가 끝난 다음 고바야시(小林杜人), 탄파영부(灘派英夫) 2인이 일본 전향자에 대하여 약 2시간에 걸친 강연이 있었는데 소림씨는 3·15때 일본 공산당원이요, 탄파 씨는 평론가로 역시 그 대공산당원으로 좌익출판사와 무산자신문에도 관계한 인물이다. 그 뒤 이들은 평양, 대구를 거쳐 동경으로 돌아갔다 하며 그 뒤 평양지부까지 설립되고 평양서는 전향자들이 '예술보국의 밤'이라 하여 연극까지 하였다 하니 시대의 흐름이 뜻 깊은 바 있다 할 수 있다.

〈출전: 鄭三峯, 「全鮮轉向者大會傍聽記 全朝鮮思想報國聯盟結成」, 『四海公論』 第4卷 第9號, 1938년 9월, 34~37쪽〉

5. 정삼봉(鄭三峯), 전향자의 대동단결! 시국대응의 사상보국연맹

7월 24일 오전 9시 반 경성 부민관 중강당에서 궁본이심(宮本覆審) 법원장, 사에키(佐伯) 경성부윤을 위시한 다수 명사 참석 하에 성대한 결성식을 마친 사상보국연맹은 오랫동안 비국가적 사상을 품었던 이들이 비상시국을 당하여 그 비(非)를 깨닫고 사상으로 보국하자는 단체다. 창립경과에 있어서는 전월 분 본지에 상세히 소개된 바 있으니 생략하기로 하며 창립 이후의 업적과 전망을 간단히 시(試)하려 한다.

해당 연맹은 본부를 경성에 설치하고 각 주요 도시에 부(部)를 설치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편의상 경성지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할 것을 부언 한다. 그 후 눈에 띄는 변화로는 대구(大邱)·대전(大田) 양 대 도시에 지부의 설립을 보았고 경성지부 주최로 지난 8월 27일 오전 8시 박(朴)본부총무, 이(李)경성지부장, 사계(提) 부지부장 이하 근로봉사단원 54명, 조선군사령관 정문 앞에 집합하여 구리타(栗田) 보호사 인솔 하에 용산 육군묘지를 제초 청소 후 제20사단 병기부의 청소 등 작업을 하여 애국정신에 환원하는 면모를 명실공히 일신하게 하고 동 27일 용산 위수(衛戍)병원 내에서 상병(傷病)인 백의의 용사들을 위 병로(慰病勞)하기 위하여 위안음악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호국의 영웅들을 감격하게 하였다. 아직 창립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괄목할 사업이 없으나 과반 결의된 신부서(新部署) 설정으로 보아 이후 시국의 발전과 상사(相俟)하여 더욱 더 필요성이 긴박될 사상전선상에 주목할 활동을 보일 것이라고 믿어진다.

오히려 지금보다 사변의 성질상 한구(漢口)함락 이후 해당 연맹을 중심으로 한 사상투쟁의 전의는 치열할 것이며 해당 연맹의 결의문과 부서는 다음과 같다.

결의

- 우리는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정신의 양양(昂揚)에 노력하고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를 기함.
- 우리는 사상(思想) 국방전선에서 반국가적 사상을 파쇄격멸(破碎擊滅)하는 육탄적 전사가 될 것을 기함.
- 우리는 국책 수행에 철저하게 봉사를 하고 애국적 총후활동의 강화철저를 기함.

이상의 결의의 실천을 위하여 경성지부주임과 부원들은 아래와 같다.

서무부(庶務部) : 주임 박영희(朴英熙), 부원 안병윤(安秉潤), 곽양훈(郭良勳)

수양부(修養部) : 박형기(朴瑩基), 박명렬(朴命烈), 안병춘(安炳春), 이묘묵(李卯默), 갈홍기(葛弘基)

시국대책부 : 김한경(金漢卿), 오성천(吳成天), 김세환(金世煥), 권오상(權五相), 이강명(李康明)

문화부 : 현제명(玄濟明), 안기석(安基錫), 윤기정(尹基鼎), 나준영(羅俊英)

생활대연책부 : 박득현(朴得鉉), 조기간(趙基榮), 김용찬(金容贊), 조영식(趙英植), 김현제(金顯濟)

대륙진출부 : 권충일(權忠一), 이원현(李元賢), 하경덕(河敬德), 이정일(李丁一), 양성성(梁成成)

〈출전: 鄭三峯, 「轉向者の 大同團結 時局對應의 思想報國聯盟」, 『四海公論』 第4卷 第10號
1938년 10월 134-135쪽〉

6. 전향자 규합 및 대회 관계 기사

6-1)

**시국대응전향자대회(時局對應轉向者大會) 200명이 일당(一堂)에 회합,
내일에는 부민관에서 결성식을 거행, 금일에는 준비회합을 개최**

시국을 철저히 인식하는 200여 명의 전향자들이 한데 모여서 단체를 조직하여서 시국에 대한 국민적 선처방법을 강구하려는 시국대응전선전향자연맹대회(時局對應全線轉向者聯盟大會)결성식은 기보한 바와 같다. 23일부터 3일간 경성에서 개최되는데 개회 제2일인 24일에 정식으로 부민회관에서 미나미(南) 총독과 나카무라(中村) 조선사령관등 군관민 대다수 내빈이 한 자리에서 결성식을 거행하리라 한다.

이제 동대회의 3일간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제1일인 23일은 오후 1시까지 경성 보호관찰소에 집합하여 4시까지 준비회를 개최하고 5시부터는 숙소로 지정된 남산본원사(南山本願寺)에 투숙하기로 되었고

제2인 24일은 오전 8시 반에 조선 신궁에 참배한 다음 동 9시부터 부민관에서 결성식을 마치고 오후 1시부터는 경성 보호관찰소에 모여서 각지 대표와 경성에 있는 영원들 사이에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제3일인 25일에는 오전 6시부터 본원사 본당(本堂)에서 근행참례(勤行參禮)를 한 다음 동 8시에 일단 관찰소에 모였다가 산회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동 대회에는 일본에서 7명의 전향자와 보호사(保護司) 2명이 특별히 참석하리라 한다.

〈출전: 「時局對應轉向者大會 二百名一堂에會습-명일에는 부민관에서 결성식을 거행, 今日에는準備會습을開催」, 『매일신보』, 1938년 7월 23일〉

6-2)

팔굉일우(八紘一宇)의 큰 깃발 아래 사상보국의 대진출, 시국대응전조선전향자(時局對應朝鮮轉向者) 육탄(肉彈)으로 참가, 금일 연맹결성 '총동원'에 가입

지나간 날에 반국가적 사상을 가지고 행동하던 것을 청산하고 새로이 세계에 견줄 수 없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극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현재 시국의 방대함을 파악하고서 제국신민으로서의 충성을 다하려는 목적으로 전조선 전향자가 한데 모여서 통일 단체를 조직 하려던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은 드디어 24일 오전 9시부터 경성부내 태평동 부민관 중강당에서 2백여 명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그리하여 동 단체는 다시 국민정신 총동원조선연맹에 가입까지 완전히 하였다.

정각 9시에 각지 대표 남녀 2백여 명이 정렬한 자리에 국방복을 입은 윤치호(尹致昊) 씨며 미쯔하시(三橋)경무국장, 미야모토(宮本)법무국장, 하촌(下村)경무국보안과장, 마쓰나가(増永) 경기도지사, 사에키(佐伯) 경성부윤등을 비롯하여 부내 각 경찰서장과 보호관찰소 관계자등 군관민 다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선 황거요배(皇居遙拜)하고 국가제창,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한 묵도,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이 있는 후 의장으로 사계(提) 경성보호관찰소장이 등단하여 동연맹조직의 경과보고를 한 후 동 연맹 규약안을 부의 결정한 다음 총무로 박영철(朴榮喆) 씨가 추대되어 등단하여 연맹역원을 선정하고 별항과 같은 선언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경성지부장으로 이승우(李升雨) 씨의 인사가 있는 뒤 경성지부 역원선정이 있었으며 내빈 축사에 들어가서 궁원(宮元) 법무국장, 마쓰나가(増永) 고등법원검사장, 미쯔하시(三橋)경무국장 감사경기도지사 좌백 경성부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대표로 윤치호(尹致昊), 가다(賀田) 상공회의소 회두 등 제씨를 비롯하여 일본으로부터 온 전향자 대표로 고바야시(小林杜人)이 오사카에 재주하는 조선인 전향자 '메세지' 등의 낭독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동 연맹 대표로 권충일(權忠一)·이홍근(李弘根) 두 사람의 답사가 있었으며 긴급 동의로 황군 위문전보를 보내기로 결정한다. 동 연맹의 정신과 국민정신총동원연맹과의 정신이 일치된다하여 조선연맹에 가입하기를 일치 가결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봉창한 후 다음 정오에 산회하였다.

선언과 결의 : 반국가사상을 분쇄

시국대응사상보국연맹대회 선언 결의는 다음과 같다.

선언(요지)

우리 일본제국 두 개의 세계사적 임무에 당면하였다. 그 하나는 파괴적인 구미사상(歐米思想)으로부터 전 동양의 민중을 해방 또는 방위하는 것 또 하나는 일본, 만주, 지나를 한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아세아에 열강의 침략적 쟁탈전을 근절하게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세계 영원의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 팔굉일우(八紘一宇)의 황도정신(皇道精神)의 이상이 일청(日淸)·일로(日露)의 전쟁을 비롯하여 이번 지나사변도 이 정신의 나타남이다.

성전 1년을 지나 삭북(朔北) 변토, 또는 남지(南支)의 고도에 이르기까지 일장기(日章旗)를 날리며 북지와 중지에는 신정권이 생기어 세계적 성업(聖業)에 참가 분투하는 이때를 당하여 국민은 그 임무의 중대함을 자각하고 단호한 결의로써 국책에 적극 참가하여 국위선양 무운장구, 국체명징, 내선일체, 응소자 가족구원, 생업보국, 근검저축, 근로봉사 등에 적정을 다하여 제국 백년 대사명을 완전히 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야 말로 지난날의 사상적 잘못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전체적인 더 높은 활동분야와 하늘이 주신 사명에 적극적으로 각성하여 자기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선일체의 희망이 그 열매를 맺었으며 시국대응의 국민운동이 점점 높아지는 이때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실전능력을 전부 여기에 기울여가지고 반국가적 사상을 파쇄 격멸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것을 개기로 우리 연맹원 상호간의 인간적 재훈련 일본정신의 파악 내선일체의 강화 사상의 정화, 품성의 연마, 생활의 쇄신 등으로써 전선전향자의 실천적 과제로 하여 더욱 결속을 강고히 하여 그 목적 수행에 매진할 것을 맹서하노라.

결의(전문)

- 우리는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정신의 양양에 노력하고 내선일체의 강화철저를 기한다.
- 우리는 사상국방전선에서 반국가적 사상을 파쇄 격멸하는 육탄적 전사가 되기를 기약한다.
- 우리는 국책수행에 철저히 봉사하고 애국적 충후 활동의 강화 철저를 기약한다.

연맹본부 역원

총무: 박영철(朴榮喆)

차장: 쓰츠미(堤良明)

간사(幹事): ▲경성 구리타(栗田), 하시(橋), 김한경(金漢卿), 박득현(朴得鉉), 권충일(權忠一) ▲평양 노진□(盧鎭□) ▲신의주 장용호(張龍浩) ▲광주(光州) 임영춘(林永春) ▲청진 강문수(姜文秀) ▲함흥 진형국(陳炯國)

경성지부 역원

지부장: 이승우(李升雨)

부지부장: 쓰즈미(堤良明)

간사: 이목(利木) 정전(情田) 하시(橋) 혼다(本多) 고용(古用) □다(□田) 이원□(李元□) □成□, 권충일(權忠一), 나준영(羅俊英), 김용찬(金容贊), 박득현(朴得鉉), 현제명(玄濟明), 박영희(朴英熙), 고경흠(高景欽), 곽양훈(郭良勳), 한상건(韓相健), 조기간(趙基竿), 오성천(吳成天), 유형기(柳潑基), 윤기정(尹基鼎), 조영식(趙英植), 이강명(李康明), 박명렬(朴命烈)

대전지부

이봉수(李鳳洙) 오바(大庭三九郎)

▲공주(公州) 고취용영(高吹勇英) 이능규(李凌圭) ▲개성(開城) 김명손(金明孫) 鎭西萬三 ▲춘천(春川) 장보라(張保羅) 북룡□소(北龍□韶) ▲인천(仁川) 소곡익차랑(小谷益次郎) 갈홍기(葛弘基) ▲청주(淸州) 수등령운(首藤嶺雲) 정진복(鄭鎭福)

〈출전: 「八紘一宇의大旗下 思想報國의大進軍-時局對應全朝鮮轉向者肉彈으로參加 今日聯盟結成 總動員」에 加入. 宣言과 決議 反國家思想을 粉碎, 『매일신보』, 1938년 7월 25일〉

7. 지부설치 관계 기사

7-1)

조선사상보국연맹 7처에 지부설치, 9월내로 조직완료

지난 7월 경성에서 결성식을 거행한 전조선사상보국연맹(全朝鮮思想報國聯盟)에 뒤이어 오는 27일에는 광주지부를, 2일에는 대구지부를, 9월 4일에는 신의주지부를 각각 설치하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남은 청진지부와 함흥지부를 합하여 10월 중 전 조선에 7개 지부가 결성될 터인데 이 지부에서는 옛날의 그릇된 사상을 청산하고 비상시국을 위하여 멸사봉공하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전 조선의 7개 소연맹지부의 활동은 사상 전향자들의 지도개발이라는 것보다도 연맹과 지부원 자신이 열렬히 타는 애국의 지성을 충후 활동으로 표현하게 해서 사상 전향자에게 대한 사회인의 관념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노력할 방침을 세우기로 하였다.

〈출전: 「朝鮮思想報國聯盟 七處에支部設置-九月內로組織完了」, 『매일신보』, 1938년 8월 24일〉

7-2)

광주사상보국연맹 발회식 성대거행, 2백여 회원 참가리

〈광주〉 전향자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전남광주지부 결성의 발회식은 기보한 바와 같이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광주 중앙소학교 강당에서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각지로부터의 내빈 및 회원 기타 관계자등 200여 명의 참석 하에 엄숙 또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개최에 앞서 일동은 오전 8시에 광주 신사에 참배하여 출정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동 9시 30분부터 본회를 개최하였는바 회의는 개회 황거요배, 국가합창, 황국신민 서사 제창 등 식순에 의하여 극히 순조로이 진행되어 11시 30분에 전향자 대표의 답사로써 현하 비상시국 하에 있어서의 의미심장한 동연맹 광주지부결성의 발회식은 무사히 끝나치고 동교 교정에서 기념 촬영을 한 후 히노마루 벤포(도시락)를 먹으면서 환담한 다음 산회하였는데 지부장은 현준호(玄俊鎬) 씨로 결정되었다. (사진은 발회식 광경)

〈출전: 「光州思想報國聯盟 發會式盛大舉行-二百餘會員參加裡」, 『매일신보』, 1938년 8월 30일〉

7-3)

사상보국연맹 대구지부 결성식 자못 성대, 각지 대표 다수 참집리

〈대구〉 누보한 바와 같이 대구보호관찰소 앞선 하에 경상남도와 강원도 울진군을 일원으로 전향사상자를 총 망라하여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대구지부 결성식은 마침내 28일 오후 1시부터 대구부공회당에서 거행하게 되었는데 동(同) 식장에서 연맹부총무 박영철(朴榮喆) 씨의 입석 하에 상룡(上瀧) 지사를 비롯하여 관민유지와 또는 각지 대표로 파견되어 온 사상전향자를 향하여 합하여 백여 명의 회합으로 장면은 자못 엄숙하였다. 그런데 이날 결성식의 거행을 앞서 전향자 일동은 오전 9시 20분경 대구 신사에 참배하고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한 다음 다시 10시부터는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가 오후 1시 정각이 되자 본격적으로 식순에 따라 결성식의 거행에 들어갔는데 지부장 추천, 총무고사사, 내빈축사 등을 마친 다음 동 오후 3시 20분경 폐회하였다. 그리고 동일 선거된 역원과 각지 대표자 씨명은 다음과 같다. (사진은 연맹지부결성식거행의 광경)

▲지부장 서병조(徐丙朝) ▲부지부장 -좌좌목의구(佐佐木義久) ▲간사 등정(藤井) 이상길(李相吉) 외 26명

참가대표자

김판권(金判權), 한세림(韓世林), 이삼문(李三文), 방한상(方漢相), 이동우(李東雨), 김수암(金水岩), 김명석(金明石), 윤상혁(尹祥赫, 대구), 김기찬(金奇贊, 부산), 이봉술(李奉述, 동래), 송기호(宋繼鎬, 진주), 신말찬(申末贊, 김해), 김차룡(金且龍, 마산), 김석순(金錫舜, 하동), 이준하(李準夏, 영주), 전영경(田永璟, 울진), 윤사출(尹四出, 안동), 이칠성(李七星, 경주), 이홍기(李洪起, 예천)

〈출전: 「思想聯盟大邱支部 結成式자못盛大-各地代表多數參集裡」, 『매일신보』, 1938년 8월 31일〉

8. 기타 활동 관계 기사

8-1)

조선사상보국연맹 방공협회와 제휴, '국민방공(國民防共)운동' 기도

지난 8월 초순에 조직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에서는 이번에 새로 조직된 조선방공협회(朝鮮防共協會)와 긴밀한 제휴를 하고서 각 지부를 총동원해서 국민방공의 실적을 들어내도록 적극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방공협회와 구체적 방법을 타협하는 중인데 각 지부에서는 각각 시국대응부(時局對應部) 생활개선(生活改善)등의 부문을 만들어 전속 부원을 배치하여 공산주의 오류(誤謬)를 지적해서 일반대중에게 방공관련 보급의 철저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일전쟁의 본의를 체득하게 해서 장기하의 국민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경제전(經濟戰) 수행상 필요한 민중의 생활개선운동을 자발적으로 일으켜 사상전향자의 선도(先導)는 물론 반도 민중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현저한 결실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출전: 「朝鮮思想報國聯盟 防共協會와 提携 - 「國民防共」運動企圖」, 『매일신보』, 1938년 9월 6일〉

8-2)

각지의 세포망도 완성, 금후의 진로를 협의, 사상보국연맹운동의 본격화

종래에 가져오던 사상적 오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신으로 황국신민된 것을 깨닫고 따라서 비상시국하의 총후활동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취지로서 조직된 전조선사상보국연맹은 지난 7월에 결성되어 전조선사상 전향자로서의 큰 애국단체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연맹에서는 애국운동으로의 힘찬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전 조선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사상보국의 실천을 해왔는데 지난 25일까지로 청진에서의 지부설치를 최종으로 각 지방 복심법원 소재지는 전부 이 연맹지부가 설치되었다. 앞으로 이 애국단체인 연맹과 각 지부에서는 오는 10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전조선사법보호관찰소장회의에 뒤이어 이 연맹지부장회의를 열고 금후 연맹이 걸어 나갈 구체적 방침과 또는 애국운동으로서 일정한 활동을 할 것까지도 협의를 해서 이 연맹결성의 취지를 철저하게 하리라고 한다.

그리고 제일작으로 동 연맹에서는 오는 10월 5일부터 1주간 실시되는 총후후원강화주간(銃後後援強化週間)의 제 행사를 전조선 각지부에서도 실시하여 전상장병 위문과 유가족 방문 등에 참가하리라고 한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보호관찰소장회의에서 이 전향자들의 취직 알선 문제가 협의되는 바 이들에게 먼저 직업을 주어 생활의 안정을 가지게 한 다음 애국운동으로의 활발한 걸음을 걸어 나가도록 할 터이므로 각도 연맹지부장회의에서의 활동방침협의를 각 방면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출전: 「各地의細胞網도完成 今後의進路를協議 - 思想報國聯盟運動의本格化」, 『매일신보』, 1938년 9월 28일〉

8-3)

사상국방상 의의 심대, 전선사상보국연맹 제1회 지부장 타합회 개최

시국대응조선사상보국연맹에서는 전선(全鮮) 7개소의 지부도 지난 9월 25일 청진지부의 결성식을 최후로 전부 결성되었으므로 금회 본부에서 개최한 전선보호관찰소장회동(全鮮保護觀察所長會同)을 호기로 전선 각 지부장 및 지부장의 타합회(打合會)를 개최하게 되어 금일 오전 9시 30분 본부 제1회의실에서 본주 박영철(朴榮喆) 총무, 사계(堤) 총무차장 및 경성 이승우 지부장, 제 부지부장……(판독불가)……멀리 동경보소관찰소로부터 파견된 보호사 등 다수가 참석해 개최하였다.

우선 박영철 총무로부터 아래와 같은 □□가 있었고, □□하여 미야모토 사법부장의 인사가 있는 후 타합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임석한 하촌(下村) 보안국장으로부터 조선방공협회의 결성 목적 및 □□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사상복구연맹과의 긴밀한 □□, □□에 대하여 전망을 말하였다. 본 타합회에서는 각 지부장, 부지부장으로부터 여러가지 의견의 개진이 있었는데 □□사상□□의 안전을 기하는 데 있어서 장 유□□□□□□하고 오후 □시 20분 폐회하였다.

〈출전: 「思想國防上 意義甚大 - 全鮮思想報國聯盟 第一回支部長打合會開催」, 『매일신보』 1938년 10월 9일〉

V. 대화속

1.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요람』(1941)

〈목차〉

-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의 설립
-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의 설립경과
- 광주대화숙 개관
 - 위치, 부지, 건물
 - 대화숙의 지도정신
 - 대화숙의 사업
 - 숙생의 생활, 수련
 - 대화숙의 정신활동
 - 대화숙의 보호활동
- 재단법인 광주대화숙 기부행위
- 재단법인 광주대화숙 기부행위 시행세칙
- (잡칙)재단법인 광주대화숙생 규정
- 임원 및 직원
- 광주대화숙 조직 일람
- 부록(광주대화숙 평면도)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의 설립

1938년 7월 전조선의 사상 전향자에 의해 결성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은 사상전 분야에서 많은 공적을 남기고 반도 사상계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렸습니다. 하지만 본 연맹의 시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기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결국 전조선 7개소의 지부는 본년 1월 31일에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4월 17일부터 각각 재단법인 대화숙으로서 사상보국운동 및 사상범 보호 사업을 실천목적으로 삼아 새롭게 발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래 사상보국연맹원은 사상전향자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탄생한 광주대화숙은 그 회원을 사상전향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누구라도 대화숙의 취지에 찬동하고 함께 협력하여 사상정화운동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시난(時難) 극복의 육탄적 용사의 연마육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화숙의 수양 목표는 어디까지나 행동을 통한 황민연성에 있습니다. 즉 실생활 중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정신을 기르고 국민적 정조(情操)의 함양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의 승고 유현(幽玄)한 국풍을 체득하고, 열렬히 불타는 황도실천의 실행자를 양성 훈육하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 성전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사상을 통일하고 폐하에게 귀일하여 받드는 강력한 국내체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두 일본정신의 단련도장인 대화숙에 의탁해야 합니다. 자신을 연마하여 가슴에 불타는 국민적 정령을 내세워 사상보국운동에 몸을 바치고, 황국의 영

원한 발전과 복지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각오입니다.

희망컨대 대화숙이 떠안은 사명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뜻을 함께 하는 우국의 지사가 모여 우리와 견고히 제휴하고, 사명의 관철을 위해 매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1941년 6월

재단법인 광주대화숙 회장 요다 가즈미(依田克己)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의 설립경과

1936년 12월에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시행된 이후, 보호관찰소 당국의 교화지도는 착착 그 실적을 거두었다. 과거에는 반국가적 사상에 빠져 그 실천운동에 휩쓸렸던 다수의 잘못된 사람들도 본 제도에 현현(顯現)된 광대무변(宏大無邊)한 정신에 감격한 결과, 번연(翻然)히 자신의 사상적 과오를 청산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본연성(本然性)으로 복귀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특히 지나사변 발발 이후, 이들 전향자의 열렬한 애국의 지정(至情)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상청산을 통해서만 만족하지 않는다. 나아가 철석같은 단결을 통해 사신허모(捨身皇謨)를 익찬하고자 꾀기하였고, 드디어 1938년 7월 24일 전조선의 전향자를 모두 하나로 만드는 커다란 애국단체가 생겨났다. 이것이 다른 아닌 현 대화숙의 전신인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이었다. 이 연맹은 경성에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7개소에 각각 지부를 두었으며, 지부에는 많은 지회를 결성하여 전면적으로 애국운동을 전개해왔다.

이에 우리 광주에서도 같은 해 8월 27일에 지부를 결성한 다음 관하에 20개 분회를 설치하였다. 지부와 분회는 항상 긴밀한 연락 아래 시국에 대응하여 일본정신의 양양, 내선일체의 강화, 반국가사상의 파쇄 격멸 기타 모든 애국적 총후 활동에 매진해왔다. 이처럼 당 지부의 활동은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한걸음 더 나아가 지부 내에 정신연마도장을 건설하여 지부 애국운동의 원천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1940년 1월 당시의 지부장 현준호(玄俊鎬)와 마츠모토(松本) 보호관찰소장은 이를 사회의 정의에 호소한 바, 한꺼번에 건설 자금을 모집하고 같은 해 8월 광주부 레이메이가오카(黎明ヶ丘)의 인접지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생활, 실천, 수양을 겸행할 수 있는 연마도장의 완성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 본래의 사명을 달성하고 운동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기구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드디어 금년 1월 31일 연맹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이 그 이름도 바꾸어 대화숙으로 다시 태어나 불석신명(不惜身命)의 열의로 약진적 활동을 출발하기에 이르렀다.

광주대화숙 개관

위치, 부지, 건물

1. 위치

광주부 동정(東町) 142번지 : (구 광주사범학교의 뒤편)(대화여학교 기숙사 후지카게료[藤影寮] 옆)

2. 부지

부지 평수 : 990평

3. 건물

1호 : 목조 단층건물 기와지붕 1동 건평 67평

집회장, 응접실, 도서실, 사무소, 합숙실 및 창고

2호 : 목조 단층건물 기와지붕 1동 건평 34.25평

(회원 숙사, 화장실, 목욕탕)

3호 : 목조 단층건물 기와지붕 1동 건평 23.3평

(숙장 사택)

4호 : 목조 단층건물 슬레이트지붕 1동 건평 5평

(창고)

5호 : 목조 단층건물 기와지붕 1동 건평 42평

(교실, 수산[授産]공장)

6호 : 목조 단층건물 기와지붕 1동 건평 4.5평

(화장실)

7호 : 목조 단층건물 기와지붕 1동 건평 2평

(복도)

위의 건평 합계 : 178.5평

공사비 총액 : 약 3만 원

대화숙의 지도정신

우수한 전향자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진격(眞擊)한 봉공을 고려할 때, 적정한 보호 교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통감하는 바이다. 우리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은 광주보호관찰소의 직접 지도 아래 모든 반(反)황도사상을 격멸하여 일본정신이 체득과 내선일체의 심화철저에 노력함으로써 일반사상의 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더불어 호남 일대의 사상관계자를 일본정신으로 통일시키고 일시동인에 보답함으로써 그 중대한 사명을 달성하는 것이 임무이다.

특히 사상관계자의 지도를 둘러싸고 보호관찰소는 과거의 반역아를 애무육성(愛撫育成)하여 광대무변(宏大無邊)한 정신을 체득시키고, 때로는 엄한 아버지로 때로는 자비로운 어머니로서 종적인 교화 지도를 실시했고, 대화숙은 형제자매로서 황적인 부조편달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집안을 이루는 데는 부

모와 더불어 형제자매의 결합을 통해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처럼, 전향자의 갱생도 이러한 종합적인 지도와 부조를 통해 처음으로 원만히 촉진되어 일본국민으로의 완전한 복귀가 달성되는 것이다.

대화숙의 사업

본회는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재단법인 광주대화숙 기부행위』 발췌)

제5조 본 재단법인은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황도정신 수련도장의 시설
2. 국어의 보급
3. 강습회, 강연회, 좌담회 등의 개초
4. 기관지 기타 출판물의 발행
5. 수산(授産)의 경영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숙생의 생활, 수련

대화숙 내에 기거하는 회원을 숙생으로 부르고, 모두 '수양은 생활과 실천에 있다'를 목표로 행동을 통해 황민도(皇民道)의 수련에 정진함과 더불어 각각의 자리에서 애국의 적성을 피력하고 있다.

1. 숙생 5훈
 - 1) 깊이 국체의 정화(精華)를 회득(會得)하고 황민도의 실천에 노력할 것
 - 2) 자치 자율의 정신에 의거하고 협동 일치하여 일에 임할 것
 - 3) 예의(禮儀), 질서를 존중하고 규율에 복종할 것
 - 4) 근로를 높이 여기고 책임을 중시하여 항상 실행적일 것
 - 5) 항상 대화의 정신으로 살고 친목 우정을 깊이 할 것
2. 하루 행사
 - 1) 신전(神前) 예배
 - 2) 조회
 - 3) 정오 묵도
 - 4) 기타 필요한 행사
3. 월 행사
 - 1) 수양회
 - 2) 강습회
 - 3) 차담회
 - 4) 기타 필요한 행사
4. 숙내 거주자

- 1) 보호사 1가족 5명
 - 2) 회원 3가족 7명
 - 3) 회원 독신자 7명
- 합계 19명

대화숙의 정신활동

대화숙의 활동을 대별하면 직접회원에 대한 정신적 지도 및 물적 보도(輔導)는 물론, 우수회원을 동원하여 시국인식의 보급, 내선일체의 강화 등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전개하여 일반 사상정화운동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활동이란 회원에 대한 정신지도 및 대외적 활동을 말한다.

1. 개별지도

- 1) 생활을 통한 지도
- 2) 면담을 통한 지도
- 3) 통신을 통한 지도
- 4) 감상문, 연구문 제작을 통한 지도
- 5) 독서 선택을 통한 지도
- 6) 출판물 배포를 통한 지도

2. 집단지도

- 1) 명사초빙 강연회
- 2) 명사초빙 수양회
- 3) 일본정신 강습회
- 4) 생활보도(輔導) 기타 각종 좌담회
- 5) 국민총력운동에 적극적 참가
- 6) 영화회
- 7) 근로봉사, 체위향상 하이킹

3. 국어강습회

내선일체는 먼저 국어의 보급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우리 대화숙에서는 국어를 습득하지 않은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반도부녀자에 대해 야간강습을 개최하고 있다. 물론 강사는 회원의 헌신적 봉사이고, 학용품 일체를 공급한다. 수업료도 징수하지 않는 대화숙의 독특한 사업이다.

1) 수강 시간

밤 7시 반 또는 8시부터 9시 반 또는 10시까지 2시간

2) 수강 장소 및 생도 수

광주 북정(北町) 유치원 내 : 60명

광주대화숙 내 : 60명

계 : 120명

3) 교사

회원 수명이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아래 교사로서 교편을 잡고 있다.

대화숙의 보호활동

말할 필요도 없이 정신방면에서의 지도와 함께 물질 방면에서의 보호활동이 갱생생활의 필수조건이다. 대화숙은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현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1. 수산(授産)활동

회원의 직업기술의 양성 및 대화숙의 경비 염출에 도움이 되고자 양재(洋裁)수산장을 경영하고 있다. 지도는 이 방면의 전문가인 야마다 순세키(山田順石) 회원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종업원 12명과 숙생의 가족, 야학생도 등의 도움을 받아 예의(銳意)사업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2. 농촌부업 연구장 설치

농촌회원의 부업장려를 위해 대화숙 내에 추용(椎茸)재배 및 양봉, 약초, 소재 재배장을 설치하였다.

3. 경제보호

회원이 갱생생활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그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용자를 실시한다.

4. 기타

숙박보호, 직업알선, 인사 기타 상담, 여비 금품의 지급과 대여, 생활부조, 취학알선, 의료보호 등을 한다.

재단법인 광주 대화숙 기부행위

제1조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광주지부장 현준호(玄俊鎬)는 제4조가 정한 목적을 위해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기부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2조 본 재단법인은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이라고 칭한다.

제3조 본 재단법인은 사무소를 전라남도 광주부 동정(東町) 142번지에 둔다.

제4조 본 재단법인은 모든 반(反)황도사상을 파쇄 격멸하여 황도정신의 진기(振起) 양양과 내선일체의 심화 철저를 도모함과 동시에 특히 사상사건 관계자를 교화 선도하여 보호하고 그들의 자주적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본 재단법인은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황도정신 수련도장의 시설
2. 국어의 보급
3. 강습회, 강연회, 좌담회 등의 개초
4. 기관지 기타 출판물의 가행
5. 수산(授産)의 경영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본 재단법인의 자산은 다음에 기재된 것으로 이루어진다.

1.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11조의 유지(維持)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
3. 앞으로 받을 기부금품
4. 각종 재산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5. 잡수입

제7조 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에 열거한 것으로 충당한다.

1. 앞 조 제1호의 재산 중 부동산 전부
2. 회장이 기본 재산으로 지정한 것
기본 재산은 원본(元本)을 소비할 수 없다. 단 이사회 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8조 본 재단법인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며 일상적인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현금은 우편저금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고 또는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제9조 본 재단법인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장려금,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생긴 과실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 본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끝난다.

제11조 본 재단법인에 다음 회원을 둔다.

1. 유지회원 : 경상비 유지를 위해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통상회원 : 본 재단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재단법인의 사업에 봉사 협력하는 자

제12조 본 재단법인에 다음 임원을 둔다. 단 필요할 때는 이사의 원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1. 회장(이사) : 1명
2. 이사 : 1명
3. 감사 : 1명
4. 고문 : 약간 명
5. 평의원 : 약간 명

제13조 회장인 이사는 광주보호관찰소장의 직에 있는 자가 말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4조 회장이 위촉한 이사, 감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도 있다.

제15조 회장은 본 재단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총리(總理)한다.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사고 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감사는 본 재단법인의 사무를 감사한다.

고문은 중요 사무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말한다.

평의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중요 사무를 심의한다.

제16조 본 재단법인에 다음 직원을 두고,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1. 주사 : 약간 명
2. 서기 : 약간 명

주사 및 서기는 상장(上長)의 지휘감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예산의 편성과 기본 재산의 지정 및 이동 기타 중요한 사무를 결의한다.

이사회 의사에 대해 가부간의 의견상 대립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8조 평의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평의회는 자산 모집에 관한 사항, 부동산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따라 이를 심의한다.

제19조 본 재단법인은 광주보호관찰소 관할구역 내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0조 본 기부행위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21조 본 기부행위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 광주 대화숙 기부행위 세칙

제1조 본 회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한다.

1. 회원 명부
2. 임직원 명부
3. 기본자산 대장
4. 기부 대장
5. 현금출납부
6. 물품 수불부(受拂簿)
7. 보호 명부
8. 왕복문서건 명부
9. 일지
10. 사령부(辭令簿)
11. 우편 우표 수불부
12. 물품 구입부
13. 기타 필요한 부책(簿冊)

제2조 본 회에 다음 직원을 둔다.

1. 교도주사
2. 서무회계주사
3. 서기

제3조 교도주사는 특히 회장이 지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1. 교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수산에 관한 사항

3. 기관지 기타 출판물 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도에 관한 사항

제4조 서무회계주사는 특히 회장이 지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무를 장리한다.

1. 회장인 기타 회인(會印)의 관수(管守)
2. 인사에 관한 사항
3. 통계 문서의 편찬 보관에 관한 사항
4. 정기 보고의 하달에 관한 사항
5. 금전 물품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서무회계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사 감사 평의원은 명예직이고, 주사 서기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한다.

제6조 서무회계주사는 매월 일정 한도에서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제7조 본 회의는 필요에 따라 지부 또는 연합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 1명
2. 부지부장 : 2명
3. 고문 : 약간 명
4. 평의원 : 약간 명
5. 주사 : 약간 명

제9조 지부장은 그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사고 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고문은 지부의 중요 사항에 대한 지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평의원은 사업 및 회계 제반사항을 평의한다.

주사는 지부의 상무를 장리한다.

제10조 고문은 관내 관민 유력자 중에서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평의원 및 주사는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1조 지부의 경리는 독립으로 하고, 지부 사업에 따른 수입 및 기부금 잡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본부에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지부장은 소관 구역 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분회에는 분회장을 두고 지부장이 이를 위촉하여 분회 사무를 장리한다.

제14조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사업에 봉사협력하려는 자로서 소정의 수속을 거친 자를 통상회원으로 한다. 단 사상범보호관찰법 소정의 대상자는 모두 본회원으로 한다.

제15조 통상회원의 회비는 연액 1원으로 한다.

제16조 통상회원으로서 본 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광주지부의 회원은 별도의 수속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제17조 본 회 사업익찬을 위해 연 5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유지(維持)회원으로 한다. 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광주지부의 찬조회원은 본 회 소정의 유지회원으로 간주한다.

제18조 본 회 회무의 시행에 관해 본 세칙 이외에 필요한 규정은 회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 본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잡칙)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생 규정

제1조 재단법인 대화숙의 회원으로서 본 숙 내에 기거하는 자를 숙생(塾生)으로 부르고, 본 규정에 복종하여야 한다.

대화숙 내에 기거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본 숙의 수산장(授産場)의 종업원은 숙생으로 간주한다.

제2조 숙생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다음 5훈을 존봉(尊奉)해야 한다.

1. 깊이 국체의 정화(精華)를 획득(會得)하고 황민도의 실천에 노력할 것
2. 자치 자율의 정신에 의거하고 협동 일치하여 일에 임할 것
3. 예의(禮儀), 질서를 존중하고 규율에 복종할 것
4. 근로를 높이 여기고 책임을 중시하여 항상 실행적일 것
5. 항상 대화의 정신으로 살고 친목 우정을 깊이 할 것

제3조 본 숙 내에 다음 직원을 둔다.

1. 숙장 : 1명
2. 부숙장 : 1명

제4조 숙장은 회장의 명령을 받아 숙 내의 총무를 장리하고 숙생을 감독 지도한다.

부숙장은 숙장 사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제5조 본 숙 내에서는 다음 행사를 실시한다.

1. 하루 행사
 - (1) 신전(神前) 예배
 - (2) 조회
 - (3) 정오 묵도
 - (4) 기타 필요한 행사
3. 월 행사
 - (1) 수양회
 - (2) 강습회
 - (3) 다화회(茶話會)
 - (4) 기타 필요한 행사

제6조 숙생은 돌아가며 당직의 임무를 담당한다(단 숙 외 거주자 제외).

당직자의 책임 시간은 조회부터 다음 날 조회까지로 한다.

제7조 당직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확실히 지킨다.

1. 화재 도난 예방을 위한 숙 내외의 순찰 및 문걸기
2. 전화, 신서(信書)의 수령 및 외래자와의 대응
3. 소등
4. 기상 시의 종치기
5. 숙의 일지(日誌) 기재
6. 제반행사의 준비 및 정돈
7. 기타 긴급한 사고발생에 대한 처치

제8조 본 숙의 폐문시간은 오후 11시로 한다.

숙 내 거주자로서 귀숙시간이 폐문시간을 넘을 경우는 미리 당직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숙생으로서 외박할 경우 및 외래자를 숙 내에 숙박시킬 경우는 미리 용건 이유 행선지 등을 밝히고 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본 규정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실시한다.

제11조 본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회장이 입숙을 거절해야 한다.

임원 및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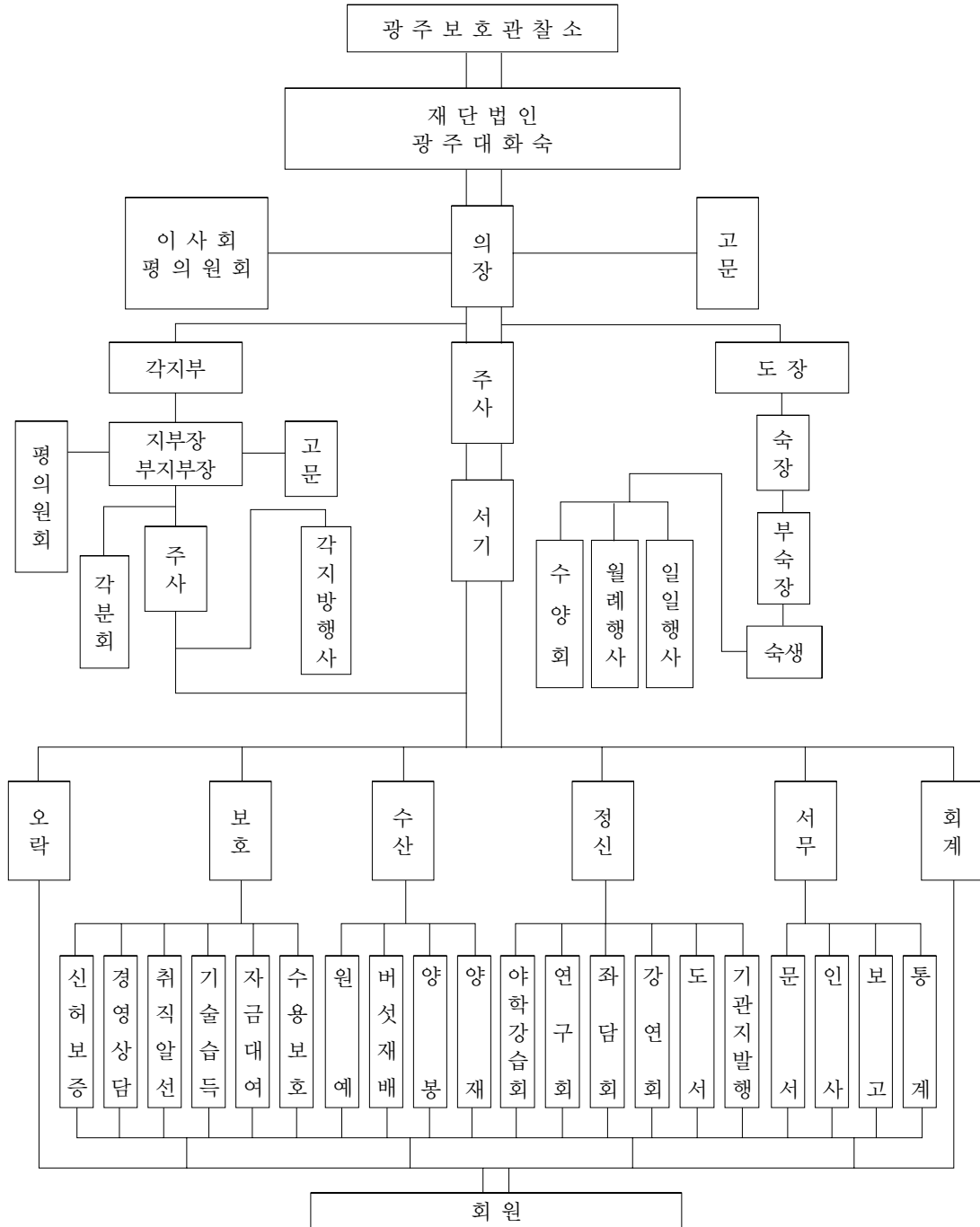
회장(이사)	광주보호관찰소장	요다 가즈미(依田克己)
이사	변호사, 부회의원	오하라(大原和植)
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부장	와타나베(渡邊彌美)
고문	전라남도 지사	무영헌수(武永憲樹) ⁷⁾
고문	전라북도 지사	이가원보(李家原甫) ⁸⁾
고문	광주지방법원장	야마시타 히데키(山下秀樹)
고문	광주지방법원 검사정	모토하시 고타로(元橋曉太郎)
고문	전주지방법원장	아라마키 마사유키(荒卷昌之)
고문	전주지방법원 검사정	사케미(酒見緞次)
고문	광주 병사부장	가와무라 우이치(川村宇一)
고문	중추원 참의	현준호(玄俊鎬)
평의원	변호사, 부회의원	이와바시 아사이치(岩橋朝一)
평의원	변호사	이덕우(李德宇)
평의원	전남신보 주간	시카노 히데조(鹿野秀三)
평의원	전라남도 경찰부장	다케우치 슌페이(竹内俊平)

7) 엄창섭(嚴昌燮)의 창씨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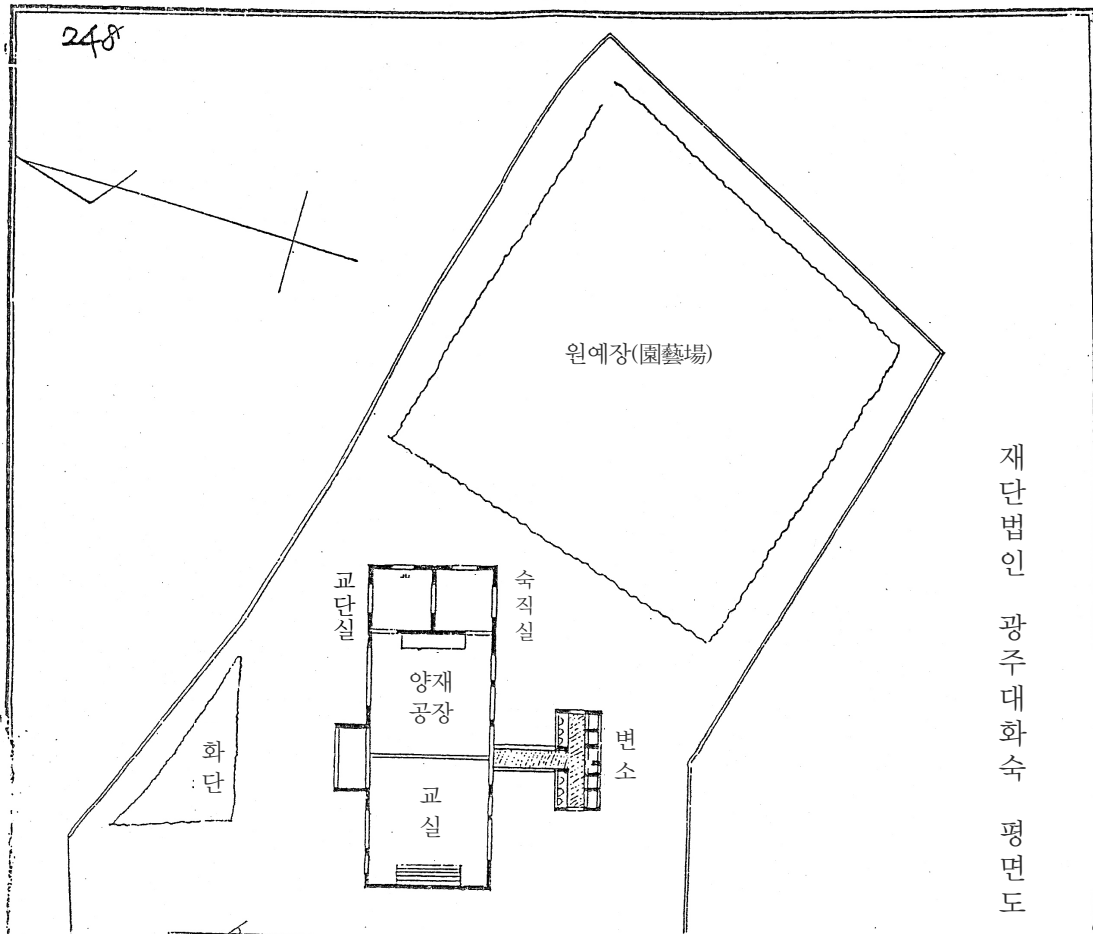
8) 이원보(李源甫)의 창씨명.

평의원	광주세무감독국장	무로타 도라오(室田寅雄)
평의원	광주공립동중학교 교장	우류시마 기로쿠(宇留島喜六)
평의원	부회의원	우치야마 시게오(内山重夫)
평의원	전남중방 공장장	우시지마 류이치(牛島隆一)
평의원	광주부윤	치쿠세 미타로(築瀬末太郎)
평의원	광주형무소장	마츠히라 가즈오(松平和夫)
평의원	영농	고광표(高光表)
평의원	광주공립서중학교장	에노모토 마사즈기(榎本正次)
평의원	변호사, 도회의원	사카구치 기스케(坂口喜助)
평의원	조선식산은행 광주지점장	사가라 감로쿠(相良甘六)
평의원	광주상공회의소 회두	아이바 요사쿠(相馬與作)
평의원	영농	최선진(崔善鎭)
평의원	호남은행전무, 도회부의장	김신석(金信錫)
평의원	전라남도 광주병원장	초우 라이스케(調來助)
평의원	영농	시모야나 후사지(下山爲次)
평의원	광주경찰서장	시토미 벤(師富勉)
주사	광주보호관찰소 보호사	후지하라 게이쥬(富士原景樹)
주사	광주보호관찰소 주임서기	미무라 마사조(御村正藏)
서기		마모토 갓페이(眞本勝平)
서기		니시야마 사쿠조(西山作三)

재단법인 광주대화숙 조직일람



광주대화숙 평면도⁹⁾



〈출전: 『財團法人 光州大和塾要覽』, 1941년 6월(『일제파시즘기한국사회자료집』 3, 선인, 2005, 523~557쪽)〉

9) 평면도 일부 자료소실.

2. 오키나카(沖中守夫), 신의주대화숙 방문기

영흥 감화원 방문을 마친 저는, 신의주의 야마토주쿠를 방문하기 위하여 평원선을 이용하려고 원산을 출발했다. 평원선은 아주 최근에 전선의 개통을 본 것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유형무형으로 연선(沿線)의 주민에게 커다란 편리를 주고 있는 것일 게다.

신의주에는 한 밤중인 3시 넘어서 도착했다. 숙소에서 눈을 붙일 사이도 없이, 8시에는 서마전동(西麻田洞)에 있는 야마토주쿠로 차로 날라갔다. 역을 왼쪽으로 보며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좌우를 보면, 오른 편에 그것 같은 것이 보였다. 정문을 들어가서 오른 편에 신사(神祠)가 모셔져 있는 것이 먼저 눈에 띈다. 공교롭게도 다케무라(竹村) 보호사(保護司)는 운동장에서 생도들에게 체조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으나, 대신하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를 보호사 주택에 초빙했다.

야마토주쿠의 설립취지나, 그 활동상황에 관해서는 본지 1941년 10월호에 현 보호과속 다케하라(高原克己) 씨로부터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음으로, 여기에서는 간단히 그 내용을 말하기로 한다. 즉 야마토주쿠는 보호관찰소장을 회장에, 보호관찰대상자나 야마토주쿠의 취지에 찬동하며, 그 사업에 봉사와 협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황도정신의 양양과 내선일체의 심화와 철저를 기하며, 아울러 사상사건 관계자를 선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조직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업으로는, 사상전력자를 동원해서 주로 국어보급과 수산(授産) 경영에 뜻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을 열의에 찬 어조로 다케무라(竹村) 보호사는 이야기했다. 일에 대해서 적지 않는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현재 숙생(塾生)을 11가족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숙생은 지난날은 사상사건에 연루된 자로서, 입숙 당초는 꽤나 강건한 자 뿐이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장 우두머리 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전향시켜서 순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중 한 사람을 여기에 소개 해 보기로 한다.

지금은 창씨하고 있으나, 가령 T군이라고 해 둔다. 중도 퇴학자로서 입숙한 처음부터 정말로 다케무라 보호사와도 전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약 2주 쯤 말없는 행동이 계속됐다. 그 사이에 보호사는 T군과 함께 목욕을 하거나, 식사를 함께 하거나 해서 T군을 자신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도록 힘을 썼다. 그리하여 대로는 새벽까지 보호사 댁에서 마주 앉은 적도 있었다. 보호사의 그러한 인정미가 풍부한 대우는 T군을 하여금 드디어 인간 깊숙이 감추어 진 금선(琴線)을 울리게 된 것이었다. 혼과 혼이 부딪힌 것이다. 거기에는 조선인이라거나 내지인이라는 웅졸한 민족적인 관념은 없었다. 있는 것은 빨가벗은 일개의 인간 대 인간의 존재일 뿐이었다.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내선일체는 이미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표현으로는 다 말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더 속 깊은 것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전에 읽은 키쿠치 칸(菊地寛) 씨 작품인 『은수(恩讐)의 저쪽에』를 생각나게 한다. 양 쪽의 내용은 물론 크게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혼과 혼이 서로 부딪히는 그 극치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T군은 완전히 전향하여 옛날의 고집스럽던 사상을 깨끗이 씻어 내고 말았다. 그리하여 지금은 주쿠의 교단에 서서 아동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서 주쿠의 교육시설에 대해서 말해 보기로 한다. 야마토주쿠의 실천 제1 요강을 볼 때, 그것은

내신일체의 강화와 철저에 두며, 그것을 위해서는 ‘국어보급’이 선결문제가 된다고 하여, 이것에는 크게 진력하기로 하고 있다. 즉 주쿠에 20평의 교육장 2방을 설치하고, 밤낮 2회에 걸쳐서 국어강습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2개년에 끝마치기로 되어 있으나, 이렇게 짧은 기간에 2권을 전부 마치는 것이다. 2개년 간에 6개년의 실력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국어 외에는 또 산술, 수공, 창가, 유희 등도 가르치고 있다. 수업료는 일체 안 받고 있으며 또 학용품은 모두 지급하거나 혹은 대여하거나 하고 있다. 대체로 국민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중에는 야마토주쿠에서 2개년의 과정을 마치고, 국민학교 5학년에 검정 편입된 자도 있다. 이러할 때의 부모의 기뻐하는 모양은 대단했다고 한다.

낮과 밤을 합쳐서 아동은 66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되고 있다. 교사는 숙생(塾生)으로 무보수인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단순히 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국어에 담긴 일본정신을 쏟아 붓는 의기로 교단에 서 있다. 저는 선생을 한 경험이 없으므로 그 기분은 모른다. 일단 교단에 서서 때 묻지 않는 소년, 소녀를 지도하는 입장이 된다면 누구든지 그들의 지식 향상을 바랄 것이다. 날로 향상해 가는 소년 소녀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크게 희열을 느낄 것이다. 숙생(塾生)이 된 자는 맹자의 소위 삼락(三樂)의 하나를 경험하고, 확실히 자신을 반성해 볼 것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 나쁜 사상을 주입한다는 것은 완전히 기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위에 그들은 교단에 섬으로서 자기 자신의 황민화에 한 층 정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다케무라 보호사의 안내를 받아서, 수업참관을 했다. 첫째 방에서는 마침 산술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교실에서는 무엇인가의 창가를 부르고 있었던 것 같다. 아동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귀가 귀머거리가 되는 듯 했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 것이다. 둘째 방은 T군의 수업이었다. 저학년인 만큼 수를 세는 방식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 대체로 여기 아동의 기운 찬 데는 놀랐다. 꽤나 생생하게 살아서 기분이 좋았다.

저는 또 여생도의 무용을 보았다. 축음기의 리듬에 맞추어서 작은 깃발을 양 손에 잡고 ‘애마행진곡’, ‘세 나라 국기를 흔들며’, ‘애국행진곡’, ‘토나리구미(隣組 : 애국반)’ 등을 꽤나 부드럽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방면에 대한 안목은 그다지 시원찮다. 그러나 깨끗한 의상을 하고 어딘가의 본 무대에서 실제 연출을 한다면, 한 층 눈을 끌 것이라고 감탄했을 정도였으니까, 독자들은 대강 상상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뜻밖에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이야기 방향을 바꾸어서, 숙생(塾生)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저는 깊숙이 들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론투쟁은 전연 하지 않는다. ‘행(行)’ 오로지 하나 뿐이다. 이론투쟁은 어디까지나 이론투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쪽이 상대방을 설득했다고 해도, 거기에는 무엇인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남을 것이다. 요는 상대방을 황국신민화 하면 되는 것이다. 조선동포가 공산주의나 혹은 민족주의적 사상에 치달린 주된 원인은 감정에 촉발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감정에서 출발한 자를 이론투쟁에 의하여 전향시키고자 해도 그것은 무리한 주문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情)’의 생활부터 출발하면서, 일본정신을 파악하는 것을 모토로 삼는 것이다. 11가족의 숙생은 다케무라 보호사의 집과 이웃하는 연립주택에 기거(起居)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근로애호의 정신을 심는 것이다. 때

로는 변소청소까지 시킨다. 위에 서는 사람의 명령에는 절대로 복종하도록 훈련시킨다. 비판은 전연 평가 받지 못한다. 어딘가 군대식에 닮은 데가 있다. 그러면서도 명령은 잔소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다. 보호사에게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야마토주쿠의 중요사업인 하나인 수산(授産)산업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이것은 자금 2만 엔 □□□□□□□□ 제조 판매 사업으로 공장은 교실에 인접하고 있고 숙생의 생활 자원은 전부 이것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는 신의주영림서의 호의에 의하여 불하를 받고 있다. 사업개시로부터 불과 1년 남짓에 1만 엔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멋진 성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주문은 계속해서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숙생 각 가족 한 집당 월수 평균은 90엔으로부터 백 엔에 달하며, 경제생활은 대단히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마르크스의 소위 유물사관적인 인생관을 신봉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숙생 여러분도, 산업부의 경영실체를 스스로 관장하기에 이르렀고, 과연 현재 어떠한 경제이론을 파악하고 있을 것인가. “의식이 충분한 뒤 예절을 안다”는 이것은 인정(人情)과 숙생들의 사상순화에 야마토주쿠 산업부의 시설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시설은 야마토주쿠의 특색인 동시에 또 커다란 강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자신의 경영에 의하여 이익을 올리고, 그 이익에 의하여 가난한 조선동포를 교육한다. 거기에는 자본주의적인 조작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서로의 물질적인 것에도 정신적인 것에도 그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성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도 감격하지 않는 숙생이 있다면 어딘가 잘 못된 데가 있는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다케무라 보호사를 위해서는 목숨을 던지겠다고 하는데 까지 숙생은 생각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짓이 없는 심정일 것이다.

또 그 보호사부인은 숙생의 주부들에게 작용을 하며, 주로 부업경영 지도를 맡고 있다. 가계부의 기입은 물론, 그 외에도 자세한 가정경제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교도하며, 소위 “집안을 다스린다”의 근본관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요는 신의주 야마토주쿠는 말하자면 대 가족주의 생활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내가 방문한 당일은 마침 타이쇼호우타이비(大詔奉戴日)였기 때문에, 신의주 보호관찰소장 다나카(田中誠一) 씨가 내숙(來塾)하여, 대조봉대식이 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신사(神祠)를 앞에 하고 “낮 시간 생도”는 전부 정렬하여, 전중 소장의 조서(詔書)봉독(奉讀)과 훈시가 있어서, 한 사람의 생도대표가 소장 앞에 나아가서 황국신민의 서사를 선창(先唱)한다.

몸집은 대단히 작으나, 목에 힘줄을 세우며 커다란 목소리를 짜 내는 것이었다. 병아리가 어미닭 흉내를 내는 것 같다. 식이 끝난 후 “기운 찬 아이입니다”라고 소장이 가르쳐 준다.

“오늘 아침 3시 넘어서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제가 말하니, 그것 참 아깝게 되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숙생들의 군사교련이 있었으나, 그것을 봐 주셨더라면 하고 말한다. 듣자하니 다나카 소장은 어젯저녁 야마토주쿠에 숙박을 하면서 군사교련에 참가하고, 오늘은 낮과 밤 두 번의 봉대식(奉戴式)에 일부러 내숙(來塾)하여 거식에 참가할 모양이다. 참으로 분망하신 모양이다. 하지만 주쿠(塾)일에 대단히 흥미를 갖고 있는 같아서 무척 쾌활하다. 소장이 이처럼 열심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도 노력하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쿠의 성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용암포에 있는 가정(家政) 주쿠의 입숙 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한다. 저도 함께 하기로 했다.

다케무라 보호사의 후의(厚誼)에 보답하기 위하여 숙사(塾舍)에서 하루 밤을 잤다. 다음날 아침은 6시 넘어서 일어나, 숙생 전 가족과 함께 아침 영기(靈氣)를 온몸에 받으며 궁성요배를 한다. 요배 후 T군과 또 한 사람의 숙생이 어제 있었던 일을 군대식으로 커다랗고 절도가 있는 소리로 일일이 보호사에게 보고를 한다.

끝나고 라디오 체조인 것이다. 주쿠의 하루 생활은 여기부터 활발하게 시작한다. 이미 공장에는 군데군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얼핏 보통이 넘는 고생을 겪어온 이 사상보호사업의 반면에는, 전향시키게 되면 유능한 인사를 만들 수 있다는, 커다란 환희와 위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일반인은 야마토주쿠의 사업을 이해하고,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원조를 주고 있는 것을 알며 그 앞길의 다행함을 축원하는 것이다.

또한 돌아온 후에 경성 야마토주쿠를 참관했으나, 편집사정으로, 이달 호에 신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齋賀 보호사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야마토(大和) 가정주쿠(家政塾)

야마토주쿠의 용암포지부의 사업이 되고 있는 야마토 가정주쿠 참관을 위하여 저는 보호사 부부에게 작별을 하고 신의주역으로 서둘렀다. 역에서 다나카(田中) 소장과 森 관찰소 서기의 두 명과 만나서 용암포 행에 탔다. 다나카 소장으로부터 평북도회의원과 축탁보호사라는 직함을 가지는 황원관하(黃原觀河) 씨를 소개 받았다. 그는 용암포에 살고 있으나 일부러 관찰소장을 마중 나왔다든가. 야마토주쿠의 사업에는 대단한 노력을 하는 분으로 특이 가정주쿠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성원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

차 안에서는 꽤 많이 세일러 복 모습의 가정주쿠생들이 승차하고 있다. 다나카 소장은 그들 처녀들과 유쾌하게 이야기 하거나, 여러 가지 주의를 시키고 있다. 소장에게는 주쿠생들이 무척 귀여운 것이겠지.

약 1시간 만에 용암포역에 내려서, 건기를 20여 분만에 가정주쿠의 문턱을 넘었다. 그 주쿠는 건평 약 50평, 대지 4백의 순 일본식 건물을 황원관하(黃原觀河) 씨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를 받으며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안정된 느낌을 주는 건물이나 꽤 낡은 물건 같다. 아무튼 적당한 곳에 신축은 예정되고 있다.

우리는 응접실로 안내 받으며, 숙생으로부터는 오가사와라(小笠原)식인가 무엇인가의 식으로 차가 나왔다. 숙생은 국민학교 졸업의 반도여자(반도여자)로 작년 7월 1일에 45명을 입속시키고 있으나, 오늘 또 40여 명을 입속시키기로 되어 있다. 수업연한은 1년이지만, 졸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연구과에 남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전임강사로서는 여학교교사의 자격이 있는 양가의 내지인 따님들 4명이 이것을 맡으며, 일본부도(婦道), 국어 예의, 재봉, 요리, 체조, 생화 및 차, 서도, 육아위생, 음악 등 여러 과목을 매주 31시간 가르치고 있다. 또한 관찰소 직원, 축탁보호사 분들도, 수업 일부를 맡고 있다.

과연 숙생의 손에 의한 점심을 대접받았으나, 상차림, 급식을 하는 방법 등, 완전히 일본가정 그대로여서, 손님인 우리 쪽이 오히려 예의가 없을 정도였다.

오후 1시 반부터 거리 건너의 용암포 경찰서의 무도장(武道場)에서 신입생의 입숙식이 거행되었다. 부형들의 얼굴도 보인다. 황원(黃原)도회의원의 축사 중에서, 기거(起居)동작이 모두 순 일본인 적이 되어 달라고 말하는 언저리가 가정주쿠의 본질을 발휘하고 하고 있다는데 여운(餘蘊)이 없다. 생도수가 적은 탓인지 어딘가 따뜻한 정이 있어 보이는 입숙식이었다.

야마토 가정주쿠의 방문으로, 저는 바쁜 일정은 끝마친 샘이나 다음으로 결론으로서 가정 주쿠에 대한 두세 가지 감상을 써보고자 한다.

결론

신의주 야마토주쿠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말한 대로 대체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그 사업의 하나인 야마토 가정주쿠의 개설은, 가장 뜻이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내선일체 심화운동도 전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부인들의 이해가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 않는다. 특히 장래 가정 사람이 될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 커다란 의의를 찾아낼 수 있다. 수업과목 가운데서, 일본 부도(婦道)에 관해서 2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타 일본인적인 교양을 체득하기 위한 여러 과목이, 고등여학교의 그것보다도 많은 시간이 할당되고 있다. 와 동시에 정서의 함양에 뜻을 기우리고 있는 것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또 '예법'의 4시간에 의해서 일본인적인 기품이 높다거나, 일본적인 아름다운 감념(感念)을 심어 놓고자 하고 있다.

원래 예의라거나 매너라거나, 인간이 아름다움을 요구하고, 조화에 동경하는 심리적인 작용이, 평소의 생활에 나타나서, 이것이 인간문화의 진전에 따라서 점차로 조직되어 간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예의나 매너의 취지에 따라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조화이며, 우리 생활을 하여금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또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예법의 요체는 화(和)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이 잘 조화하고, 인생을 원활하게 하며 남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안목(眼目)일 것이다. 따라서 조선 여성이 일본인이 완전히 되기 위한 전제로서는 예의 매너의 습득에 의하여 일본적인 아름다움의 극치를 마음 속 깊이 맛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감득(感得)함으로서 거기에는 이미 내선인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 주쿠는 이러한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매너에는 말할 것도 없이 형식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방면과의 두 가지가 있으나, 가정 주쿠에서는 먼저 형식적인 요소로부터 들어가고 있다. 예의 매너의 중심은 정신적인 방면이기 때문에, 이쪽 방면에 대하여 관계방면의 따뜻한 배려도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기의 숙생을 내지인의 양가의 가정에 약 1개월간 매너 견습이나, 도움이로 보냈다고 하나, 각 가정으로부터 대단히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가정주쿠는 지금으로서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창설초창기이기 때문에 역사도 전통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장차 우리 조선에서 반도여성의 황국신민화운동에 상당한 역할을 연출 할 것임에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차차로 영어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함과 동시에, 옛날부터 주쿠에는 주쿠 풍이 있어서, 가정주쿠의 주쿠 풍을 흠모하며 반도처녀들이 수많은 참가하는 날이 가까울 것을 빌어마

지 않는다. 바라건대 바보 같은 사람의 꿈으로 끝나지 않기 바란다.

〈출전: 沖中守夫, 『新義州大和塾訪問記』, 『朝鮮』 第325號, 1942년 6월, 56~66쪽〉

3. 보호전선 적성의 화(華) 대화숙

이번 대동아전쟁이 발발하자 각지의 대화숙 회원의 애국열은 더욱 양양되어 서전(緒戰)에서의 황군의 커다란 전과(戰果)와 연이은 첩보(捷報)에 깊이 감격하여 미약하나마 나라를 위한다면 헌금을 내는 자가 줄을 잇고 있다.

■ 경성대화숙

12월 14일 경성보호관찰소 강당에 회원 220여 명이 모여 선전포고에 관한 조서(詔書)의 봉독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원은 국방헌금을 하였는데, 식이 끝난 다음 모인 금액은 355원에 달했다. 이날 결석하여 다음에 이 사실을 전해들은 회원은 소액환 혹은 전보환으로 송금하고, 모금액은 같은 달 24일까지 함께 814원 66전에 달했다. 회원 장덕수(張德秀) 외 2명은 동 숙을 대표하여 경성 재군 해군무관을 방문하여 헌금수속을 마쳤다.

인천의 회원 43명은 12월 8일부터 1개월간 이른 아침 인천신사를 참배하고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있다.

■ 함흥대화숙

12월 8일 오후 6시 반부터 회원 35명 및 동 숙이 경영하는 국어강습회 생도 250여 명은 함흥신사를 참배하고 전첩(戰捷)을 기원하였다. 이어서 함흥보호관찰소에서 아오야나가(靑柳) 회장으로 부터 비상시국 돌파에 관한 피 끓는 훈시가 있자, 모인 회원은 모두 깊이 감격하여 철석과 같은 충후봉공을 다짐하였다. 또 일동의 제의에 따라 국방헌금으로서 그 자리에서 함께 49원 61전을 각출하였고, 회원 수생백로(水生百路)는 별도로 금 1천원을 헌금하여 각각 보호관찰소장을 통해 국방헌금을 냈다.

〈단천지부〉

12월 13일 밤, 단천읍내 촉탁보호사 니시하라 토시오(西原敏雄) 집에 회원 30여 명이 모여 시국에 즈음한 회원의 마음가짐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석상에서 김성용(金聖備)은 우리 대화숙 회원이 비행기제작기금을 헌납함으로써 우리의 애국지정과 감사하는 조그마한 뜻을 피력하고 싶다고 제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감격리에 금 800여 원을 각출하여 함흥보호관찰소장을 통해 헌납하였다.

■ 평양대화숙

12월 14일 회원 50여 명이 모여 평양신사 대전에 전첩기원제를 집행하고, 동 숙 강당에서 선전포고에

관한 조서 봉독식을 거행한 다음, 이어서 회원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모두 불같은 결전보국의 결의를 피력하면서 회원은 매월 금 1원 이상의 국채를 구입할 것, 회원은 모두 응분의 국방헌금을 낼 것 등을 결의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591원의 국방헌금을 신청하였다.

또 동 속에서는 시국인식의 철저 및 필승신념의 양양을 도모하기 위해 1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안남도 진남포, 강서, 중화, 평원, 안주, 개천, 순천, 성천, 양덕 등 각 부군에서 각지 국민총력부군연맹의 후원 아래 대화숙 회원의 ‘멸사봉공’, ‘미영의 위선을 폭로한다’, ‘내외의 적성(敵性)을 격멸하라’, ‘동아인의 사명’, ‘결전체제하의 반도’, ‘신동아를 맞는 우리의 사명’ 등의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여 청중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 신의주대화숙

12월 15일 국경에 접한 강계와 같은 달 21일 및 26일 양일간 신의주에서 각각 대화숙 회원의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여 조선민중의 충후보국의 결의를 다졌다.

■ 대구대화숙

회원 대방한상(大方漢相)은 12월 8일 대구보호관찰소에 출두하여 “오늘의 개전에 즈음하여 나 또한 황국신민으로서 커다란 감분(感奮)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충후국민으로서의 책무의 일단을 다하기 위해 저의 저금을 가지고 왔으니 국방헌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하며 금 100원을 내놓았다.

회원 천상엄(川上嚴)은 12월 13일 대구보호관찰소에 출두하여 “이번 대(對)미영개전은 국민으로서 감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소하지만 저금을 해군에 헌납하고 싶습니다”고 말하며 20원을 내놓았다.

회원 정촌명출(井村明茁)은 12월 11일 직장에서 동료료를 권유하여 국방헌금 300원을 모아 헌금하였다.

회원 약산동주(若山東洲)는 대(對)미영전 개시 이후 황군의 연이은 쾌첩(快捷)에 비유할 수 없는 황국신민이라는 것에 깊이 감격하여 12월 20일 매상금 가운데 금 20원을 헌금하였다. 회원 장수헌소(長水憲昭, 김천)는 개전 이후의 커다란 전과(戰果) 대한 국민적 감격의 표현으로서 김천지부 회원에게 국방헌금을 제의하고 23명이 금 20원을 헌금하였다. 회원 풍원도평(豊原道平) 및 목촌□(木村□, 김천)은 선전포고에 관한 조서에 나타난 폐하의 성려(聖慮)와 개전 이후 황국의 전과에 깊이 감격하고, 더욱이 보호관찰소장의 훈시가 심신을 철저히 만들었다며 12월 22일 김천경찰서에 출두하여 앞으로 생활양식을 철저히 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결의하면서 미소하다며 각각 금 100원씩을 해군부에 헌금하였다.

회원 전한우(田翰宇) 외 4명(영주지부)은 “우리는 과거에 사려가 불충분하여 반국가적 행동에 나섰지만, 지금은 과거를 모두 청산하여 갱생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인에 비해 두 세배의 애국심을 피력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현재는 빈약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이라도 헌금하고 싶다”며 함께 50원을 사와다(澤田) 촉탁보호사를 통해 헌금하였다.

■ 광주대화숙

이번 대동아전쟁이 발발하자 광주부 내 회원은 비상소집하여 선전포고에 관한 조서의 봉독식을 거

행하였다. 요다(依田) 회장은 회원의 마음가짐에 대해 혼시했는데, 회원은 모두 이번 정전(征戰)에 감격하여 국방헌금을 내놓았다. 12월 14일 현재 20여 명 92원에 달했고, 왕종진원(王宗辰遠)은 청동제 세면기 1개, 유기식기 6개를 헌납하였다.

이밖에도 이들의 적성은 거리와 부락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대동아전쟁은 그들에게 황국신민으로서의 감격과 긍지를 더욱 깊게 하였다.

〈출전: 『保護戰線 赤誠の華 大和塾』, 『朝鮮司法保護』 第2卷 第2號, 1942년 2월, 45~47쪽〉

4. 다카하라(高原克己), 대화숙의 설립과 그 활동

다카하라(高原克己)

구 질서붕괴의 세계적인 대 변화 중에서, 일본은 이번 세기의 신질서 대동아공영권의 학립을 지향하여 나라를 통틀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국가의 모든 부문 모든 기관은 국방국가 체제에 재편성되어, 이윤의 추구나 자아공리(自我功利)의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적 낡은 껍데기의 관념은 철저히 규정(規定)되어서, 3천년의 전통에 살아 온 일본정신은 끊어지지 않게 1억 국민의 혈관을 치며, 신세계의 여 명(黎明)을 부르고 1억이 한 마음의 힘찬 큰 걸음은 착실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성전(聖戰)은 이미 4년, 우리가 체험한 고난이 앞길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와 곤란은 모두 생겨나려고 하는 고민이며, 이것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미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로 내선간에는 추호의 간극도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서 내선인에게 그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대륙의 전진병참기지라는 중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반도 2천 4백 만의 민중은 이제야 말로 동아의 맹주일본의 총량한 신민으로서, 그 적성(赤誠)을 피력(披瀝)하며 공존공영의 신 질서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인 것이다.



야마토주쿠는 그러한 국민총력의 시국에 눈 뜨고, 국민적인 자각을 되찾은 반도의 이전 반 국가사상 회포(懷抱)자가 전향하여 사상보국, 내선일체의 실천단체이며, 한편으로 반도의 모든 사상사건관계자를 보호하며 교화해서 국가총력 발휘에 한 점의 장애가 없음을 기약하고, 더욱 나아가서 신도(臣道)실천의 국민전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전선의 전향자의 애국단체로서 반도 사상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시국대응 전선사상보국연맹의 발전적인 개혁조직에 의하여 새로운 발족을 한 것이었다.

즉 시국대응 전선사상보국연맹은, 사상범 보호관찰제도 실시이래, 선내의 많은 사상사범자의 선도와 보호를 맡아 온 보호관찰소 직원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제도 운영의 획기적인 성과로서 1938년 7월 전선 사상전향자를 망라하여 한 덩어리로 결성시킨 것이며, 결성 이래 각 보호관찰소의 지도에 의하여 모든 후방 애국운동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연맹원 역시 적극적으로 황국신민으로서의 적성(赤誠)을 피력하여 많은 미담과 가화(佳話)를 자아내어서 그 사상은 점점 순화되어

가고, 사회의 그 동맹에 대한 이해와 원조도 역시 적지 않았으며, 1940년 말에는 7지부 83분회 3천 3백여 명의 연맹원을 감싸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또 그 기구에 근본적인 개혁을 더하며 명실 공히 보호관찰소의 외곽단체로서, 사상보국운동의 합리화와 사상범 보호사업의 발전을 기하고, 또 내선일체의 철저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당국방침에 순응해서, 사상보국연맹은 금년 1월에 발전적인 해소를 하고 종래의 경성,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 각 지부는 각각 독립된 재단법인 야마토주쿠(大和塾)로서 반도 사상계에 새로운 발족을 이룬 것이다.

야마토주쿠는 보호관찰소장을 회장에, 보호관찰대상자 및 야마토주쿠의 취지에 찬동하고 그 사업에 봉사와 협력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것으로, 황도정신의 진작과 양양과 내선일체의 심화를 시키고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사상사건관계자를 선도하며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황도정신 수련회장의 시설, 국어보급, 강습회, 강연회, 좌담회 등의 개최, 기관지 기타 출판물의 간행, 수산(授産) 경영 등을 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 야마토주쿠가 모두가 이미 수련도장의 시설이 이루어지고, 기관지를 간행하여 국어강습회를 개최하고 수산장(授産場)의 경영을 하며, 그와 같이 야마토주쿠에 의한 황국신민의 연성과 교화는 끊임없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며, 그 열렬하고 진지한 활동은 사회 각 방면에 커다란 감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각 야마토주쿠의 활동 중에서 주요한 것을 예로 들어 보겠다.

1) 국어강습회

지금 전선의 각 야마토주쿠에서는 내선일체의 심화와 철저를 할 방책으로서의 국어강습회를 각지에 개설하고 있다. 강사는 황국신민으로서 훌륭한 탄생을 이룬 야마토주쿠의 회원이며, 강습생은 모두 취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불행한 자제나 혹은 국어 미 해득의 가정부인인 것이다. 본 강습회에서는 국어 외에 산술, 수공(手工), 창가, 유희 등도 가르치고 있으나, 본 강습회는 단순히 국어 등의 습득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정신의 도야와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며, 황국신민으로서의 연성과 교화를 첫째 의의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야마토주쿠는 그러한 강습의 대상과 목적을 감안하여 일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학용품은 모두 지급 또는 대여하고 있는 것이다.

야마토주쿠의 회원의 손에 의한 국어강습에 선鞭(先鞭)을 든 것은, 신의주 야마토주쿠(당시 사상보국연맹 신의주지부)인 것이다. 저 사회의 이목을 용동(聳動)시킨 백백교(白白敎)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신의주 보호관찰소장 나가사키(長崎) 씨(현 경성보호관찰소장)는 사교(邪敎)의 함정에 빠져, 그 마수에 쓰러진 많은 사람들의 무학(無學)이나 문맹이 초래한 이러한 불행에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아직 교화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을 그러한 불행으로부터 구함과 동시에, 반도통치의 근본이념인 내선일체의 철저한 구현을 도모하고, 동시에 사상전향자를 하여금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상전도에 도움이 되는 일석 삼조의 국어강습에 착안하여, 1939년 3월 당시의 사상보국연맹 신의주 지부원의 손에 의하여, 먼저 이웃하는 부녀자들에게 강습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강습을 맡은 연맹원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반도인 자제의 열렬한 국어 열은 얼마 되지 않아서 본 강습회의 비상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설비내용의 개선과 충실과 함께 생각지도 않게 국경도시 신의주의 한 위채(偉彩)가 되어, 이윽고 전선 각지에 요원의 불길처럼 발전을 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야 전선의 각 야마토주쿠 주축의

국어강습 및 강습개소는 다음과 같다.

경성 야마토주쿠	12개소	2,094명
합흥 야마토주쿠	2개소	140명
청진 야마토주쿠	1개소	160명
평양 야마토주쿠	2개소	254명
신의주 야마토주쿠	7개소	1,172명
대구 야마토주쿠	1개소	100명
광주 야마토주쿠	3개소	250명
계	28개소	4,170명

1941년 8월 20일 현재 본 강습회를 수료한 자 역시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 국어강습회에서는 어떤 강습이 이루어지며 교화가 실시되고 있는가.

경성역을 출발한 대륙행 국제열차가 끝이어서 잠기는 터널의 오른 쪽에 무성한 여름 나무속에 양옥의 뾰족한 끝을 엿보이게 하는 자그마한 언덕이 있다. 도시 끝의 흐트러진 기슭으로부터 나무들 사이에 개척된 길을 크게 고부라져서 다 올라가면, 잿빛의 굉장한 4층집의 양옥에 다다른다. 전선 7대 야마토주쿠의 하나인 경성 야마토주쿠인 것이다. 양옥 정면에는 ‘경성 야마토주쿠’라는 석골(石骨)문자가 하얗게 떠올라서 첫 가을의 한적한 햇빛을 쇠고 있는 것이다. 백만 대 도회지의 소음도 유현(幽玄)하고, 심신이 가라앉는 한경(閑境)인 것이다. 작년 그믐 때까지 미국감리회 여자신학교였던 곳으로, 군의 알선과 민간유지의 독지에 의하여 새로이 경성 야마토주쿠의 간판이 시국의 숨결을 소이며 걸리게 된 것이다.

이 주쿠는 경성 야마토주쿠 회원의 세심(洗心) 수신(修身)의 도장인 동시에, 또 반도인의 내선일체 실천도장이며, 여기에서 경성 야마토주쿠가 경영하는 국어강습회가 오전 오후와 야간을 통하여, 약 6백 명의 반도인 아동 및 가정부인에 대하여 경성 야마토주쿠 회원 보다 열심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낮 동안은 미취학의 아동을 주로 한 것으로서, 야간은 가정부인 또는 낮 동안 노무에 종사하는 남녀 공원(工員)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저녁에 책보를 안고서 주쿠로 통하는 길을 오르내리는 이들 강습생들의 모습에는 후방 반도의 새로운 숨결 속에 황도일본의 길을 구하며 빛을 찾아서 노력과 정진하는 존귀한 것이 있으며,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하루하루 황국신민으로서의 성장이 느껴진다.

주쿠 안팎은 그들 생도의 봉사에 의한 청소가 말끔하게 되어 있으며, 교실 안팎이 단 하나의 티끌도 찾을 수 없다. 강사 방에는 생도 손에 의한 사은(謝恩)의 꽃이 복옥(馥郁)으로 향기를 뿜고 있고, 벽 사이에 걸려 있는 강사 자신의 손에 의한 ‘직원 훈(訓)’이 눈을 쏜다.

우리는 지성일관(至誠一貫) 신명을 바쳐서 황국신민 육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몸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사표(師表)다운 본분을 완수할 것을 맹세한다.

이것이 직원 훈이며, 4명의 강사는 매일 가지런히 이 직원 훈을 입에 제창하며 나날이 결의를 새로이

하고 강습을 맡고 있는 것이다.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직원과 생도 일동이 강당에 모여서 엄숙한 조례가 거행된다. 정면 국기에 경례하고 궁성을 요배하고, 국가를 봉창하며 황군장병에게 감사의 묵념을 올리며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고 학동 혼을 외운다.

“우리들은 이 나라에 태어난 기쁨을 느끼고 폐하의 적자(赤子)로서 훌륭한 일본의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학동 혼이며 뱃심 가득히 깜짝 놀랄 것 같은 목소리로 제창되는 것이다. 국민학교에도 갈 수 없었던 불행한 이들 반도의 어린 아이들이, 가슴을 펴고 자세를 바로하고 힘차게 학동 혼을 외치는 모습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 야마토주쿠 시찰자의 가슴을 강하게 치며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것이었다. 생도의 복장에서는 집의 가난함을 짐작케 하는 것이 있다. 주쿠의 식당에서 급식을 받는 결식아동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추호도 어둠이 없다. 모두 배울 수 있는 기쁨에 넘쳐서 빛나고 있다. 최근 생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몇 할인가는 토막민의 자제였었다고 한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남겨진 뒷그늘의 삶에 있는 이들 사람들에게도 야마토주쿠의 문화와 후생의 손길은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례를 마친 생도들은 애국행진곡의 레코드에 발을 맞추며, 질서 바르게 강당 정면의 국기에 경례하며 차례차례 각자의 교실로 내려간다. 교실은 4교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곧이어 각 교실부터 국어교본을 읽는 원기왕성한 생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주쿠 장의 안내에 따라 교실로 들어가면 생도의 “기립! 경례!”라는 구령에 의하여 일제히 주쿠 장에 대해서 경례가 실시된다. 정면교단 위에는 이중교(二重橋)의 사진이 걸려 있으며 한 쪽 벽면에는 학동 혼이 걸려 있다. 생도 책상 위에는 학무국이 기증한 국어교본이 펼쳐져 있으며, 이제 납세에 대해서 그것이 국민의 의무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강사에 의하여 되풀이 설명되고 있다. 이제는 국어교본도 막힘없이 읽고 강사질문에 대한 응답도 기운차게 활발하다. 그렇게 해서 야마토주쿠의 국어강습은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야마토주쿠의 생도는 휴일에는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선생을 앞세워서 폐품을 회수하고 국방헌금을 하며, 혹은 길거리에 서서 정오의 묵념의 독려를 하거나 군마(軍馬)의 사료인 푸른 풀을 베어와서 헌납하고 혹은 경성 부내의 몇 군데의 공동변소 청소에 종사하고, 그 선행은 팔방으로 뻗어 실천을 첫째로 삼는 교화의 효과는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어강습회는 한번 황국신민으로서 전향한 야마토주쿠 회원의 힘찬 정신력과 발전적인 의욕에 의한 새로운 기획과 창조에 의하여, 날이 갈수록 합리화되고, 능률화되어 철저화 되어서 더욱 발전해 가서 강사자신 역시 그러한 숭고한 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봉사함으로서 그 정신은 더욱 순화(醇化) 단련되어 가는 것이다.

이전에 공산주의운동에 종사한 사람들에 의하여 국어강습은 위협하지 않나 하는 말을 귀에 들린 일이 있다. 그러나 한번 야마토주쿠의 불같은 강습상황을 볼 때에는 그러한 기우는 당장에 휘날려 버리고 깊은 감격에 몸을 감싸고 마는 것이다.

최근에 야마토주쿠의 그러한 문화후생적인 사명에 감격한 경성의 모 실업가의 따님은 청춘을 이러한 주쿠에 봉사하고자 결심하여, 밤낮으로 야마토주쿠의 교단에 봉사의 교편을 잡고 있으나, 신문에 의해서 그녀의 성스러운 결의를 안 사람들의 감격에 찬 편지가 매일 그녀 앞으로 답지(還至)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온 그들의 편지는 국민학교 선생, 학생, 반도지원병 혹은 멀리 내지로부터 다종다양

한 사람들이지만, 모두 똑 같이 그녀의 그러한 행위에서 받은 감격과 이 감격에 의하여 더욱 굳힌 후방 봉공의 결의를 모으고 있으며, 여기에도 야마토주쿠는 커다란 국민교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성 야마토주쿠 경영의 국어강습회는 여기뿐만 아닌 것이다. 경성 부내 8곳, 수원, 개성, 평택, 대전 각 1곳, 계 12곳에서 개강하고 있고, 기타 각 야마토주쿠에서 경영하고 있는 국어강습회도 모두 이상과 같은 훈련과 교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야마토주쿠에서는 많은 반도인 자제 및 가정부인이 황국신민으로서 연성과 훈화(薰化)되어, 한편으로 사회 각 방면의 이해와 원조도 차차 깊이, 특히 녹기(綠旗)연맹부인부의 적극적인 원조는 본 강습회의 장점이라고 하는 바이다. 그러나 일체를 유지의 독지와 강사의 희생적인 봉사에 의하여 계속되는 본 강습회의 앞길은 반드시 탄탄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반도에 한 사람의 국어 미해득자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인 본 강습회에 대하여 사회 각 방면의 한 층의 원조를 기대하는 바이다.

2) 야마토 가정주쿠(大和家庭塾)

이 밖에 신의주 야마토주쿠에서는 반도 부인에게 일본 부인으로서 교양을 베풀고, 내선일체를 일상 가정생활에 구현 시키고자 하는 것을 기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평북 용암포에 야마토 가정주쿠를 개설하고, 소학교를 마친 미혼 반도부인 45명을 입숙시켰다. 고등여학교 교사자격이 있는 내지인 부인 3명을 전임강사로 하며, 여기에 신의주 보호관찰소의 직원도 강의의 일부를 담당한다. 국어, 예의, 재봉, 꽃꽂이, 차도, 황민과, 가사, 서도, 체조의 각 과목이 1주에 24시간에 걸쳐 교수되고, 수업 연한은 1개년이다. 야마토주쿠로서는 물론 전선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며, 그 성과는 각 방면으로부터 기대되고 있는 바이다.

3) 수산장(授産場)의 경영

생활의 안정 여하가 개인의 사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극히 크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상법의 보호관찰에서는 대상자 본인일 때는 그 가족의 생활보도 내지 확립이라는 것이 사상지도와 병행하여 극히 중시되는 것이다.

물론 생활의 보도확립이라는 것도, 본인 사상의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본인의 사상 상태, 경우, 경력, 건강 등 본인이 갖고 있는 조건과 사정에 따라서 그것을 채택해야할 구체적인 수단방법은 구구한 것이다.

야마토주쿠의 수산(授産)사업은 주로 자신이 기술을 갖지 않는, 당장에 취직할 길이 없고, 취직을 해도 그 수입으로서는 한 집안을 입에 풀칠하는데 모자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사람들을 가족과 함께 주쿠에 수용하고, 이들에게 생활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기술을 주며 동시에 야마토주쿠의 시설에 의하여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본정신을 체득시키고 실천 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야마토주쿠에서 경영하고 있는 수산(授産)사업은 경성 야마토주쿠에서 응용미술 간판포스터의

제작, 지함(紙函)제조, 명함인쇄. 광주 아마토주쿠에서 양재. 신의주 아마토주쿠에서 골판지 상자, 나무젓가락용 얇은 판자의 제조 등으로, 모두 상당한 실적과 성과(聲果)를 올리고 있다. 특히 신의주 아마토주쿠에서 골판지 상자, 나무젓가락용 얇은 판자의 제조는 이미 1939년 봄에 동 주쿠의 산업부로서 경영이 되고 있으며, 군부, 경찰 및 신의주 영립서 당국의 호의와 원조에 의하여, 원료 입수, 제품의 소화가 함께 순조로운 경과와 발전을 거쳐서, 동 주쿠 공장에서는 주쿠의 생도 및 그 가족 30여 명이 묵묵히 시국 하에서 물자증산의 한 역할을 자진해서 생산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경성 아마토주쿠의 수산사업은 금년 5월에 막 개시한 창업기에 있으면서도, 응용미술부의 독특한 기술의장과 제함부(製函部)의 우량 제품, 저렴한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 시중에 선전이 되어, 주문이 쇄도하는 성황을 보기에 이르렀다. 제함부에서는 그날의 강습을 끝낸 국어강습생의 일부도 마무리 일부를 거들게 한다. 제품은 계속 반출되어, 수산장은 날이 갈수록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산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없이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한 가지 일에 온정신을 쏟아 붓는 존귀하고 성스러운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은 아무튼 풀어지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을 떨쳐 일어나게 하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또 이 밖에 경성 아마토주쿠에서는 경성 부내 신촌에 4천 평의 밭을 경작해서 채소를 재배하며, 대상자들에게 흙에 친숙해 지는 근로정신의 함양과 농업실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 아마토주쿠 역시 주쿠 내에 양봉, 느타리버섯, 약초, 채소 등의 재배 장을 설치하고 농촌회원의 부업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청진 아마토주쿠에서는 함경북도 내의 사상정화와 농촌진흥에 정신(挺身)하며 기여해야 할 농촌의 중견인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도장의 설립을 꾀하면서 착실히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양, 대구, 함흥 각 아마토주쿠 역시 지방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산사업의 경영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이러한 실현도 멀지 않는 날일 것이다.

4) 대상자의 훈련

보호관찰제도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상범죄의 방어에 있으나, 궁극의 목적은 사상적인 미몽에서 잘못해매는 자를 교화와 선도를 하여 황국신민다운 올바른 길에 복귀시키고, 그들의 왕성한 활동력과 유용한 재목을 국가공공의 사업시설에 적극적으로 경주하며 봉사할 시킴으로써 국가총력의 열매를 거두어서 황국의 융성과 발전에 기여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지도목표는 상주(常住) 좌와(坐臥) “천황(天皇)귀일(歸一)의 정신”을 구현해야 할 참다운 황국신민의 연성에 있으며, 이러한 정신의 체득(體得) 구현(具現)에 의하여 비로소 참다운 전향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향을 요하는 자는 대상자 외에 무척 많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일은 잠시 두고, 대상자는 참다운 황국신민답게 철저하게 훈련과 교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도를 하는데 보호관찰소의 직원이 무쇠와 같은 신념, 불타는 듯한 열의에 의한 지도와 그들 대상자의 자각노력에 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전향자를 속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마토주쿠에 수용되어서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대상자 및 그 가족이 아침저녁으로 궁성요배, 국가봉

창, 신전(神前)예배, 황군장병에 대한 감사의 묵념 등의 행사를 되풀이 하고, 일상생활에 황민(皇民) 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일반 대상자는 적절하고 적당한 기간에 입숙(入塾)시켜서 군대식 규율 하에 무언(無言)실행의 행동적인 맹 훈련을 실시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있는 것이다.

경성 야마토주쿠에서는 최근의 사례로서 금년 3월 10일부터 1개월간, 및 4월 29일부터 1개월간의 두 차례에 걸쳐서, 각 30여 명의 대상자를 선발 입숙시켜서, 보호관찰소 직원은 이들과 침식을 함께하고 함께 힘을 쓰며, 지도자와 피 지도자가 한 몸이 된 훈련을 했다. 처음에는 적지 않게 불안한 기분으로 입숙한 그들도, 엄격한 규율 속에 맥박이 치는 큰 사랑을 느끼며, 일체의 아집(我執)을 버린 숙(塾)의 행적인 생활 속에 맛이 그치지 않는 묘미를 감득하고, 훈련의 효과는 날이 갈수록 함께 나타나고, 언제부터인지 새벽에 일어나서 물래 변소청소를 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것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어서, 드디어는 각 반이 경쟁적으로 이것에 종사하도록 되었으며, 또 도장입구 복도에 벗는 슬리퍼는 보는 눈도 기분이 좋게 정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行)을 통하여 그들을 하여금 일본정신은 이론이 아니며, 실천을 통하여서만 체득할 수가 있다는 신념으로서 참다운 내선일체는 반도인이 천황폐하의 적자(赤子)로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신념에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되는 것이라고 외치게 되었으며, 그러한 신념에서 그러한 태도에서 입숙 전과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금년 5월 전선 야마토주쿠 대표자 90여 명으로써 부여신궁 조영(造營)근로봉사대를 결성하여, 부여에서 3일간 근로봉사를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그들은 훈련의 체험을 살려서, 봉사기간 중에 매일 자발적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숙사인 백강료(白江寮)는 물론 다른 단체의 숙사 반월료에 이르기까지 숙사 안팎을 구석구석까지 청소하고, 특히 누구든지 싫어하는 오예(汚穢) 불결(不潔)한 변소의 청소를 솔선해서 했다. 또 백강료 부속의 개간 받은 농촌출신의 대원 수명에 의하여 언제라도 씨를 뿌릴 수 있을 수 있도록 경작해 놓았다. 또 근처의 사적지 견학을 할 즈음에는 대오를 갖추어서 대원 각자가 백마혈(白馬穴), 길레, 작업용 둥근 수저, 곡괭이를 휴대하여, 견학을 하는 한편 당우(堂宇), 건물 등의 낙서를 지우고 쌓인 찌꺼기를 치우며, 근처의 풀을 뽑으며, 공동변소의 청소에도 종사하고, 그렇게 그들은 시종 묵묵히 봉공의 성의를 보여 준 것이다. 그와 같이 그들의 행동은 다른 봉사단체에 커다란 감화를 미치며 다른 단체도 스스로 그들의 청소에도 협력하게 되고, 부여의 전 봉사 단체에 화기애애한 기운이 넘치며 주최자인 국민총력연맹 당국은 물론 그 고장 부여의 관민에게 커다란 감격을 준 것이었다.

야마토주쿠에서는 이 밖에 매월 애국 일에는 회원이 다 모여서 신사에 참배하고 자주 강연회와 좌담회를 개최하여 수양에 도움을 주고, 혹은 기관지를 발행하여 문서에 의한 사상 선도를 하는 등 모든 방법으로 교화와 선도에 힘을 쓰고 있다. 전향자 역시 적극적으로 애국운동에 종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상보국연맹에 계속되는 야마토주쿠의 활동은 이제야 야마토주쿠 정신, 야마토주쿠 운동이라고 하는 사상전향의 커다란 조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류는 이후 더욱 발전이 더욱 클 것이며 또한 단순히 사상사건 관계자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회인에게 깊은 반성과 발분(發奮)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 하는 바이다.

〈출전: 高原克己, 「大和塾の設立と其の活動」, 『朝鮮』 第317號, 1941년 10월, 29~39쪽〉

5. 대화숙 제1회 사상선도강습회 수강생의 감상 내사에 관한 건

경고특비 제966호

1941년 4월 18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귀하
경성헌병대장 귀하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대화숙 제1회 사상선도강습회 수강생의 감상 내사에 관한 건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은 저번에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경성부 죽첨정(竹添町) 3정목 8번지에 대화숙으로서 새롭게 발족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상 선도 및 전향 확보를 목적으로 제1회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10일부터 1개월간 31명을 대화숙에서 공동생활을 시키고, 경성보호관찰소장 이하 보호사의 직접지도 아래 기거하는 동안 중시 일본정신의 양양과 진작(振作)에 노력하였다. 현재 이들 수강생의 감상을 내사 중인데, 우선 다음과 같이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인정되어 일단 보고 '통첩'(달)한다.

기(記)

경성부 신촌정 산 9번지
백남운(白南雲) 당 48세

고어에 '주거는 생각을 바꾼다.'는 말처럼 나는 대화숙의 생활을 통해 얼마간 적막함을 느꼈던 마음 가짐도 명량해졌고, 함께 경험한 귀중함은 정말로 한 생애 기념할만한 일이다. 그것은 감격의 생활이자 병대적(兵隊的) 규율생활이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규율을 구속으로만 곡해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스스로 기쁘게 제약된 곳에 법열(法悅)의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기 바란다. 즉 나가사키(長崎) 소장님이 훈시한 바와 같이 ① 황국정신의 양양, ② 공동생활의 연성, ③ 인고단련 등의 '숙시(塾是)'를 수련하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병원적(兵員的) 생활을 체험하였다. 병원적 훈련을 체득하지 않았을 때는 황국신민으로서는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국체생활을 통해 공동생활 혹은 국가생활에서 '복종'의 절대성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분명히 체득할 수 없었다. 먼저 나가사키 소장 및 여러 보호사님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아침과 밤의 각 행사는 물론, 근로봉사와 복도청소에 이르기까지 병원적 규율 아래 수행하였는

데, 무엇보다도 먼저 소장 및 여러 보호사님의 열성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희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 행사에서는 항상 ① 국기제양, ② 조선 신궁 참배 및 궁성요배, ③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④ 라디오 체조 등을 순차적으로 거행하였다. 나는 이들 행사를 통해 신은(神恩) 황은(皇恩) 국은(國恩)의 삼위일체적인 홍은(鴻恩)을 받은 것에 감사함과 더불어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함으로써 일종의 긍지를 체감하였다. 반도인이 현하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다른 어떤 민중보다 안태(安泰)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폐하의 은덕 덕분이다. 더욱이 조국(肇國)의 정신인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이상은 내선일체를 통해 비로소 구현되고 있다. 반도인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사명은 실로 중대하고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밤의 행사로서는 신전(神前) 참배가 엄숙히 행해지고, 이밖에도 좌선(坐禪) 및 수양 강화가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감명 깊은 것은 좌선의 무사도적 정신, 즉 몰아적(沒我的) 정관(定觀)은 멸사봉공의 수련이고, 천황 중심의 역사관 및 신체제적인 일본학 등은 자신의 전향 이후 공허한 머릿속을 채울 일본주의적인 새로운 이념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이념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정말로 의의 깊은 교훈이었다. 요컨대 신뢰는 힘을 만들고, 이해는 사랑을 창조한다는 원리를 체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불순한 마음가짐을 버리고 천황폐하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반도인의 유일한 진로라는 것을 체득한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모두가 전선(戰線)에서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소가 아무리 떨어져있더라도 마음을 다잡아 직역봉공(職域奉公)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였다.

〈출전: 京畿道 警察部長, 「大和塾 第1回 思想善導講習會 受講生ノ感想內査二 關スル件(京高特秘 第966號)」, 1941년 4월 18일 『思想二關スル件(京高特秘)』(14)〉

6. 설립 관계 기사

6-1)

일본정신수련도장 경성대화숙(京城大和塾), 금일 성대한 발회식

예전 사상관계자들에게 참된 일본정신을 주입하여 황국신민으로서 사상국방에 협력시키고 또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체험의 추진대로 지도적 실천자를 양성하고자 경성보호 관찰소에서 계속 준비 중이던 수련도장인 경성대화숙(京城大和塾)과 불우한 노유자(老幼者)들에게 대하여 보호와 육영을 적극적으로 한 경성대화숙 보양원(保養院)의 이날 회식은 예정대로 14일 오전 11시부터 숙사인 부내 죽첨정(竹添町) 3정목 8번지의 2호 전감리교회신학교(前監理教會神學校) 자리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남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금□산(金□山) 허리에 잡은 숙사 식당에는 이날 미야모토(宮本) 법무국장, 미쯔하시(三橋) 경무국장 대리, 고천(古川) 보안과장, 가등(加藤) 조선군참모장, 수야(水野) 경성복심법원 검사장, 금자(金子) 지방법원장, 산택(山澤) 지방법원검사장, 경기도 지사 대리, 유생(柳生) 내무부장, 천안

(川岸) 국민총력연맹사무총장 등 관계 관공서 민간관계 내빈 다수와 사상보국연맹(思想報國聯盟) 경성 지부 각 분회 대표 등 2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식은 열려 먼저 국기경례, 궁성요배, 국가봉창과 황군영령에 대한 감사 등등의 뒤를 이어 산하(山下)보호관찰소장의 식사와 공본 법무국장의 고사가 있는 다음 가동 조선군참모장, 경기지사(대리) 수야 검사장의 축사가 있었고 축전 피로 뒤를 이어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성수만세로써 폐회하였다.

식이 폐회한 다음에는 약 40분 동안 국어 강습생들의 학예회가 있었다.

대화숙이 탄생하기까지에는 산하 보호관찰소장이하 소□□의 노력이 들었거니와 이 취지에 찬동한 대동광업사(大同鑛業社) 사장 □성종만 씨의 경제적 지원이 컸으며 또한 보양원에는 대□세권(大□世權) 씨의 지원이 컸다. (사진은 대화숙의 개회식 광경)

〈출전: 「日本精神修鍊道場 京城大和塾 今日 盛大한 發會式」, 『매일신보』, 1940년 12월 15일〉

6-2)

사상보국연맹 해소 재단법인 대화숙(大和塾)으로 통일, 사상국방전선에 신체제

그동안 벌써 3년 지난 1938년 7월 전 조선을 활동하여 사상사건에 관계하였던 사람들을 망라하여 결성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은 사변 발생 이후 총후의 사상정화운동에 각별한 노력을 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어 왔으며 한편 보호관찰소의 제도와 사회적 지지를 받아서 오늘에는 전 조선에 7개 지부와 80여 분회(分會) 그리고 2,500여 명의 연맹원을 가져오던 바 이번 사상보국운동의 철저한 목적을 위하여 이 연맹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지방별로 재단법인 대화숙(大和塾)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되었다.

그동안 1938년 7월 이래 반도의 사상국방(思想國防)을 위하여 애써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은 애국적 총후 활동을 해오던 것은 물론 내선일체 운동에도 많은 공적을 해온 바 이번 조선의 신체제로 국민총력연맹이 조직되고 모든 문화단체가 이리로 총집중이 되는 것을 기회로 하여 종래의 연맹을 해소하고 다시 '대화숙'이라고 하는 일본 정신을 기본으로 한 단체를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사상범보호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시국에 들어맞는 활동을 하게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사상연맹을 한층 강화하여 재단법인으로서 경제적 근거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지난번 경성에 생긴 대화숙과 같이 현재 사상연맹의 지부로 있는 경성·함흥·정선·평양·신의주·대구·광주의 일곱지부를 전부 재단법인 ○○대화숙이라고 명칭을 고치고 숙장(塾長)은 역시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였다. 이 같이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기회로 하여 민간 측 유력자를 역원(役員)으로 하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종사 협력하게 하였는데 이 대화숙에서는 사상범의 보호사업은 물론 반황도사상(反皇道思想)을 물리치게 하고 특히 황도정신의 발휘, 내선일체운동의 강화 또는 황도정신 수련도장(皇道精神垂隣道場)을 만들고 국어보급 장려회, 좌담회, 기관잡지 발행 등 여러 가지 사상보국운동에 매진하기로 하였으므로 각 지방 대화숙의 활동에는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 대화숙에 가맹하는 개인과 단체는 사상국방에 정신대(精神隊)로서 크게 활약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한다.

장래의 활동을 기대, 본부 미우라(三浦)형사과장 담(談)

이에 대하여 총독부 미우라(三浦)형사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3일 전에 각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가 되었으므로 이□에 의하여서 착착 □□에 연맹을 해소하고 대화숙으로 명칭을 바꾸는 동시 종래의 활동에 새로운 체계를 갖추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사상국책의 실천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연맹원들의 한층 분발할 것을 바라 마지않으며 이로써 대화숙의 발전은 결국 사상국방의 완전을 기할 것으로 앞으로의 대화숙의 활동에는 사회 각 방면의 지지와 협력의 기대를 가져야 하겠다.

〈출전: 「思想報國聯盟解消 財團法人大和塾으로 統一, 思想國防戰線에 新體制」, 『매일신보』, 1940년 12월 28일〉

7. 활동 관계 기사

7-1)

황국신민의 신도(新道), 대화숙(大和塾)서 실천운동

한 때는 옳지 못한 사상을 가지고 그릇된 길을 걷다가 그 잘못을 깊이 깨닫고 분연히 전향하여 참된 황국신민으로서 재출발한 대화숙 숙원들 20여 명이 어제 10일부터 한 달 동안 부내 죽점정(竹添町) 대화숙에서 합숙을 하며 참된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성을 다하고자 엄격한 규율 있는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30여 명 중에는 장덕수(張德秀)·백남운(白南雲)·이순택(李順□) 씨 등도 섞여 있는데 합숙을 하던 첫날부터 일개 하나의 병졸과 다름없는 기분으로 일사보국(一死報國)의 신념을 닦고 있다 한다.

일과는 매일 오후 6시 정각에 대화숙으로 중산(中山)숙장 이하가 먼저 모여 목욕을 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한 다음 각계의 명사들을 초빙하여다 교육군사경찰로부터 일본 역사, 일본정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식을 흡수하여 일본식 덕행을 함양한 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한 시간 동안은 좌선(坐禪)과 신전 예배를 하고 취침한 후 아침에는 오전 6시 반에 일어나 제각기 비와 걸레를 들고 청소정리를 한 다음 7시에 신전배례를 하고 황국신민서사 제창, 궁성요배 숙장의 훈시를 들은 다음 '라디오'체조를 하고 공동 식사를 하고나서 8시에는 제 각기 직업장소로 출근을 하여 직업봉공을 하고 오후 6시가 되면 또 합숙소인 대화숙으로 모인다한다. (사진은 즐거운 식사)

〈출전: 「皇國臣民의 新道-大和塾서 實踐運動」, 『매일신보』, 1941년 3월 12일〉

7-2)

마음은 물론 모양도 황국신민이되었소, 수료식 압둔 대화숙생들 체험담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을 한 부내 죽침정(竹添町) 대화숙(大和塾) 숙원 30여 명의 황도정신수련회(皇道精神修鍊會)는 내일 9일로써 예정한 1개월의 합숙을 수료하게 되었는데 수료식을 이틀 앞둔 7일 밤에는 종래의 일상행사를 그만두고 한 달 동안의 체험감상을 서로 피로하며 간친을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은 장기(長崎) 보호관찰소장, 중산(中山) 숙장, 보호사 외 숙원 30여 명과 법무국 사무관, 지방법원의 검사, 예남구금소교 삼관등도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 반에 일동이 식사를 마치고 7시경부터 간담회로 들어갔다.

먼저 장기 소장으로부터 ‘한 달 동안 고생됨을 무릅쓰고 참된 정신으로 수련을 한데 대하여 감격하여 마지않는다’고 인사를 한 다음 중산숙장이 좌장이 되어 입숙체험 감상담이 시작되었다.

갑(甲)-나는 한때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황국에 대하여 □□는 때 있었고 한 때는 내선일체론에도 펍 의혹을 가졌으나 폐하의 신하로서 신념을 굳게 가진 다음부터는 이 의혹은 자연 해결되었다. 더욱이 입숙 생활에서 체험한 가운데서 얻은 것이 즉 일본 정신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엄한 생활을 실천해 보겠다.

을(乙)-나는 교원생활 중 그릇된 사상을 가진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맑스’사상은 이론적으로만 그릇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생활상 그릇된 것이다. 나는 입숙한 뒤에 이것을 깊이 깨닫고 불순한 마음을 완전히 청산하였다. 참된 일본인이 되려한다. 벌써 일본인이 되었다. 일본인이 안 될 수 없을 만큼 나는 많은 것을 깨쳤다.

병(丙)-나는 병으로 10일 동안 밖에 입숙 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나 한 달 동안 합숙한 사람 이상으로 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유익한 체험을 하였다. 마음뿐 아니라 모양까지 황국신민이 되었다.

정(丁)-입숙생활은 일생을 통해 잊지 못하겠다.

무(戊)-참된 인간이 됨이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다 하고 나는 입숙 이래 속은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힘껏 정신 차려 하여왔다. 숙장이 변소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몸으로써 여러 가지를 체험하였다. □□□고 웃을 때는 웃고 힘을 낼 때는 내서 신민으로서의 최후봉공을 한다. 여기에 일본정신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였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모두 이상과 같이 30여 명이 밤 가는 줄도 모르고 너도나도 하고 형용은 다르나 일본정신을 완전하게 체득하였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10시가 넘어가 각 침소로 들어갔다.

〈출전: 「마음은 勿論貌樣도 皇國臣民이 되었소-修了式압둔 大和塾生들 體験談」, 『매일신보』, 1941년 4월 8일〉

대화숙(大和塾)에 도장(道場), 평양 김인정(金仁貞) 여사 특지(特志)

[평양지사발] 기원(紀元) 2600년- 평양의 교육계에는 손창윤(孫昌潤) 씨의 3백 십수만 원의 평안(平安) 공업의 성립을 비롯하여 수일 전에는 평양의 청년 실업가 박승립(朴承立), 박승환(朴昇煥), 현재 양씨로부터 대동공전(大同工專)에의 10만 원의 기부가 있더니 이번에는 또 평양의 여류 사업가인 김인정(金仁貞) 여사로부터 평양 대화숙에 도장(道場)을 제공하여 교육계에 접종하여 일어나는 쾌보에 일반 평양 부민들은 감격을 말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평양 대화숙은 평양보호관찰소의 지도 아래 일본정신의 양양,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를 목표로 하고 사상보국의 선각자적 사명 완수에 매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기구 설비의 비약적 발전을 하기 위하여 일본 정신 □□을 위한 수련도장 즉 신민도수험(臣民道受驗)의 수양도장을 건설하고자 평양보호관찰소장이오, 또 동숙 회장인 정영세(鄭永世) 이하 일반관계 제씨가 크게 노력하였으나 경비와 또는 자재 관계 등으로 □협찬주가 없는 형편이어서 □□에 있었는데 평양부 경□리 3번지의 12□의 김인정(71세) 여사가 그 말을 듣고 대화숙의 사명과 및 그 정신에 크게 공명하는 바 있어서 시국하 가장 의의 있는 사업이라 하고 자기가 설립한 평양부 창전리(倉田里) 인정도서관(仁貞圖書館)의 부속 건물인 대강당을 무상으로 대화숙 도장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므로 정영 소장 이하 관계자 제씨가 가뭇한달에 비와 같이 뿔듯이 기뻐하여 전기 부속건물을 곧 대화숙 도장으로 사용하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전기 대화숙에서 목하 개강 중에 있는 국어 강습부터 동 부속거물 내 이전 개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인정 여사는 이를 기회로 하여 71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황국신민 된 자는 누구나 국어를 알아야 한다는 가당한 생각 아래 자기도 그 강습회에 입학하여 한 1년생으로서 국어를 배우기로 되었다.

한편 또 금년은 김인정 여사의 진갑이오, 동시에 인정도서관의 설립 십 수 년에 해당함으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려고 계획하는 바 있었으나 대화숙의 개선을 기념식의 대신으로 시국하 중지하기로 하였다 한다. (사진은 김인정 여사와 대화숙에 제공할 건물)

〈출전: 「大和塾에 道場—平壤 金仁貞 女史 特志」, 『매일신보』, 1941년 6월 6일〉

VI. 대동민우회

1. 대동민우회 발기대회 개최의 건

지검비(地檢秘) 제1031호

1936년 7월 10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법무국장 귀하
고등법원 검사장 귀하
경성복심법원 검사장 귀하

대동민우회 발기대회 개최에 관한 건

수제(首題)에 대해 경기도 경찰부장으로부터 별지 복사와 같은 보고가 있었다.

동 문서 보고처-

{ 법무국장
고등법원 검사장
경성복심법원 검사장

경고특비 제1371-4호

1936년 7월 8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귀하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대동민우회 발기대회 개최에 관한 건

(6월 23일자 경고특비 제1371-2호에 대해서)

경성부 체부정(體府町) 43번지 소재 대동민우회 조직준비위원회는 이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대중의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7월 5일 경성부민관에서 이론발표회를 개최하고 종전의 동지 등에게 그 의향을 청취한 바, 참석자는 시비를 불문하고 모두 이론을 진술할 기개(氣概)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는 오히려 회무를 급속히 처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6월 26일의 준비위원회에서는 7월 5일 개최 예정인 앞의 이론발표회를 발기인대회로 변경하고, 더욱이 7월 4일의 준비위원회에서는

다음 날 5일의 대회순서, 규약초안, 신입회, 회원심사 등에 대해 타합한 다음, 예정대로 7월 5일 오전 11시부터 부민관 소강당에서 본 회의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출석 회원은 38명으로 먼저 사회자 안준(安浚)의 개회사가 있는 다음, 회원 점명(點名)과 임시집행부 선거, 이전 회의록 낭독(이승원李承元), 경과보고(이승원)가 있었다. 이어서 선언, 강령, 규약초안의 토의 및 준비위원의 증선(增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창립대회는 1개월 이내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 기일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다음 오후 4시 폐회하였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고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으나 계속해서 동향을 주의 중이다.

이를 보고 통보(달)한다.

기(記)

집회일시	7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회장소	부민관 소강당
주최자	대동민우회 조직준비위원회
집회목적	발기인대회
주요 집회자	이각중(李覺鍾), 안준(安浚)
집회인원	회원 38명

1. 개최상황

정각보다 1시간 늦게 안준이 임시의장석에 앉아 개최를 선언하고, 제국황실의 번영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일동 5분간 묵념하였다. 이어서 안준은 백악회(白岳會) 해산 이후 이를 대신할 대동민우회의 조직에 2개월이 경과한 것은 여러 동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무튼 오늘 발기인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여러 각위와 더불어 경하해마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민중을 위해 분투노력해야 한다는 인사말이 있었다.

2. 회원점호

출석자를 점호했는데 회원 73명 가운데 38명(별지 1호)이 출석하였다.

3. 임시집행부 선거의 건

집행부 선거방법을 회의장에 자문하자 구두로 의장을 호천(呼薦)하고 의장이 서기 2명을 선거하기로 하였다. 구두호천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의장 김경식(金瓊植)

서기 이승원(李承元), 윤귀영(尹貴榮)

4. 이전 회의록 낭독

서기 이승원이 지난번 회의록을 낭독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5. 경과보고

이승원은 경과보고로서 준비위원회 6회 개최, 사무소의 경성부 체부정 이전, 회명 및 회원모집 등에 관해 보고하였다.

6. 선언 및 강령규약초안 토의

(1) 선언초안(이미 보고)을 윤귀영이 낭독하였다. 제4항 중에서 '세계의 인류'를 '시대의 인류'로 정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2) 강령(이미 보고)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3) 규약과 대동민우회 회칙을 윤귀영이 낭독하고, 오후 0시 50분에 일단 휴회를 선언하였다. 2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오후 1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였다.

제1조부터 차례로 심의하기로 하고 먼저 회명을 조선민우회, 민우회, 동우회, 공생회 등으로 부르는 것이 어떤가라는 각각의 의견이 진술되었지만, 준비위원이 연구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제4조는 찬조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질문과 응답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의 규정정신은 너무나도 독재주의적인 느낌이 있음으로 자유주의를 강조해 동 조 제1항 '대회에서의 의결권' 다음에 '및 제안권'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종각은 본 건은 제17조 제3항 '이사회'의 '제약안'에 '이사회 및 회원 5인 이상의 연서 제약안'을 덧붙이자는 의견이 나와 협의 결정하였다.

제8조는 이사 7인, 감사 2인, 평의원 15인 이상을 전부 약간 명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기타는 전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선언 강령 규약을 너무 단기간에 토의한 결과, 문장과 기타에서 불비한 점이 많음으로 준비위원회에 위임하여 상당히 연구한 다음 창립총회까지 제출할 것을 가결하였다.

7. 준비위원 증선의 건

현재 준비위원 11명은 부족하기 때문에 증선하기로 결정하고 명칭을 창립준비위원으로 하였다. 전형 위원으로 안준, 김정식, 유공삼(柳公三) 3명을 추천하고 이들 전형위원 3명이 전형한 결과, 홍종기(洪鍾起), 박형남(朴亨南), 이방(李芳), 김도산(金濤山) 4명을 증선 발표하였다. 또한 앞으로 증원이 필요할 때는 위원이 증원을 승인함과 더불어 당선자의 사임은 절대로 수리하지 않기로 하였다.

8. 창립대회 소집의 건

1개월 이내에 준비하여 개최하기로 하고 위원회에 일임하였다.

9. 폐회

오후 4시 폐회하고 일동은 삼삼오오 해산하였다.

10. 임감(臨監) 경찰관의 관직씨명

경기도 순사부장 이마노 다다우에몽(今野忠右衛門)

경기도 순사 어윤호(魚允浩)

11. 경찰 취체 상황

대동민우회 회칙 초안 제7조 이하에 회무의 감시와 검찰을 위해 감사장 및 검사, 감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으로 이를 변경하도록 주의하였다.

발기인 명부(1936년 7월 4일 현재)

경성부 중학정 1	○이각중(李覺鍾)
경성부 화동정 21-1	○유공삼(柳公三)
경성부 가회정	○안준(安浚)
경성부 내자정 156	○윤홍중(尹弘重)
경성부 상왕십리정 774	○윤귀영(尹貴榮)
신경	김연학(金練學)
경성부 팔판정 7	○정홍교(丁洪敎)
경성부 행촌정 210-339	김인창(金仁昌)
경성부 상왕십리정 524-1-	○임낙빈(任洛彬)
경성부 충신정 18-59	김두형(金斗炯)
경성부 신공덕동 100-5	○장희열(張喜烈)
경성부 성북정 159-1	○이효진(李孝鎭)
경성부 체부정 13	○정은상(鄭殷相)
평산군 세곡면 유천리	이동락(李東洛)
경성부 교북정 90-1	○김중우(金鍾宇)
경성부 종로 5정목 152	○김동육(金東育)
경성부 황금정 5정목 108	이동민(李東民)
경성부 홍과정 35	○홍순영(洪淳永)
경성부 성북정 218	박용진(朴龍鎭)
김천군 동화면 어양리 602	○연재선(延在璇)
경성부 봉익정 158	○이창환(李昌煥)
경성부 신설정 129	이성현(李聖鉉)
경성부 태평통 2-233	이인경(李寅庚)
영주군 읍내	송홍국(宋鴻國)
평산군 안성면 당인리	최명식(崔明植)
대전부 본정 3정목 244	김동석(金東錫)
경성부 신설정 4-64	민영뢰(閔泳雷)
경성부 원남정 69	유장호(柳章浩)
경성부 하왕십리정 980-46	○양광(梁光)
대전부 본정 2정목 262	김홍구(金弘九)

경성부 적선정 158	○신의호(申儀鎬)
경성부 창신정 651-6	○박형남(朴亨南)
개령군 호서면 점촌리	권오정(權五定)
경성부 관훈정 29-18	박일원(朴逸園)
경성부 경운정 96-7	○김도산(金濤山)
인천부 내리 2	○최갑동(崔甲童)
경성부 장사정 181-2	한신교(韓愼教)
경성부 적선정 145	○이항발(李恒發)
경성부 계동정 14-26	○이승원(李承元)
경성부 화서정 185-2	○이방(李芳)
경성부 한강동 간조(間組) 내	송완(宋完)
경성부 계동정 2-66	박인선(朴仁善)
경성부 청량리정 88-2	이경식(李京植)
경성부 사직정 148-1	○김경식(金瓊植)
경성부 신당리정 67	○박승만(朴勝萬)
경성부 관동정 5-66	황보현(黃普鉉)
경성부 익선정 82	○이관식(李官植)
단천군 복귀면 구원대리	심길복(沈吉福)
경성부 계동정 2014	○김원진(金元鎭)
경성부 가회정 1-55	○박명렬(朴命烈)
경성부 가회정 143	백윤혁(白潤赫)
경성부 송인정 318	○윤해광(尹海光)
경성부 송인정 34	김영수(金永秀)
경성부 성북정 성북정 195-1	이□현(李□鉉)
평산군 서봉면 상진리	성낙규(成樂奎)
경성부 계동정 127-2	○정규창(丁奎彰)
경성부 안암정 427	조진우(趙鎭羽)
경성부 신당정 111	○조승환(曹昇煥)
봉화군 내성면 문주리	황윤경(黃潤慶)
영주군 영주면 휴천리	이동식(李東軾)
경성부 청진정 210-2	이관하(李光河)
경성부 도량정 75	○서영석(徐泳錫)
경성부 송인정 258	○진공섭(陳公燮)
경성부 도량정 85	이민희(李旻熙)
천안군 입장면 하장리	김종택(金鍾澤)

경성부 창신정 88	○이종원(李鍾遠)
경성부 전농정 589	홍종기(洪鍾起)
경성부 창신정 651-2	윤설운(尹雪雲)
문경군 호서면 점촌리	○유봉현(俞奉賢)
경성부 상수익정 4	최석환(崔錫煥)
경성부 황금정 3정목 48	○문태섭(文泰燮)
경성부 행촌정 128	○장인송(張寅松)
	○배상렴(裴相濂)
	(○는 출석자)

〈출전: 「大同民友會 發起大會 開催ノ件(地檢秘 第1031號)」, 『警察情報綴』, 1936년 7월 7일〉

2. 대동민우회의 결성 및 그 활동개황

〈목차〉

1. 조직의 경위
2. 조직의 내용
3. 사업 및 활동 개황
4. 지나사변에 당면해서의 활동 개황

1. 조직의 경위

1936년 2월 11일 사회사업가 이각중(李覺鍾)의 주창으로 조선에서의 사상전향자 보호구제사업을 목적으로 '백악회(白岳會)'를 조직하고 전향자 12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들 전향자는 모두 조선인으로 사회주의자 내지 민족자결주의를 청산한 자들이다.

'백악회'는 위와 같이 오로지 전향자의 보호와 구조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회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자기의 과거 실천의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사상전향은 종래의 신념주의로부터 더 나아가 새로운 원리를 목표로 사상적으로 추급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라며 일본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주의의 신지도이념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사상운동을 일으킬 필요를 느끼고 '대동민우회'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즉 신지도이념으로 조선의 약 1만 좌익분자에게 호소한 바, 약 500명의 찬동을 얻고 그 자격심사를 통해 120명을 정회원으로 같은 해 9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즉시 동 회가 성립되었다.

대동민우회의 발기에 즈음하여 동지 여러분에게 고한다

역사의 □□□□는 움직이고 세상은 변천한다. 오늘날 조선의 실태는 더 이상 뒤쳐질 수 없다. 19세기 후반 이후 오늘날까지 반복되어온 민족적 운명의 변화가 단순한 역사의 □□가 아니었다고 하면, 조선 민족의 새로운 경륜과 이상을 목표로 앞으로 만들어질 ‘대동민우회’의 창립은 역사의 필연적인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다수의 유위(有爲)한 우리 형제는 과거 수십 년을 통해 조선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분명(奔命)해왔다. 40여 세기 간의 유구하고 빛나는 민족 역사의 유지발전을 위해 또 앞으로의 민족적 자유 획득을 위한 모든 노력은 그들이 가장 열심히 해왔다. 이러한 노력과 분명은 아주 다각적이고 다채로운 근대조선사를 만들어왔다. 그 피와 땀의 결정인 혼(魂)은 조선민족 개개인의 뇌리 속에서 춤추고 절절히 혈관 속에 숨 쉬고 있다. 그들은 조선민족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영예로운 노력도 현실적인 역사의 한줄기에 불과하다. 세운(世運)을 거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힘든 체험을 통해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일치하지 않고, 또 이상이 꼭 현실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힘없고 굶주린 민족이다. 우리는 굶주림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기울여온 모든 피눈물 나는 노력은 실로 이를 위해서였다. 수백천 명의 유위(有爲)한 우리의 지도자는 이를 위해 또 이 때문에 수 없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를 결국 얻지 못한 채 끝났고, 또한 민족 4천년의 궁지와 자부도 여기에서 끝나버렸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답할 날이 왔다. 과거 우리의 실천의 결과는 우리에게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아무리 우아한 민족 고원(高遠)의 이상일지라도 현실과 유리되어 하나의 공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처음에 온 민족이 지닌 최후의 마지막 하나까지도 모두 바친 노력이 보답 받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다가올 지까지도 가르쳐 주었다. 즉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민족적 자멸이 있을 뿐이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족적 고투의 시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에 직면하였다. 내일의 세계의 새로운 규모는 배타적 고립적 세계가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내일의 세계의 특징은 대국가 대민족 대문화라는 세 가지 점에서 발견된다.

오늘날 세계정세는 필연적으로 대국가 형성의 기운을 축성하고 있다. 대국가 형성은 다수의 여러 민족의 일대 동조 합작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 결과는 여러 민족의 문화를 토대로 하는 일대 종합적 대동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인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모든 전화(戰禍)와 인류 불행의 원인을 만들어온 국가 및 민족 상호간의 충돌은 비로소 그 모습이 사라질 것이다.

약소국가와 강대국가의 병립은 항상 상호간의 충돌을 유발한다. 인류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다수 국가는 자원과 지리상의 여러 조건과 국민의 전통을 기초로 가장 합리적인 정치적 조직에 의해 하나의 대국가를 구성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는 무의미하다. 공통의 전통 계통 자원 및 지리상의 여러 조건을 기초로 여러 민족과의 공존공영을 목표로 하는 커다란 국가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근대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여러 민족의 소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대국가로 구성되는 여러 민족은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생활의 향상과 발달의 결과, 개개의 민족적 문화는 종합되고 융화되어 우수한 일대문화계통을 건설함과 동시에 일대 국민적 정신에 따라 여러 민족을 통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민족은 평화와 복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는 절망과 □□에 빠져있는 우리 조선민족의 □□에 계시하는 새로운 길이자 이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커다란 이상 아래 지금까지의 협소한 민족관 국가관 세계관을 해체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닌 민족적 긍지와 자부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커다란 이상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글을 우리의 선배와 조선민족을 위해 싸워온 용감한 투사의 영전에 바치고 싶다. 조선민족 및 대중을 위해 싸우다 옥리(獄裡)에 연루된 용감한 친구에게 보낸다. 민족의 장래를 탄식하면서 평생 불행을 맛보았던 존경하는 노지사(老志士)의 손에도 보낸다. 기타 조선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우리의 친구인 친애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를 보낸다. 이는 우리의 진심을 담은 메시지이자 소신의 피력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민족 이상과 경륜을 내걸고 나아가고자 하는 ‘대동민우회’는 종래 우리의 모든 좋은 전통부분을 결코 거부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합리적인 형식과 보다 효과적인 실천을 통해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함에 있음을 맹세하고자 한다.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형제여! 친구여! 모든 희망과 힘을 우리 당(黨)을 위해 보내주기를 바란다.

1936년 8월

대동민우회 창립위원회

안준(安浚), 이각종(李覺鍾), 이동락(李東洛), 연재선(延在璇), 유공삼(柳公三), 이승원(李承元), 박형남(朴亨南), 김도산(金濤山), 차재정(車載貞), 김연식(金演植), 주련(朱鍊), 진공섭(陳公燮), 이민희(李旻熙), 사현필(史鉉必), 장인송(張寅松)

선언

(1)

최근 4반세기에 걸친 역사의 난문(難問)은 조선민족에게는 실로 경이적인 민족적 자기변혁의 과정이자 민족적 발분(發奮)의 역사였다. 조선의 민중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선(先)자본주의적 형태로부터 탈화(脫化)하여 근대적 민중으로서의 존재로까지 발전 양상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자기발분의 노력은 항상 표현에서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병합 이후 조선민중은 일본의 내부적 모순부분으로서의 존재이자 반일본적 요소로서의 존재였다. 그 가장 구체적인 표현으로서는 온 민족의 흥분을 자아낸 3·1운동과 이어서 음으로 양으로 계속해서 일어난 여러 형태의 운동으로 모두 반일적 표현과 그 실천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민족의 놀랄만한 발분 노력도 결국 반일적 요소로서의 자기를 완성하는 과정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객관적 및 주관적 여러 조건이 다른 오늘날의 새로운 각도에서 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오히려 대립물의 통일과정, 양 민족의 기

계적 통일로부터 변증법적 통일과정, 통합하기 이전의 분리 과정으로서의 매개적 과정일 뿐이었다.

(2)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은 객관적으로 양 민족의 융합상의 모순을 말살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다. 양 민족의 정치, 경제 및 문화의 모든 생활 부문에서의 접촉과 간섭을 더욱 구체적으로 심화하고, 양 민족의 생활상의 이해(利害)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관찰이 결코 쓸데없는 일련의 궤변이 아니라는 것은 조선민족 생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분명해질 것이다.

조선민족의 정치상, 경제상, 문화상 및 기타 생활상의 여러 이해관계는 아마토(大和) 민족과의 관계 이상으로 긴밀하고 깊은 것은 없다. 지금 조선민족의 생활 기구는 일본의 모든 국민 생활 기구 속에 편입되어 완전한 일부를 이루었다. 현재 조선인의 민족적 생활 상태는 일본의 국민생활 기구로부터 이탈하여 스스로 유지할 수 없다. 즉 일본은 조선민족을 포섭하는 전체이다. 이는 냉정한 현실이자 분명한 사실로 역사는 드디어 여기까지 진전하였다.

(3)

우리는 여기에서 현단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현실에서 유리된 모든 미망적(迷妄的) 관념을 현실에 맞는 과감한 실천을 통해 청산 극복하고 민족 백년의 대계를 정당하게 수립해야 한다. 최근의 국제적 및 국내적인 정세는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

세계의 경제적 통제화의 영향은 필연적으로 세계인구의 통제와 세계영토 통제의 추세로까지 발전하였다. 다수의 현존하는 약소민족국가는 몇 개의 대국가로 포섭 통일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정세 하에 놓여있다. 세계가 체계화된 오늘날 각국의 경제 상태는 모두 이를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 약소민족은 그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강대국가가 여러 약소민족을 포섭하는 과정은 강력하고 평화적이 아닐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자본적 제국주의적 팽창과정과는 그 의의가 사뭇 다르다.

세계의 인류와 지구가 몇 개인가의 대국가에 의해 나뉘어져 배정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기운에는 대개 두 가지 조류가 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적 이상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주의적 이상에 입각한 것이다. 이 모두는 그 내용에서 자본적 제국주의 시대에서의 지극히 복잡한 약소민족문제의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는 문제를 일반적 사회 이상(理想)에서 해결하는 것에 비해 후자는 이와는 달리 각기 국민적 전통과 특징을 기초로 한 국민생활의 현실적 구체성 위에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5)

일본의 자본주의는 정치상 및 경제상에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있다. 자본가적 독점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 이것들은 일본에서의 반자유주의적 사상의 대표적 계열이다. 하지만 일본의 국정(國情)과 전통 등 모든 국민적 사상의 근대(根帶)를 이루는 건국의 정신은 국가주의 이

상의 실현발달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일본의 국가주의를 구주의 '파쇼'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 생성의 역사적 및 사회적 근거에 의거하여 양자 간에 혼동해서는 안 되는 특이성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내용이 없는 추리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국민적 및 정치적 지도 이상은 국가주의적 이상이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이상은 앞에서 말한 대국가주의로의 발전을 약속한다.

(6)

국가주의 이상의 정치적 및 경제적 방면에서의 실천적 심화는 생산과 소비를 국가적 전체적 이해에 입각하여 통제하고 아울러 생산수단과 노동을 통제한다. 국가주의는 유용한 국가생산에 종사하고 국군의 기초를 이루는 근로대중을 국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기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개인적 자본주의 시대의 국민내부에서의 상호간의 알력과 모순은 국가주의의 궁극적 실천에서 점차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주의의 팽창 국책은 그 본질에서 개인적 자본시대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팽창 과정에서 포섭되는 이민족은 제국주의 시대와 같은 피정복민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민족이 각자의 현실적 생활상의 이해관계로부터 상호의존적으로 통합 구성되는 국가형태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인류의 사회생활상 가장 진보적인 역사적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근거 위에서 국가주의 이상을 강력히 추구하고면서 우리 스스로 궁극적인 실천을 통해 신생면(新生面)을 개척하고자 한다. 차가운 조선이 아니라 뜨거운 피가 소생하는 생생한 대중생활의 재건을 기도하는 우리의 역사적인 주장에 호흡을 함께 하고 혈관을 나눈 우리 형제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려는가?

“여기에 모든 □□이 □□□□해야 한다. 여기에 모든 □□한 마음이 □□□□해야 한다.”

강령

1. 우리는 대국가주의 의식을 강조하여 국가 전체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조선인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한다,
3. 우리는 국가적 통제경제의 확립을 달성하고 근로대중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4. 우리는 공산주의 기타 반국가적인 모든 사상 계열을 배격한다.
5. 우리는 시대의 진운에 적응하는 도덕을 수립하여 국민정신의 통일을 기한다.

대동민우회 약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대동민우회라고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본회의 강령에 의거하여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및 민족자결의 운동을 청산하고 국민

정신을 철저히 하고 국민적 지위의 향상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근상일가(槿桑一家) 이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위 항의 근상일가의 이상이란 특히 다음과 같은 본질을 지닌다.

1. 내선 양 민족은 항상 도의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대국가, 대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여 완전한 결합 강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2. 그 전제로서 총독정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철저와 합리화를 통해 조선인의 향상 발전을 기구(企求)한다.
3. 이렇게 황도의 정화(精華)를 기조로 하는 대문화를 결성 발양하여 모든 동아 인류의 복지를 위해 공헌하는 것을 의도한다.

제3조 본회는 다음 사업을 실행한다.

1. 사상전향자의 보호사업
2. 심전개발(心田開發), 농산어촌진흥운동의 조성 및 합리화 사업
3. 일반 생활개선에 관한 사업
4. 회원의 친목호조에 필요한 사업
5. 기타 강령,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본회는 경성에 본부를 두고 필요한 지방에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연령 25세 이상에 달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조선인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1년 이상 사회운동 기타 민중운동에 종사한 자로서 완전히 사상을 전향한 자
2. 1년 이상 사회교화사업 또는 국민운동에 종사한 자
3. 정치 경제 및 문화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단 입회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회의에서 의결하고 임원을 선거하거나 선거 받을 권리
2. 경비를 부담하고 강령, 약법 및 의결에 복종할 의무

제7조 연령 25세 이상의 조선인으로서 정치경제운동의 소양 또는 지망하는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며 경비를 부담하고 강령, 약법 및 결의에 복종한다.

준회원으로서 1년 이상을 경과한 자는 이사회 심사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년 이내일지라도 이사회 추천과 총재의 결재를 통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본회의 사업을 원조하는 자는 이사회가 찬조회원으로 추천한다.

제9조 본회는 창립위원회에서 본회의 창립에 공로가 있는 자 1명을 추천하여 종신고문으로 삼는다.

종신고문은 본회의 존립 및 발달을 옹호하고 중요 회무에 대한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종신고문은 회(會)의 결의 및 회무의 집행으로서 본회의 강령, 약법 및 창립의 본지에 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무기관 또는 임원에게 이를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총신고문이 은퇴할 때는 스스로 후임자를 지명한다.

제2장 기관 및 임원

제10조 회무를 심의 집행하기 위해 다음 기관을 둔다.

1. 총재
2. 이사회
3. 감사회
4. 참의원회
5. 대회

제11조 앞 조의 기관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 임원을 둔다.

1. 총재 1명
2. 이사장 1명
3. 이사 약간 명
4. 감사장 1명
5. 감사 약간 명
6. 참의원 약간 명

제12조 총재, 이사장, 감사장은 대회에서 선거하고 이사, 감사는 대회에서 선거한 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총재가 이를 지명한다.

참의원은 찬조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이를 추천한다.

이사 및 감사 중에서 각 약간 명을 상무로 하고 총재가 이를 지명한다.

제13조 총재는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재한다.

총재 부재 시는 이사장이 이를 대리한다.

제14조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일반 회무를 처결(處決)하고 상무이사가 이를 집행한다.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이사장 사고 시에는 총무부 이사가 이를 대리한다.

제15조 이사장 및 감사는 감사회를 조직하여 회무의 감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참의원은 참의원회를 조직하여 총재, 이사회 의 자문에 응한다.

제17조 이사회는 이사장, 감사회는 감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이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재의 결재를 거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참의원회는 총재가 이를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참의원회는 총재, 이사회 의 자문사항을 토의한다.

제19조 본회는 정기 및 임시 두 종류로 나누어 정기대회는 매년 1회 임시대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대회는 총재가 의장이 된다.

제20조 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
 2. 임원의 선거
 3. 이사회에 제의안 및 회원 5인 이상의 연서로 된 건의안으로서 종신고문의 심의를 거친 것
- 제21조 총재의 임기는 만 5년, 이사장 및 이사, 감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만 3년, 참의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한다.
- 제22조 대회는 회원, 참의원회는 참의원의 3분의 1 이상, 이사회와 감사회는 각기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동일 안건에 대해 소집 2회에 걸쳐 여전히 성원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출석원으로 성립한다.

제3장 회무 분장

제23조 이사회에는 다음 8부를 둔다.

1. 총무부
2. 교양부
3. 정경부
4. 재정부
5. 조직부
6. 선전부
7. 조사부
8. 사회부

제24조 각 부의 사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1) 서무에 관한 사항
 - (2) 인사에 관한 사항
 - (3) 기밀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 (5)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교양부
 - (1) 회원, 준회원의 교양 훈련에 관한 사항
 - (2) 일반 공민교육에 관한 사항
3. 정경부
 - (1) 정경 정책에 관한 사항
 - (2) 경제에 관한 사항
 - (3) 정치에 관한 사항
 - (4) 산업에 관한 사항
 - (5) 노자(勞資) 관계에 관한 사항

(6)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4. 재정부

- (1) 재정에 관한 사항
- (2) 부담금 조정 징수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경리 및 조도(調度)에 관한 사항
- (5)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5. 조직부

- (1) 지부 조직에 관한 사항
- (2) 연락 통제에 관한 사항
- (3) 대중의 조직 및 지지 획득에 관한 사항

6. 선전부

- (1) 출판선전에 관한 사항
- (2) 회세(會勢) 확장에 관한 사항
- (3) 사상전향 유도에 관한 사항
- (4) 강연 강좌에 관한 사항

7. 조사부

- (1) 일반정세 조사에 관한 사항
- (2) 각종 수요(須要)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8. 사회부

- (1) 회원의 친목 호조에 관한 사항
- (2) 사상전향자의 구호에 관한 사항
- (3) 생활개선운동에 관한 사항
- (4) 일반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제25조 감사회는 다음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 1. 회무 감찰에 관한 사항
- 2. 회의 재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사상행동 사찰에 관한 사항
- 4. 징계에 관한 사항

제26조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를 추천을 통해 고문 약간 명과 상담역 약간 명을 선정할 수 있다.

고문은 총재의 자문에 응하고 상담역은 각 부의 사무에 대한 이사의 상담에 응한다.

제4장 입회, 탈회 및 상벌

제27조 본 회에 입회하려는 자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본 회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입회 승인을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회원으로서 부담금 납부를 게을리 하는 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29조 회원 탈퇴할 때는 그 이유를 구신(具申)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않는다.

제30조 회원으로서 본 회의 체면을 오손(汚損)하거나 회의 통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감사회의 사찰과 총재의 결재를 거쳐 이사회가 이를 징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징벌은 훈계, 정권(停權), 해임의 3종류로 한다.

제31조 제명처분을 받은 자로서 복회(復會)할 때는 회원 5인 이상의 연서로 본 회의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의 규정은 앞 항의 복회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2조 회원으로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이사회 의 결정을 거쳐 총재가 이를 표창한다.

제5장 회계

제33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부담금, 찬조금 및 간부의 각출금 기타 수입으로 지변한다.

제35조 본 회의 재산은 법인 성립에 이르기까지는 총재 및 종신고문의 연명으로 보관한다.

제6장 부칙

제36조 본 약법은 대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제2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36조, 제38조 내지는 제40조 및 강령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37조 약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총재가 이를 정한다.

제38조 본 회의 강령 및 약법에 반하는 결의는 당연히 이를 무효로 한다.

강령, 약법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는 종신고문의 판정에 따른다.

제39조 본 회의 자산이 20만 원 이상에 달했을 때는 이를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한다.

앞항에 따라 법인으로 변경한 다음일지라도 종신고문에 관한 규정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40조 본 회의는 대회 출석원 3분의 2 이상과 찬조회원 과반수 및 종신고문의 일치결이 없으면 이를 해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회원은 대부분 종래 민중운동의 지도자로서 현재 그 세력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회의 성립과 더불어 그 운동 전선의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포에게 고한다

세계사 발전의 필연적 동향과 작금의 긴박한 국제 및 국내적 비상시국의 여러 정세는 조선민족에게 그 장래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는 과거 조선에서의 공산주의와

민족자결주의를 청산하고 내선 양 민족의 도의적 신뢰와 결합을 더욱 강화한 기초 위에서 '내일의 일본'이라는 대국가적 이상을 위해 일치 협력하여 매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본 회의 건기(建起)를 천하에 고한지 벌써 100여 일, 그동안 각 방면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얻어 본일 대동민우회는 그 역사적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생각건대 오늘 '내일의 일본'이라는 새로운 이상을 내걸고 일본정신을 경앙(景仰)하는 우리야말로 지난날 가장 열렬히 반일전선에 나선 소위 '불령선인'이자 '공산당원'이었다. 민족 4천년의 빛나는 역사의 유지 발전과 그 공지를 위해 2천만 조선민중의 행복을 염원하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려 분투노력을 바쳐왔는가.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노력이 조선민중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오늘날, 우리는 단지 지난날의 불각(不覺)을 스스로 자책할 뿐이다.

우리의 과거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과 명리욕(名利慾)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번 우리의 전향도 이욕(利慾)의 충동이나 외압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조선민중에 대한 비겁한 배신은 더더욱 아니다. '조선민중의 행복과 발전'을 염원한 근본적 입장에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우리는 본 회의 주장과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조선인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 민족자결주의의 환영을 타파하고 우리의 전통 및 사회의 실정과 저어(齟齬)한 공산주의의 공상을 완전히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는 본 회의 사명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아닌 조선인을 구원하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포 여러분과 무엇보다도 밤낮으로 2천만의 장래를 염려하는 우리 선배의 절대적인 지원을 요망해마지 않는다. 특히 지금까지 조선민중의 전도를 갈망하고 우리의 행복을 기원해준 친애하는 내지인 선배에 대해서는 이번 본 회의 성립을 통해 '지난날 우리의 과오를 사죄함과 더불어 우리의 간절한 애정(哀情)을 참작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조선의 전향'이고, 그 이상(理想)은 '내일의 일본'을 건설하는 것이다. 내선 일여의 견고한 결합은 이러한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는데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다. 양 동포간의 친선과 융합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에 대해서는 일치 협력하여 이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양자 간에 '우월감'과 '비하감'과 같은 감정상의 길항(拮抗)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 시대의 일본'을 건설하겠다는 커다란 이상 앞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허용해야 하며, □□□와 동포애의 순정을 길러야 한다. 우리야말로 '내일의 일본'을 상징하는 주도적인 힘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 회 주장의 구체화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양 민족 간의 진정한 결합이 이루어짐은 물론, 나아가 조선에서 잘못된 공산주의 및 민족자결주의운동 등 반국가적 운동의 대두와 존재를 단호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을 천하의 동포 앞에 단언해 두고자 한다.

1936년 9월 20일
경성부 중학정 1번지
대동민우회

2. 조직의 내용

- 1) 회원은 연령 25세 이상인 자로 하고, 1년 이상 사회운동 기타 민중운동에 종사한 자로 완전히 사상을 전향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본년 10월 현재 회원 수는 175명이다.
- 2) 찬조회원을 두어 본 회 사업을 원조한다.
- 3) 종신고문으로 창립의 공로자 이각중(李覺鍾)을 추대한다.
- 4) 총재는 현재 결원이다.
- 5) 이사장 안준(安浚), 이사 유공삼(柳公三) 외 11명, 감사장 박형남(朴亨南), 감사 이효진(李孝鎭) 외 2인이고, 이 가운데 4명의 이사가 상무를 집행한다.

3. 사업 및 활동개황

1) 사상전향의 검토

조선 사상전향자의 심리적 과정을 조사 검토하여 대체적인 표준에 따라 이를 유별하고 전선(全線) 전향촉진운동의 자료로 삼았다.

2) 지도이론의 확립

「인민전선과 국민전선(신변혁명리의 개요)」라는 팸플릿을 간행하여 이를 철저히 주지시켰다. 「인민전선과 국민전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민전선과 국민전선(신변혁명리의 개요)

(1) 괴물을 둘러싼 2대 진영

공산주의의 괴물이 구라파 천지를 배회하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말했다. 구미의 괴물은 러시아혁명의 성취를 통해 세계의 괴물로 성장하고, 지금은 지구 곳곳을 배회하면서 온갖 소동과 괴변(怪變)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도깨비와 같은 ‘괴물의 나라’ 소비에트 연방의 출현은 얼마나 많은 인류에게 두뇌의 평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 또 세계 각 국민은 이 괴물이 뒤덮은 ‘수수께끼의 세계’로 인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고통스러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괴물에 둘러싸여 괴로웠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그리고 대규모적인 현실적 고난을 앞으로 맞보아야할 우리 주위의 모든 정세는 매우 긴박하다.

공산주의의 괴물이란 원래 자본주의적 사회의 외부로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대지의 숲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타난 도깨비도 아니다. 19세기 이후 부패한 구미자본주의 사회의 체내에서 발생하고 성장한 자본주의 자신의 질병 때문이다. 거의 치명적인 이 질병은 구주대전(구주대전에 의해 심하게 쇠약해진 세계자본주의 체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절단하여 러시아 혁명이라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따라서 러시아 혁명은 결국 세계혁명의 단서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러시아 혁명 이후 오로지 세계혁명의 성취와 그 지도를 임무로 하는 공산주의운동의 세계진영으로서 1919년 창립된 코민테른(국제공산주의연맹)의 출현은 그렇지 않아도 전후의 피폐에 편승하여 부흥하던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후 17년간 코민테른은 독특한 조직방법과 선전선동의 매력을 통해 세계 각 국민의 모든 불평불만 속에 파고들어가 이들 인민 사이에 불타는 투쟁의식과 반역정신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세계 각국의 인민을 자기의 정치적 사상적 지배하에 묶어두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 괴물의 퇴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다. 특히 코민테른의 도전적 공격은 더욱 각국의 반발을 유발시켰다. 공산주의와 대립하여 자국의 국민적 개성과 국가적 독자성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 사회의 개혁을 목표로 한 소위 파쇼국가들이 출현하였다. 세계는 지금 공산주의와 파시즘이라는 2대 진영으로 분열하여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비참한 투쟁의 장면에 직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세로 인해 코민테른의 소위 세계 공산주의화의 이상은 이제 그 실현이 더 이상 곤란해졌다. 이에 최근 코민테른은 정책을 바꾸어 각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파쇼에 반대하는 모든 인민부분=자유주의 여러 당파와 제2인터내셔널 세력을 포함하는 소위 '인민전선'을 결성하여 파쇼에 대항하려는 새로운 전술을 1935년 제7회 대회에서 결의하였다. 최근 스페인에서 소위 인민전선정권이 성립한 것은 그 표현의 하나이다.

한편 파시즘 국가에서는 인민전선에 대항하고자 소위 국민전선을 결성하고, 반공산주의적인 모든 국민부분의 동원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양 전선의 대립상태는 구주에서 점점 첨예화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세계정국의 특징으로서 앞으로의 국제관계는 이러한 두 진영의 상극관계를 중심으로 그 동향이 결정될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일본과 독일, 일본과 이탈리아의 방공협정 성립은 이러한 제반 소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일본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은 파쇼국가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협정은 단순한 국제외교 사정의 표현일 뿐이다. 오늘날 구주에서 볼 수 있는 이데올로기 블록 즉 파쇼 블록에 일본이 가담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 독자적인 입장과 이해관계로부터 방공을 강화하기 위해 파쇼국가인 독일 및 이탈리아와 이러한 외교협정을 맺었을 뿐이다.

(2) 코민테른의 실체

공산주의 세계혁명이라는 커다란 기치를 내걸고 세계 각국을 향해 진군하는 코민테른과 소비에트 연방의 양자는 과연 어떤 관계로 맺어졌을까. 코민테른의 최후적 정책=아마도 이의 최후적인 형태로서의 인민전선전술이 무엇을 진정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일은 오늘날 단계에서의 세계 공산주의운동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대전 중의 기습적 산물로서 소연방이 태어났는지의 여부를 떠나 세계 각국은 소비에트 정권의 실패를 예견했고,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소비에트 권력의 붕괴를 도모하던 제2인터내셔널조차도 소비에트 권력의 수립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외부적 압박의 조건이 없더라도 당시 소비에트 민중은 자신들이 내세운 새로운 권력을 잘 유지

할 수 있으리라고 피아 모두 확신할 수 없었다. 소비에트 권력의 확립이 기습적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20년간이나 이를 유지하고 세계에 건설한 하나의 사회주의국가로서 사회주의적 사회질서와 조직을 확립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거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적의 연속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구주 각국에 전화(戰禍)와 전후의 피폐에 뿌리를 둔 소위 직접적 혁명정세가 도래한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혁명정권이 볼셰비즘 독특한 강력한 전술적 전환을 통해 연이어 전개되는 내외의 새로운 정세를 소비에트 정권 확립을 위한 영양(營養)으로 가장 타당하게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시해야 할 중요한 조건은 소비에트 민중 특유의 우둔함이 오히려 다행스럽게도 환난과 빈곤과 인종(忍從)을 참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 소비에트 정권 확립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은 두 조직의 힘이였다. 즉 국제적으로는 코민테른의 세계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지도조직이고, 국내적으로는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조직이다. 사회주의 단계에서의 소비에트 연방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형태는 러시아 공산당의 독재를 의미하고, 이는 더욱이 1인의 절대적 독재관이 필요하였다. 코민테른의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프롤레타리아적 요소 및 프롤레타리아의 동맹자인 농민 식민지 민중을 언제라도 소비에트 정권 옹호를 위해 지령하고 동원할 수 있는 세계적 단일조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였다. 즉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마르크스 엥겔스의 말을 역용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세계의 자본주의제국의 소연방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여 '너희들의 조국 소비에트 연방을 옹호하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리고 코민테른은 각국의 프롤레타리아 농민을 향하여, 식민지와 반식민지의 민중을 향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라는 슬로건 아래 민족적 내란과 정치적 반란, 경제적 파괴 행동을 선동하였다. 친애하는 향토를 저버리고 그리운 전통문화와 도덕 등 모든 민족적 개성에 거역하는 반역을 결행할 것을 코민테른의 권위로 세계혁명이라는 아름다운 벨소리에 숨어 명령하고 있다.

코민테른은 이를 통해 완전히 소연방의 별동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즉 코민테른은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소비에트 1억여의 민중의 이익을 위해 아니 소비에트 정권자의 옹호를 위해 10수억의 세계 민중을 향해 피와 자유를 희생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기관이다.

과거 10수년간 세계 수백만의 프롤레타리아 농민 식민지 민중은 얼마나 열렬히 그들의 빛나는 조국을 옹호하고자 명예스러운 결의 하에 많은 희생을 지불해 왔는가. 오늘날의 소련 권력의 확립은 실로 이들 세계 민중의 피와 자유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다.

최근 코민테른의 각국 지부 앞으로 보내진 모스크바 본부의 지령 중에는 소련 옹호의 요구 이외에 그들 지부 민중의 개별적 이익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개별적으로 고려되고 있다지만 그것은 거의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의 부분적인 것이다. 그 부분적인 것조차도 중심 강령인 소련 옹호의 제목에 엄밀히 종속되어 있다. 그 내용은 여기에서 발표할 자유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사려 깊은 프롤레타리아로서 그 지령을 손에 쥔 자는 이를 곧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령의 외관은 예를 들면 개별적 특수의 색채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코민테른 지령의 근본적인 원칙은 항상 소련옹호 중심주의에 있을 뿐, 각 지부 국가의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 국가의 실정

과 민족적 개성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또 아무리 그 지령의 수행 결과가 지부 민중의 이익에 반하여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에 곤란하더라도 코민테른은 그것들이 단지 소연방의 옹호라는 이익과 일치한다면 그 지령 수행을 위해 지부 국가 민중의 동원을 요구할 뿐이다.

이처럼 코민테른은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1919년 창립 당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리즘의 양심은 언제부터인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지금은 단지 탐욕스러운 소련 기관의 일부로서 각국 민중에게는 무겁고 힘든 짐으로 변해버렸다.

생각해보면 1919년 10수개국의 대표자 등이 모여 코민테른을 창립한 당초의 원칙은 적어도 그 표면상의 체제에서도 세계프롤레타리아 식민지 반(半)식민지 민중의 해방이고, 이들 세계민중 부분의 우군이라는 것을 자임함으로써 세계 민중의 행복을 약속하였다. 물론 그 당시에도 소련 옹호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목적의 전부는 아니었다. 코민테른의 이러한 지도정신은 3·1운동 이후 조선 민중의 진보적 요소를 놀랍게도 자극하여 종래의 월슨이즘에 기대던 민족해방의 염원은 레닌이즘으로 옮겨가 앞으로는 오로지 코민테른에 의해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언하였다. 이후 조선의 민중은 코민테른의 명령을 하늘에서 내린 복음과 같이 신봉하고 모든 희생과 노력을 바쳐왔다.

하지만 이제 코민테른의 정체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련 옹호의 기관 이외에 그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코민테른은 더 이상 우리의 기도기관도 우군도 아니다. 그에 대한 모든 기대는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애초부터 망신(妄信)이었고 환상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만주사변 이후 소련의 극동정책은 선만(鮮滿)을 하나로 삼아 일본 공격의 저지선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러한 오늘날의 정세에서 소련은 우리에게 공동의 적이지 우군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종래의 코민테른에 바라던 모든 기대와 희망을 버리고 우리의 독자적인 경지의 개척과 독자적인 지도정신의 수립을 통해 민족갱생의 사명을 다하려는 결의를 견고히 해야 한다. 소위 민족적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실천적 마르크스주의에 오랜 기간 동안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그 비구체성과 비현실성이 증명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 정도로 세계의 프롤레타리아를 매료시킨 □□□도 점차 그 신통력을 소실할 것이다.

(3) 세계정책의 파산

코민테른 정책의 또 한 가지 중대한 오류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그 몰락에 관한 잘못된 견해로부터 도출된 지도정책상의 오산이다.

오늘날 세계자본주의는 1919년 코민테른 창립 전후와는 달리 그 기구와 구성상에 중대한 변화와 현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경제기구의 본질적 수정과 합리화를 통해 그 자신의 체내에 포장되어 있는 모순을 스스로 양기(揚棄) 극복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사회관계의 조정과 개선을 통해 그 전모를 변형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를 향해 발전 비약하고 있다. 코민테른의 문서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몰락 현상은 이제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자본주의적 제도가 양기되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

와 정책이 설령 소련에게는 진리일지라도, 그것이 세계 모든 나라에게도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현명한 코민테른 지도자에게 이러한 과오를 일부러 자행하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레닌 사후의 주관적 변화는 물론 세계 일반의 객관적 정세의 격변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소련 국내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곤란한 임무와 상대적 안정의 기초 위에 선 세계자본주의 국가의 새로운 공세, 즉 구주에서의 각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실패를 계기로 맹렬히 대두한 파시즘의 공격 등의 정세는 세계혁명 정책수행에서 미증유의 곤란을 수반시켰다. 따라서 소비에트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불안감을 느끼기에 이르렀고, 결국 세계정책의 근간을 보다 일원적으로 소비에트 연방 옹호하는 것으로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변화된 세계정책이라는 것이 결코 각국의 국정(國情)과 민정(民情)에 적응하는지의 여부는 원래부터 당연히 고려할 문제도 아니었다. 다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련의 이익 옹호를 위해 편리하도록 이용하면 될 뿐이다. 따라서 소련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평시에는 무역시장 개척 등의 경제전을 유리하게 전개하고, 전시에는 쟁의 내란을 선동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면서 어부지리를 얻을 필요가 있다. 소위 세계정책이란 것은 바로 이를 위해 세계 프롤레타리아를 움직이게 만드는 입발림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세계 프롤레타리아를 원조하여 혁명을 성취시킬 만큼의 희생을 지불하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지 대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그렇다. 즉 국민생활의 일부에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결혼과 가정생활을 가족제도의 기초 위로 복구시킨 것처럼 세어본다면 얼마든지 많은 예가 있다. 이것들은 소비에트 정권자에게는 원래부터 과오도 아니고 변절도 아니다. 필요하다면 24시간 이내에 정책을 바꾸는 것조차 결코 주저하지 않음으로써 격변하는 국내정세에 순응한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믿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하려는 많은 공산주의의 신도야말로 가련할 뿐이다.

그들의 실천적 결과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프롤레타리아적 전체주의, 또한 앞으로의 세계혁명의 주장과 인민전선의 전술은 모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비에트 연방의 옹호 그 하나만을 위해 다해야 한다.

세계 프롤레타리아 농민과 식민지 민중이 진정으로 자신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러한 장사꾼과도 같은 코민테른과 소련의 당착적인 지도로부터 빨리 자신을 이탈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국가적 민족적 개성을 자각하여 자기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해야 한다.

(4) 새로운 변혁원리로서의 대국가주의

이상 인민전선과 국민전선의 개의(概意) 및 그 비판을 시도해보았다. 이하에서는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는 자본주의사회 변혁의 새로운 원리인 대국가주의에 대해 검토하겠다.

오늘날 인류사회는 적어도 자본주의 이후의 인류사회는 각 국민과 민족이 서로 흩어져 분산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국가적 장벽에 의해 각자 독립적인 외관을 띄고 있지만, 그것은 봉건시대의 그것과는 다르다. 각 국민생활의 근저에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연계성이 유지되고 있고, 또 절대로

이를 필요로 한다. 반대로 국가적 장애 때문에 인류의 사회생활이 모순의 일면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조차 있다. 자본주의 이전의 인류역사의 각 시대에서는 종족적으로 분산 고립적인 존재였지만, 근대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의 발달에 따라 각 민족의 생활범위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각 민족 간의 생활은 차츰 민족 및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에서 약소민족이 그 독립적 존재를 유지하기 곤란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오늘날 세계경제의 특질적인 기초는 이들 약소민족의 개별적 분립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다. 세계 약소민족은 어떤 형식으로든 대국가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 하에 놓여있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이상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 그 자체를 부인하면서 세계의 인류가 단 하나의 '인류사회'로 귀속할 정도의 물질적 기초나 각 민족 간의 정신적 연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이를 상상할 수 없다. 이들 여러 민족의 일대국가로의 통합과정의 귀추는 지리적, 경제적, 역사적 및 인종적으로 서로 접근한 기초 위에서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자본주의는 앞의 각 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언가 새로운 형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끝없이 바꾸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사회체계로서 공산주의와 상대하는 파시즘이 있는데(우리는 파시즘을 바라보며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라고 단정한다. 파시즘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없앨 수 있는 많은 조건 위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파시즘의 자본주의적 모순을 없애는 과정은 대립적이 아니라 합성적인데, 일견 역설적인 특수 양태 중에 파시즘의 진정한 모습이 담겨있다), 파시즘도 앞에서 말한 공산주의와 같이 각 민족사회에 모두 무조건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의 경우 선불리 공산주의의 환영(幻影)이나 파시즘의 □□를 뒤쫓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세계 각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할 추상적 공식을 발견할 목적으로 하거나 또 그 공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무용하다. 우리는 다만 우리 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개혁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자본주의 사회변혁에 관한 기존의 여러 이론의 분석과 비판 위에 서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혁 원리로서 대국가주의를 주창한다.

대국가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결합의 근본적 시정과 공산주의 파시즘에 대한 비판 위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생활에 부여된 여러 현실조건을 우리의 민족적 개성에 적응시키고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변혁시키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이는 하나의 사회사상 체계로서 독특한 민족적 색채를 모든 부문에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국가주의는 사회변혁에 관한 공산주의 추상공식을 부인함은 물론,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과도 다른 우리 사회의 독특한 지도 원리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우리가 지녀야 할 ① 전체의식을 기초로 하고, ② 현실적 여러 조건 위에 입각하여 우리 생활을 현실적으로 발전 비약시키는 데 필요하고, ③ 도의국가의 성취를 조건으로 한다.

① 전체의식

역사는 모든 국가가 장래에 부흥하려면 필히 그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대국가주의는 개인적인 궤도로 벗어난 자유주의에 반대한다. 우수한 역사

전통과 고도의 생활문화를 지닌 민족사회에서는 국민상호간에 우열의 차별적인 측면을 설정하거나 차별을 낳을 소지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불행이다. 모든 국민은 하나의 전체적 생활목표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조직해야 한다. 국민 각개의 이익은 긴밀하게 국가의 전체적 이익에 종속되어야 한다. 하나의 민족사회는 단 하나의 의식을 지니고, 단 하나의 사상과 목표를 지닐 뿐이다. 이러한 전체의식만이 국민 각 개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사회를 강대하게 만든다.

② 현실성

대국가주의는 우리에게 □□에 불과한 민족자결주의와 공산주의의 환영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현실적이어야 한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공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인류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서는 각자가 현실을 의심하거나 불가사의한 마음을 품는 것은 치욕이다. 더구나 현실과 유리된 공상을 그리며 자기를 기만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그렇다. 항상 현실에 의거하여 현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실은 구체적이고 진리이다. 그렇다고 쓸데없이 현실만을 추수(追隨)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현실과 타협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활목표에 따라 주어진 현실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한 이를 창조하는 것이 임무이다.

③ 국가형식

국가는 공산주의 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계급투쟁의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적 현실적 총체의 존재형식인 발달된 민족사회는 항상 총체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 총체적 존재는 국가형식을 절대적 필요조건으로 한다. 우리가 주창하는 국가는 졸속적 고립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고정적인 것도 아니다. 국가발전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탄력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 3항은 대국가주의 성립의 근거를 이루는 기본적 형식으로 그 기조는 동양적 왕도사상이다. 이 왕도사상은 조선민족은 물론 동양 여러 민족의 역사전통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생활은 이를 규범으로서 삼아왔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동양 여러 민족의 개성을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생활의 기조도 역시 여기에 있어야 한다.

대국가주의는 이 왕도사상을 근대적 여러 조건에 적합 확충시켜 더욱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임무이다.

다음으로 대국가주의는 오늘날 모든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인 민족과 계급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① 여러 민족 간의 관계

수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포섭되어 복합국가를 형성한 사실은 역사의 각 시대를 통해 많은 사례가 있다. 특히 최근 여러 국민과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조건은 영토 인구 자원 기타 각 부면에 걸쳐 점차 일원적 블록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의 민족과 국가는 오히려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러한 이상은 각 민족생활의 행복을 저해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약소민족의 경우, 이는 대체로 국제 충돌의 원인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종족적으로 혈연이 서로 비슷하며 지리적

경제적으로 이해가 서로 공통하고, 문화적으로도 전통이 서로 유사한 수개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단위로 통합되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상호부조의 기초 위에 동포적인 협력을 확립하여 보다 풍부한 산업자원, 보다 우수한 종합적 문화체계, 보다 강력한 노동력을 통해 여러 민족=국민 각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하겠다는 것은 인류가 가장 바라던 바이다. 대국가주의가 이상으로 삼는 민족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여러 민족의 평등

대국가주의국가로 통합된 여러 민족은 평등의 원칙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민족이나 국가의 구별이나 현재의 문화상의 차이와 같은 조건은 이들 여러 민족을 불평등한 지위로 두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여러 민족은 경제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 및 문화생활의 각 생활영역에서 평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국가주의 국가는 한 민족의 정복이나 침략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행복과 발전을 목표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민족 사이에는 우월과 비하의 소격(疏隔)이나 대립의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국민생활 사회생활상에서의 여러 기회의 민족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개인생활의 기계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 이러한 대국가주의 국가 실현의 과정에서는 여러 민족의 문화와 기타 실질상의 차이가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발달된 문화와 능력을 지닌 민족이 그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각 민족이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까지의 과도적인 현상으로 영구히 민족평등의 원칙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나. 이해관계의 일치

권리 의무의 평등은 또 한편으로 이해관계의 일치가 필요하다. 즉 대국가주의 사회에 생활하는 여러 민족은 이해관계가 날로 일치되어야 한다. 경제생활 정치생활의 단일화를 통해 여러 민족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이해관계의 모순을 차츰 극복하고, 따라서 이를 통해 모든 의심과 증오, 원차(怨嗟)가 일소될 것이다.

다. 동포적인 협력의 기초 확립

위와 같은 근본적 여러 조건의 성립은 필연적으로 여러 민족 사이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방면에서의 희생과 봉사를 동반한 동포적인 상호부조의 결과를 가져온다. 즉 각 민족은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여 전체의식에 의거한 공동적 이상의 실현을 위한 협심육력(協心戮力)에 노력할 것이다. 이는 여러 민족 사이에 호흡과 □□을 같이하는 동포적인 우애를 만들어내는 기초를 이루는 근본조건이다.

이러한 동포적인 협력은 여러 민족 사이에 동종동근의 동포 감정을 생성시키는 자연적 결과를 초래하고, 적어도 여러 민족의 알력이나 대립을 야기하는 심리적 불안도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서 모든 생활현상=생활양식과 결혼 기타에서 많은 동포현상이 축적되고 여러 민족의 결합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라. 민족의 일원화

이상 여러 조건에 의해 성립된 신생활의 영속적 유지의 결과, 동일 국민으로서의 의식=국민정신은 더욱 심화되어 정신과 물질 양면에서 완전히 일체가 된다. 즉 종래 여러 민족을 구별하던 역사전통과

기타 민족적 개성상의 차이의 조건은 차츰 소멸하여 민족은 여기에서 완전히 일원화된다. 물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원래부터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세(現勢)는 필연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차이조건의 소멸이란 민족 외곽적(外廓的) 구별의 소멸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전통 그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토지에 따라 언어풍습은 다르지만 동일민족임을 방해하지 않고 전통문화의 □□부분을 □□ 발전시킴으로써 오히려 전체로서의 문화를 향상시킨다.

또 민족의 일원화는 소위 동화과정과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 동화는 문화가 높은 민족이 야만 미개한 민족을 문화적으로 정복하는 것인데, 일원화는 문화과정이 거의 동등한 민족이 상호 그 공통성을 인정하여 차이조건을 버리고 종래 여러 민족 사이에 보존되던 좋은 전통부분과 개성, 즉 각 민족 고유의 역사전통·문화·풍습 등 대국가생활에 적합한 부분만이 종합적으로 보존 융합되어 우생학적 발전을 이루고 혼연일체가 되어 커다란 발전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종래의 갑 민족도 을 민족도 아닌 더 우수한 제3 민족이 출현하는 것이다. 민족이란 절대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성 발전하는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대국가주의에 의한 민족문제 해결의 형식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정신적 조건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말하는 황도주의 설명을 통해 더 분명해질 것이다.

② 계급대립의 폐절(廢絶)

대국가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적인 전체의식에 입각하여 모든 사회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개인은 단지 국가적 이익에 종속된다. 개인 상호간의 계급적 우열 또는 종속관계는 모든 생활부면에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 자본사회에서와 같은 계급대립의 조건은 예상할 수 없다.

동양적 왕도사상을 국민정신의 기초로 삼는 대국가주의 사회에는 자본사회에서 볼 수 있는 물질중심의 인생관과 개인관계의 규정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다 고급의 국가 전체의식이 작용하여 국민상호간의 계급적 대립은 자연히 소멸된다.

이상 대국가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여러 조건을 대략적으로 규정하였다. 원래 우리가 말하는 대국가주의라는 것은 그 전제로서 일반적 사회사상이 아니다. 이 사상체계는 조선민족적인 것이고 동시에 일본적인 것이다.

대국가주의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본적인 여러 구체적 조건과 조선민족 및 기타 적어도 일본의 국가적 생존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여러 민족과의 구체적 관계를 바탕으로 고찰해야 한다.

(5) 일본의 특수성과 동아 여러 민족

조선민족의 장래에 대한 고찰에 앞서 일본 전체의 장래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본은 동아에서 자본주의경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근대적 프롤레타리아를 유력한 국민부분으로 삼는다.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는 부분적이면서 계급투쟁의 관념적 실천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일본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운동은 최근에 이르러 급격히 그 방향을 전환하면서 더욱 일본적 개성이

농후해져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일반적 분위기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범한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많은 부분에 추상적 계급의식 대신에 일본의식으로 불타는 경향은 분명 일본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 일본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의 그것에 비해 매우 진보적이었다. (국민혁명 이후 지나의 무산자운동은 상대적으로 아주 활발한 전개를 보였는데, 엄밀히 말해 그 본질은 자본국의 프롤레타리아적 운동이라기보다 선자본주의적 반식민지 민중의 민주주의적 반제운동에 불과하다.) 특히 그 이론적 실천적 지도의 임무는 조선무산자운동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완전히 일본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동아 여러 나라에서의 프롤레타리아운동은 대개 코민테른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특별히 일본은 유력한 지부국(支部國)이었다. 그것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의 국내적 국제적 정세의 변화를 통해 세계에서의 일본의 국제적 지위의 양양과 그에 따른 국제외교적 및 국제경제적으로 긴박한 새로운 정세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종래의 지도방침을 일변시켜 이론적 실천적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즉 일본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 속으로 파고들어난 코민테른적인 여러 이데올로기=기계적 국제주의, 편파적 세계정책, 기타 비(非)일본적 관념은 결국 그 모습을 일본적 개성 속으로 몰입되고 말았다.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는 지금 자기의 민족적 개성=일본정신 속으로 자기를 되돌려 이를 더욱 고귀한 것으로 발전 양양시킴으로써 일본 민족과 일본 프롤레타리아의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사회의 이익을 위해 그 변혁을 위해 새로운 지도 원리를 희구하고 있다.

일본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최근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새로운 지도 경향은 일본민족의 개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조건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특수성임과 동시에 동양적 특수성이기도 하다.

근대자본주의의 일반적 특징이라는 보편성 위에 세워진 국제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체계는 각 국민의 특수성 때문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특수는 일반을 이긴다는 공식은 여기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무릇 특수는 일반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것이다. 사회변혁에 관한 운동은 특수적인 것임과 동시에 항상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일본주의=일본정신이란 오늘날까지의 일본민족 역사가 승화된 것이다. 이는 일본민족의 전통을 이루고 있고, 민족적 개성의 근거를 구성하고 있다. 일본주의의 가장 구체적인 최고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황도정신을 볼 수 있다. 황도정신은 그 일반적 기초를 동양의 왕도사상 위에 둔다. 왕도사상은 또 동양 여러 민족의 모든 생활상의 정신적 기초 및 사회생활상의 규범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동양 여러 민족 가운데 일본, 지나, 조선 및 만주 등 여러 민족 생활 역사의 근거에는 이러한 왕도사상이 흐르고 있다. 이는 모든 동양 여러 민족을 일괄하여 구미 기타 여러 민족과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 사회적 특징이자 특수성이다.

이러한 동양적 특성을 일본적 조건 아래 가장 잘 보존 유지하고 근대적으로 세련되게 발전시킨 것이 일본주의이다. 동양적인 왕도사상은 일본의 황도정신을 통해 근대적으로 완성되었다.

황도정신은 멀리 일본의 건국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즉

① 일본의 국체는 세계무비(無比)의 독특한 것으로 황조신칙(皇祖神勅)에 의해 나라를 세우고 만세

일계의 천황을 우러르고 있다. 역성개조(易姓改朝) 시마다 동요하지 않고 고금 일관하여 국본(國本)은 항상 안정되어 있다.

② 천황은 국가의 원수임과 동시에 혈족적으로 국민의 모든 씨족의 대종(大宗)이다. 따라서 건국의 신을 시조로서 군민(君民)은 동조(同祖)이고 제정(祭政)은 일치한다.

③ 국민은 모두 천황의 적자(赤子)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 원칙이다. 소위 일시동인(一視同仁)으로서 계급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한사람이라도 불평이 없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④ 국민도덕은 생활의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경신숭조(敬神崇祖)를 통해 대본(大本)을 이룬다. 향토 국가는 조선(祖先)의 □□으로서 애국관념은 신과 조선에 대한 감사 보은이고, 조선의 유풍(遺風)의 현창이다. 따라서 동포애도 사회봉사도 희생적 정신도 모두 여기에서 출발한다.

⑤ 모든 물건=재산은 신이 만든 것으로 국민은 신의 뜻에 맞도록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내일의 일본을 말하는 황도주의의 골자이다. 실로 일본정신은 우리가 외치는 대국가주의를 가장 잘 구현해야 할 대표적 관념형태여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 동양적 왕도사상은 일본의 황도정신으로 대표된다. 동양 여러 민족의 중요한 정신적 유산의 하나인 왕도사상은 일본의 황도사상 형태를 띠고 일본민족을 통해 그 물질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만이 동아시아의 우수한 독립국가로서 유일한 안정 세력으로서 모든 아시아 민족을 대신하여 동양 민족이 지닌 좋은 전통부분을 보존 발전시켜온 원인이다.

따라서 근대적으로 재건된 동양 여러 민족의 특징 있는 문화의 □=물질적 및 정신적 유산은 일본민족의 사회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점은 일본민족으로 하여금 동아시아의 지도적인 민족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 가장 자연적인 전제여야 한다.

이처럼 일본의 민족사회는 동양적 왕도=일본적으로 말하면 황도사상이 모든 민족생활의 □□를 이루고 민족적 개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민족생활에 관한 한 모든 사항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다.

코민테른의 일본에서의 활동이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일본민족의 개성의 중추인 황도사상과 맞지 않는 강령을 일본 프롤레타리아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다.

일본민족은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취향에 적합하도록 자기의 운명을 능력에 기대지 않고 자기만의 힘을 통해 변혁하고 재건해야 할 모든 조건을 착실히 구비하고 있다.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는 자기들의 계급적 해방도 장래의 사회개혁도 모두 이러한 황도사상 위에 입각하여 행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일본 프롤레타리아와 일본국민에 관한 한 가장 타당하고 가능한 조건을 자신을 위해 유리하게 원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인에게는 건국의 유래를 □□□□ 고금부터 일관된 황도 본연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소위 변혁도 개혁도 아닐지 모른다.

일본국민의 체내에 이미 존재하는 이러한 특수한 조건은 동시에 동양 여러 민족=조선 만주 지나 민족의 체내에도 머무르고 있다.

동아의 여러 민족 상호간에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및 전통적으로 아주 긴밀한 이해관계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여러 민족은 앞으로 종래의 대립적 관계로부터 탈각하고 혼연 융합하여 여러 민

족을 모두 하나로 만드는 일대국가 계통으로 통합해야 할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인 여러 조건이 특이한 박력을 통해 성숙되고 있다. 만주사변 이전과 이후에 이들 여러 민족 사이의 이해관계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 동시에 여러 민족 사이의 우호 친선을 기반으로 하는 결합에도 획기적 변혁이 일어났다. 만주사변 이후 지나와 외몽고를 제외한 동아 여러 민족 사이의 결합에는 이상한 긴장이 가해져 여러 민족에게 일본민족의 동아에서의 지도적 지위와 그 임무를 호의적으로 이해하기에 이르러 일본민족과의 보다 깊은 긴밀한 결합과 제휴를 통해 아시아 여러 민족을 약소민족의 지위로부터 구하고 나아가 주어진 물질적 정신적 조건을 여러 민족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이용하기를 희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희구가 아니다. 오늘날 정세를 보면 오히려 필연적인 것이다. 어떠한 극동의 변혁도 그 실천과정으로서 이 이외의 상태는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지도적 지위와 임무는 결코 제국주의나 침략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동아의 약소 소민족은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그에 따른 빈곤과 불행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민족생활은 민족적 평등과 민족 사이의 동포적인 협력과 호조(互助)를 통해 비로소 발전 향상함과 동시에 인류사 발전의 필연적 방향으로 계속하여 나아감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이 동아 여러 민족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자 밝은 일본의 내일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6) 내일의 일본과 조선민족

일본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종래의 개인적 자본주의의 모습은 점차 그 모습이 사라지고, 정치상 경제상 주목할 여러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일본국민 대중은 이를 가장 신뢰하고 있고, 그 자체도 일본적 개성을 잘 체현하는 우수한 요소의 수단을 통해 착착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내일의 일본'을 추구하는 일본국민의 노력의 과정은 일본민족과 이해관계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조선민족의 지위와 그 생활내용에 어떠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바이자 본 강연의 목적이다.

위에서 나는 대국가주의의 윤곽을 말하면서 이를 우리 사회변혁의 유일한 원리로 삼았다. 그리고 일본의 특수성 및 동양 여러 민족의 민족적 개성을 규명하고 오늘날 동아의 정세를 통해 일본민족의 동아에서의 지도적 위치와 그 임무를 지적하였는데, 그 임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대국가주의의 실현 그 자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민족을 불행하게 만든 나라의 많은 국민 부분은 불행하다. 이는 개인적 자본주의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본의 경제가 개인적 자본주의인 한에서는 많건 적건 이러한 결과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봉건적인 혼미한 체제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생활 속에서 호흡하고 있는 조선민족은 생활환경의 격변에 따른 응분의 고통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2천만의 경복(慶福)을 목적으로 한 병합도 충분히 그 근본정신을 철저히 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 일본의 경제조직 내지 정치조직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상 정치상 및 관념상의 모든 분야에는 가장 최악적인 최후를 지닌 자유주의는 점차 그 모습을

감추고 일본적 개성=황도사상 위에 선 국가적 전체 이익의 입장에서 경제상 정치상의 여러 기구는 착각 그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실천은 경제상으로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가적 경제조직이 국가적 통제경제조직에게 그 지보(地歩)를 양보하여 비로소 국민 대중의 생활은 안정될 것이다.

정치상으로도 자유주의의 가장 최악적인 일면이 폭로되어 일부 자본가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정치의 불순 부분이 당연히 소멸되고 진정으로 황도정치의 본령이 발휘되어, 국민은 편안히 정치를 신뢰하고 또 그 지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진실한 의미에서의 국가의 흥륭 및 국민생활의 지도와 그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황도주의 정치는 실현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조선은(만주사변 이후에 스스로 그 편린을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평등은 모든 생활분야에 인정되어 동포적인 협력과 상호부조의 협동체로서의 지위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동시에 오늘날 개인적인 자본사회에서 보이는 각 민족 내부의 계급적 차이를 절멸시키고 국민적 결합을 약화시키는 모든 소지는 없어질 것이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도래에 의해 조선 2천만 형제가 과거 수십 년을 통해 조선민족의 행복과 향상을 위해 바쳐온 피와 땀의 노력은 변질된 형태와 다른 의미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해방되어 조선민족은 빈곤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반일본적 요소로서 민족자결운동 또는 공산주의운동 등에 분명(奔命)해온 것도 요컨대 이러한 반일적 요소로서의 자기완성의 과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립물의 통일을 향한 과정, 양 민족의 기계적 통일로부터 변증법적 통일을 향한 과정, 결합 이전의 분리 과정으로서의 매개적 과정일 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은 객관적으로 양 민족의 결합상의 모순을 말살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고, 양 민족의 정치상 경제상 및 문화상의 모든 생활 부문에서의 접촉과 교섭을 더욱 구체적으로 심화시켜 양 민족의 생활상의 여러 이해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까지 우리는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만이 각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회생활 형태라는 낡은 원칙을 버리지 못하였다. 반만년의 역사와 2천만 민중을 절대불변의 형태로 삼아 단지 이러한 독립 전통을 지키는 것만이 지상의 임무로 삼아왔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적어도 대국가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는 오늘날에는 누구라도 그것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오늘날 경제생활상의 여러 조건은 군소민족의 국가적 장벽을 유해시하기에 이르렀고, 서로 공통된 생활 조건을 지닌 다수 민족이 통일적 국가기구를 통해 결합되는 것만이 각 민족의 복리를 추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이미 이러한 물질적 기초를 완성한 오늘날에 공허한 한 편의 무늬에 불과한 독립민족이라는 명목에 얽매는 것은 우리 민족생활의 향상을 의미하지 않고, 또한 앞으로의 진정한 발전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류사 발전의 필연적인 방향을 향해 계속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민족부터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일본민족을 지도자로 삼고 그 황도정신을 체득하여 민족생활의 근본적 재건을 도모해야 한다. 또 국민생활의 기초를 보다 견고히 쌓고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대국가주의의 실현을 위해 일본민족과의 완전한 결합을 목표로 삼는 보다 긴밀한 일원화

가 필요하다. 이는 양 민족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다.

또 우리는 이를 동아의 여러 민족을 향해 주장해야 한다. 이는 모두 우리의 항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아 여러 민족을 빈곤과 박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모든 의구심을 버려야 한다. 여기에서 모든 비겁한 마음을 없애야 한다.’

3) 사상문제의 연구토의

앞의 팜플릿 및 사회 우발의 시사문제 등에 대해 회원이 연구회를 개최하고 이를 회원 이외의 미전향자와 토의 연구시켜 그 비원(非遠)의 시정에 노력하였다.

4) 언론의 시정

언문신문의 논조는 자칫하면 비원을 내장할 때에 사상전향을 비방하는 경향이 있었다. 동아일보의 일장기말살사건, 조선일보의 수해구제하사금에 대한 불근신 기사사건 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명을 발표하거나 혹은 직접 관계자를 경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규탄하고 그 시정에 힘썼다.

동아일보에 발송한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지난번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1회 세계 올림픽대회에서 우리 손기정 선수가 영예의 월계관을 쓸 수 있었다는 커다란 사실은 모든 조선인을 얼마나 환희의 격랑과 열광적인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가.

손기정과 같은 위대한 선수를 낳은 조선반도=고토(故土)와 향토인의 이러한 축복의 환희와 흥분은 인정(人情)의 가장 당연한 것으로 스포츠 조선의 약진을 위해 환영할 현상이다. 그런데 손기정 선수의 영예는 결코 우리 2천만 향토인만이 혼자서 누릴 수 없다. 손기정 선수의 우승은 실로 '24년만의 모든 일본 국민의 숙망(宿望)을 달성한 것'이고, 작은 키의 동양인의 체질 때문에 만장(萬丈)의 의기를 떨친 전통양적 의의를 지님과 동시에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또한 세계적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종종 손기정 선수의 우승이 일부 편협한 민족적 견해의 포회자(抱懷者)에 의해 부당하게도 반국가적 선전의 재료로 악용되어 저열한 민족적 정치적 흥분을 부추기는 기화로 끝나는 경향이 있는 것에 정말로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더욱 위대한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먼저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조선인만의 영예로 삼으려는 편협한 태도를 거부해야 한다. 손기정 선수의 출장이 일장기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경기의 승리가 일장기의 □□과 모든 일본국민의 환호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통해 내선 양 민족의 심장과 심장이 이어지고, 공통의 환희와 감격이 얼마나 양 민족의 감정과 정서의 융합을 이루어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내지인 동포가 손기정 선수의 승리를 지칭하여 '모든 일본국민의 24년만의 숙망(宿望)의 달성'으로 환호하는 태도와 국민적 순정을 이해해야 한다.

일부 인사가 지닌 편협한 견해와 착각적인 인식은 드디어 성장 발달하려는 조선 스포츠의 장래에 커

다란 암영을 던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모든 경우에서 조선인의 세계적 국제적인 무대로의 영예로운 진로에 일대 장애를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걱정된다. 가장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지난 8월 25일자 동아일보(제5657호) 제2면에 게재된 손기정 선수의 사진과 같은 것은 명확히 이상의 기우를 사실화시킨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손기정 선수는 일본선수 자격으로 올림픽 대회에 출장한 것은 지금에 와서 반복할 필요도 없다. 또 그 승리가 일본선수 자격으로 얻어졌다는 것도 세계 모두가 인정하는 바로 여기에서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앞의 동아일보는 사진을 게재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일장기의 휘장을 말소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그 동기는 거의 어린이와도 같지만 그 결과는 실로 크다.

동아일보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조선인의 의사도 아니며 스포츠인의 의사도 아니고, 더욱이 손기정 선수의 본의도 아니다. 생각건대 이는 천박한 신문 상매매적 사리의 충동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겠는가. 그 편협□□한 태도는 정말로 기괴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손기정 선수의 빛나는 개선을 맞이하는 우리는 특히 냉정하고 자제력 있는 태도와 순정으로 이를 축하하는 현명함을 지녀야 한다.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축복한 나머지 착각과 탈선을 일으켜 경축해야 할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반대로 비극적 사태를 연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원래 스포츠 정신 나아가서는 올림픽 정신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편협한 광태(狂態)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포츠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국민적 입장에서 이를 맞이해야 한다. 고토(故土) 동포의 환희를 눈앞에서 보면서 이제 개선의 길에 올라선 손기정 선수가 조금이라도 실망과 낙담을 맞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가장 열렬히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 유력한 한사람이고, 또한 불후의 영예를 영구히 보전하는 자의 한사람이다.

이상 피력한 우리가 지닌 태도만이 진정으로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빛나게 만드는 일이자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천하에 밝혀두면서 동포 형제의 성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936년 8월 29일

경성부 중학정 1번지
대동민우회 창립위원회

5) 회원의 구조

취직 알선 4건, 생업 알선 2건, 혼인 매개 1건 등이다.

4. 지나사변에 당면한 활동개황

이번 사변이 발발하자 동 회는 그 본래의 사명을 감안하여 주로 여론의 환기, 민심의 지도에 진력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활동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1) 슬로건의 결정 발표 및 배라의 배포

시국에 관한 여론의 환기와 대중운동 전개의 시작으로 먼저 조선인의 태도를 결정하고 금후의 동

항을 명확히 지시할 필요가 있어 7월 15일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결정 발표하였다. 뼈라 3만매를 인쇄하여 회원 20명이 출동하여 이를 각 방면에 배포하였다.

우리의 슬로건

천주(天誅)로서 지나의 각성을 촉구한다.
사변 온중(溫中)의 동포를 보호하라
거국일치와 동포적인 협력을 다하라.
항일은 지나를 망하게 하고, 동아를 죽인다.
일본은 동아의 지도자로서 침략자가 아니다.
지나를 응징하라 그리고 동아를 백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라.

○ 총후의 의무
유언비어를 격퇴하라.
외첩(外讎)을 방지 격멸하라.
우리의 향토를 지키고 하늘을 지켜라.
1937년 7월 19일

대동민우회

2) 시국인식 강연회의 개최

앞의 슬로건을 앙양하고 일반의 시국에 대한 인식을 깊게 만들기 위해 7월 19일 오후 7시부터 경성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조선인이 개최한 시국에 관한 최초의 강연회로서 각 방면의 다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청중이 2천명에 이를 정도로 이상한 감명을 주었다.

당시의 강사 및 연제는 다음과 같다.

개회사	본 회 이사장	안준(安浚)
북지 시국의 발전과 조선인의 각오	본 회 이사	차재정(車載貞)
항일은 과연 지나를 구할 것인가	본 회 이사	주련(朱鍊)
사변의 진상과 황군의 결의	육군소좌	이녹우(李綠宇)
지나사변과 조선인의 입장	오사카아사히 지국장	스즈키 마사후미(鈴木正文)

3) 성명서의 발표

시국인식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여론이 드디어 환기되는 상황에 이르자, 그 지도이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7월 30일 사변의 본질 및 금후의 동향 침로(針路)를 명시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3천매를 인쇄하여 주로 언론기관, 학교, 교회 등의 지도층에 배포했는데, 경성에서 발행하는 신문지는 모두 이를 전재하였다.

성명

(1)

지난 7월 7일 지나 군대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북지사변은 거듭되는 배일행위 중에서도 특별히 노골적인 배일적 도전행위로 이후 지나 측의 불신과 날로 더해가는 전면적 도전행위는 더욱 명료해졌다.

오늘날 일본의 북지에서의 특수지위는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통해 몇 번인가의 사변을 경험하고 수억의 물자와 수십만의 생명(生靈)을 희생하면서 쌓아올린 권익으로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피와 명예의 결정인 북지의 여러 협정을 침범 유린하고 항일과 모일(侮日)을 통해 동양의 평화를 교란시키는 광폭을 일삼고 있다. 어찌 일본정부 및 일본국민이 이를 묵과할 수 있겠는가. 이에 제국은 상하일심(上下一心)하여 최후의 중대한 결의로 사태의 해결에 임해야 할 날이 다가왔다. 이는 오늘날의 객관적 및 주관적 여러 조건의 당연한 결과이다. 날로 위기가 증대하는 세계정국의 불안과 긴박한 동아의 정세는 일본으로 하여금 이번 사변을 계기로 지나에 대한 국책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관철을 결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2)

최근 일본의 국가적 흥룡 발전은 종래의 국제세력 균형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오랜 기간 세계 각 국민 위에 군림하던 백인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적 문명은 지난번 구주대전을 통해 그 근본적 결함과 파탄을 폭로하였다. 최근 만주국의 발흥과 뒤이은 일본의 국제연맹의 탈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의 구미인의 제국주의적 침략체계는 더욱 근본적으로 파탄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호소하던 동아인의 동아라는 이상의 실현은 착착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즉 오늘날 일본은 건국 3천년의 전통을 드러내면서 동아시아의 진수를 만들고, 동아시아 각 민족생활의 정신적인 뿌리를 이루는 황도정신을 불러일으켰다. 신일본건설의 기운이 팽배해져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내정에도 약진적인 개혁과 확충이 이루어졌다. 한편 내선만(內鮮滿) 일체의 경륜은 발걸음을 빨리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공동제휴와 공존공영의 기초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이 동아시아의 안정 세력으로서 평화 확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속해서 동아시아를 위협하는 외적을 방어함과 더불어 팽창하는 인구와 넘쳐흐르는 국력발전의 신천지를 개척하여 경제자원의 획득과 생산력의 확장을 통해 내선만을 일체로 하는 민중생활의 향상 충실을 도모해야 한다. 일본은 지나에 대해 영토적 야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오로지 정신적 문화적 공명과 경제적 제휴를 요망해 마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일본의 대륙정책의 정신적 국방적 정치적 경제적 근거의 정당성으로서 소위 팔굉일우 동아시아를 일가로 삼아 공동의 안녕복리를 염원하는 것이다. 지나가 만약 진정으로 4백여 주의 화평통일을 도모하고 외침을 막아 국민운동의 완성을 바란다면 혼연히 일본과 제휴하여 그 공동의 사명에 매진함으로써 신주(神州)¹⁾ 광복하는 동아인의 동아를 실현할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

1) 신국(神國)을 의미함.

(3)

그런데 지나는 지금도 여전히 구미 의존의 전통적 미몽(迷夢)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이이제이(以夷制夷)적인 수단에 의해 동아 자신의 문제에 바라지도 않는 구미열국의 간섭을 시종일관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지나는 오랜 기간 구미의 반식민지 지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고, 지나 민중은 구미자본의 끝없는 착취에 직면하였다. 지나 민중의 자유와 행복은 백인에 의해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이 응징하려는 것은 이들 완고하고 불의한 항일 무리로서 이를 통해 다름 아닌 지나 4억의 양민을 구제하고자 한다.

(4)

이번 사변을 통해 보더라도 지나 정부는 구미의 간섭을 불러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동아에 관한 한 단호히 구미인의 □□를 허용하지 않는다. 구미가 동아의 실정에 어둡지 않는 한, 구미는 지나 정부의 의도대로 소위 간섭적인 가벼운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이러한 사태가 유발 되더라도 일본의 동아에서의 지위 및 동아의 현상에 그 어떠한 불리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5)

황군은 이미 움직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지나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 만성화된 지나 정권자의 항일 태도는 일반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근절을 기할 수 없다. 동아의 장래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선량한 지나 민중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 철저히 이를 응징해야 한다. 이는 동아의 안정 세력으로서, 동양평화의 확보자로서, 동아의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임무이자 사명이다.

(6)

이번 사변에 대한 지속적 전면적 해결의 과정은 동시에 일본의 동아대륙정책 완성의 과정이고, 동아 여러 민족의 연계와 친선을 더욱 강화하는 과정이다. 조선은 이제 완전히 일본제국의 동아 세력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동양평화의 확보자로서 동아의 지도자로서의 일익의 임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지나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사변의 적극적 전면적 해결을 주장해마지 않는다. 이번 계기야말로 조선민중이 동아의 우수한 민족으로서 그 사명과 임무를 수행할 시기이고, 의지와 기개를 나타내야 한다.

조선 민중의 이해□□와 흥망성쇠는 실로 일본 전체의 그것과 밀접하게 합체되어 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의 민중에게는 집총의 의무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총후에서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평등하게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전체의식에 의거하여 국민적 감정과 동포적 순정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사변 극복의 결과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도록 시기에 따라 국민적 지원과 동포적 협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각오와 의무의 수행이야말로 모든 조선민중의 향상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조선민중의 국민적 지원과 동포적 협력을 주창하는 명분은 내선인의 이해□□의 필연적 공통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대국적인 견지에서 동아에서의 공동 사명의 자각

에 의거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국민적 순정의 발로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국민적 의기(意氣)와 희생적 정신이 높이 양양될 수 있다.

우리의 슬로건

천주(天誅)로서 지나의 각성을 촉구한다! 사변 온중(溫中)의 동포를 보호하라! 거국일치와 동포적인 협력을 다하라! 항일은 지나를 망하게 하고, 동아를 죽인다! 일본은 동아의 지도자로서 침략자가 아니다! 지나를 응징하라 그리고 동아를 백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라!

○ 총후의 의무

유언비어를 격퇴하라!

외침(外讞)을 방지 격멸하라!

입영 장병과 그 가족을 위문하라!

우리의 향토를 지키고 하늘을 지켜라!

1937년 7월 30일

대동민우회

4) 출정 군인의 송영(送迎)

경성에 거주하는 회원 25명은 역두(驛頭)의 송영반을 조직하고 7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일 주야 교대로 출정 통과부대를 송영하였다.

5) 시사문제연구회의 개최

시국의 발전에 따라 시사문제가 날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중화의 방법 등에 관해 종종 강구할 필요가 있어 경성 거주 회원 32명은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는 8월 7일 저녁 시내 명월관(明月館)에서 개최하였다. 그날은 특히 내선일체의 구현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회원 이외에 신문인 및 내지인 교화단체 녹기연맹의 간부도 참가시켜 토의 연구하였다.

제2회는 같은 달 20일 저녁 시내 열빈루(悅賓樓)에서 개최하고 주로 총독부가 발행한 시사해설 기타 팜플릿에 대해 강평(講評)하고 더불어 경성 및 지방에서의 최근 정황보고에 의거하여 비판을 가하였다.

제3회는 9월 2일 저녁 시내 국일관(國一館)에서 개최하고 특히 내선윤리사상의 이동(異同), 국제명징의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하면서 금후의 운동방법에 대해 협의하였다.

6) 출정군인가족의 위문

8월 27일 이후 9월 15일까지 경성에 거주하는 회원 15명을 출동시켜 과자나 수식(手拭)과 같은 간단한 토산을 들고 경성부 내에 거주하는 출정군인가족 209호를 위문하였다.

호별 위문의 결과 특히 구조가 필요한 자는 상세히 조서를 작성하여 참고를 위해 조선군사령부 및 군사후원연맹에 통첩하여 그 응급조치를 강구하는데 자료를 제공하였다. 위문은 내선인 상호의 감격을 불러일으켜 내선일여의 정신훈련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7) 격려문의 발송

시국에서의 거국일치는 내선일체에 중점을 두기로 하면서 이번에 반도 민중의 결의를 명확히 밝히고 중앙 당국을 격려하기 위해 8월 27일 총리대신 및 척무성, 육군성, 해군성의 각 대신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이번 지나사변에 대한 정부의 성명 및 단호한 조치에 완전히 공명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반도의 민중은 이번 사변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국민적 자각을 환기시키고 동포적 협력으로 더불어 국난을 극복하고자 의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즉 거국일치 애국정신의 고취와 총후의 임무를 다하고자 혹은 국방헌금에, 출정군인의 송영과 그 가족의 위문 내지 방호활동 등에 남녀노소 모두가 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민중의 열성은 더욱이 내지인 동포에게 반영되어 내선 양 민족의 심간(心肝)을 잇고 있습니다. 환희와 우애는 공통의 감격이 되어 더욱 동포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조선의 신정(新政) 이후 4반세기, 1931년 만주사변 발생 당시에 있어서도 볼 수 없던 정경으로 조선인은 날로 명실 모두 일본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경 이번 사변에 즈음하여 정부 및 모든 내지인 동포가 보여준 동포적 우애와 국민적 신뢰를 기초로 한 많은 조치=조선사단의 파견, 조선재향군인의 소집, 거둬들인 군사수송이 조선을 통과한 사실 등이 우리 조선민중을 자극하여 강렬한 감격과 혼연한 동포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적 감정과 노력을 바칠 기회를 얻은 것에 기뻐하고 당국에 충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중 심리의 이러한 비약적 변화는 그 국민구성 과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자발적인 감정과 노력은 앞으로 더욱 진전 강화하여 자신이 완전한 일본국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지나에 대한 방침을 극력 지지하고 정부 및 모든 내지인 동포가 이번 조선민중에게 보여준 우애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총후의 임무에서 미력하지만 동포적 협력을 다할 것을 모든 조선민중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각하께서는 제국의 사명과 국민의 여망을 감안하여 만전을 다해 우리의 지나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 전면적 관철에 매진해주시기를 마라마지 않습니다.

1937년 8월 27일

경성부 중학정 1번지
대동민우회 대표이사 안준

